

2019

정책연구 2019-15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 강화방안 연구

연구진 이동기 · 최윤규 · 신지원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9-15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 강화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이 동 기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최 윤 규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신 지 원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19JU0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I. 연구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II. 국제화 정책 개관	11
1. 국제화 개념 및 선행연구	11
1) 국제화의 개념 및 유형	11
2) 선행연구의 검토	17
2. 전라북도 국제화 현황분석	21
1) 구조적 요소	21
2) 기능적 요소	29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조례 및 정책 비교분석	37
1)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정책 유형	37
2)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관련 조례 비교	41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관련 제도 비교	44
4)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관련 정책 비교	48
5) 지방자치단체별 국제 문화 형성 비교	52
4. 시사점	55

III.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59
1. 추진전략	59
2. 추진과제	61
1)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국제화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확대	61
2) 전북형 공공외교 사업 추진	113
3) 국제화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126
IV. 요약 및 결론	147
참고문헌	155

표목차

〈표 2-1〉 국제화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13
〈표 2-2〉 국제교류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15
〈표 2-3〉 국제교류 분야 및 내용	15
〈표 2-4〉 국제화 수준 및 국제교류 영향요인에 관련 선행연구	20
〈표 2-5〉 현황분석 요인 분석틀	21
〈표 2-6〉 전라북도 국제화 관련 조직 현황	23
〈표 2-7〉 시도 해외사무소 현황-1('18년 1월기준)	24
〈표 2-8〉 시도 해외사무소 현황-2('18년 1월기준)	24
〈표 2-9〉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사업 현황(2019년기준)	25
〈표 2-10〉 전라북도 및 시군 국제화 조직, 인원	26
〈표 2-11〉 전라북도 국제전담부서(국제정책팀) 예산현황(2019년)	27
〈표 2-12〉 전라북도 시군 국제화 담당 조직 예산 현황	28
〈표 2-13〉 전라북도 및 시·군 국제화 관련 조례	28
〈표 2-14〉 전라북도 및 시·군 국제화 관련 조례 비교	29
〈표 2-15〉 전라북도 자매·우호교류 현황	30
〈표 2-16〉 전라북도 국제교류실적	31
〈표 2-17〉 시도별 자매·우호 결연현황	32
〈표 2-18〉 시도별 해외국가별 자매·우호 결연현황(2017.12말기준)	33
〈표 2-19〉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자매·우호 결연현황	33
〈표 2-20〉 전라북도 시군별 자매·우호 결연현황(2018.1월기준)	34
〈표 2-21〉 전북 공공외교 정책	36
〈표 2-22〉 국제화 관련 영역별 주요 내용	38
〈표 2-23〉 국제화 관련 정책 유형	39
〈표 2-24〉 국제화 정책 세부사업(1)	40
〈표 2-25〉 국제화 정책 세부사업(2)	41
〈표 2-26〉 국제화 관련 조례 현황	42
〈표 2-27〉 국제화 조례 유형별 비교	43
〈표 2-28〉 국제화 관련 정책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성격	45
〈표 2-29〉 국제화 관련 정책 및 자문위원회의 심의·조정 분야	45
〈표 2-30〉 국제화 관련 국제자문관 및 명예외교관(협력관) 운영	46
〈표 2-31〉 국제화 관련 국제자문관 및 명예외교관(협력관)의 역할	46
〈표 2-32〉 국제화 관련 국제교류재단 및 센터의 기능과 역할	47
〈표 2-33〉 국제화 관련 해외사무소(출장소, 국외본부)의 기능	47

〈표 2-34〉 국제개발협력의 대상 지역 범위 비교	48
〈표 2-35〉 국제기구의 가입 및 유치 비교	49
〈표 2-36〉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사업의 내용(서울시)	50
〈표 2-37〉 국제화 기본계획 내용	50
〈표 2-38〉 국제화 기본계획 수립 현황	51
〈표 2-39〉 국제협력기금 운용 내용(경상북도)	52
〈표 2-40〉 자매 및 우호도시 선정 및 체결 시 검토요건 비교	53
〈표 2-41〉 민간국제교류 지원 범위 지역별 비교	54
〈표 2-42〉 국제문화교류 지역별 비교	54
〈표 3-1〉 신남방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63
〈표 3-2〉 신북방정책의 16대 중점추진과제	65
〈표 3-3〉 단계별 신규 자매 우호 지역안	66
〈표 3-4〉 아시아 지역 국가 국제교류 필요성 및 단계별 추진방안	70
〈표 3-5〉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TOR) 현황	71
〈표 3-6〉 연해주 주요 사업분야와 전략적 이해관계	72
〈표 3-7〉 아르메니아 현안과제 및 경제발전전략의 기본방향	74
〈표 3-8〉 러시아·CIS·중앙아시아 국가 국제교류 필요성 및 단계별 추진방안	75
〈표 3-9〉 네덜란드 9대 선도산업	77
〈표 3-10〉 유럽 국가 국제교류 필요성 및 단계별 추진방안	79
〈표 3-11〉 아메리카·오세아니아·아프리카 국가 국제교류 필요성 및 단계별 추진방안	82
〈표 3-12〉 서울시 해외도시 정책공유 세부분야별 실적	85
〈표 3-13〉 서울시 해외도시 정책공유 사업 실적(교통분야)	85
〈표 3-14〉 싱가포르 정책수출 주요내용	88
〈표 3-15〉 전북형 해외도시 공유 우수정책 사례(안)	89
〈표 3-16〉 국내 국제개발협력 현황(2019년도)	92
〈표 3-17〉 정부 국제개발협력국 및 중점지원분야-아시아	93
〈표 3-18〉 정부 국제개발협력국 및 중점지원분야-아프리카 및 중남미, 중동·CIS	94
〈표 3-19〉 전북형 국제개발협력사업(안)	95
〈표 3-20〉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서울시 조례내용	96
〈표 3-2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현황	96
〈표 3-22〉 농촌진흥청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 사업내용	97
〈표 3-23〉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2017년)	98
〈표 3-24〉 전북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99
〈표 3-25〉 서울시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실적 현황	100
〈표 3-2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공무원 교육과정(2019년도)	101
〈표 3-2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3년간 운영현황	103

〈표 3-28〉 지자체 국제기구 가입 현황	106
〈표 3-29〉 지자체 국제기구 유치 수	108
〈표 3-30〉 국내 국제기구 유치 실적 현황	109
〈표 3-31〉 FAO산하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약정체결 내용	112
〈표 3-32〉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의 국제기구 유치 기반 조성 관련 일부개정안	113
〈표 3-33〉 중앙부처 공공외교 시행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116
〈표 3-34〉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추진방향 및 공공외교 사업	117
〈표 3-35〉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현황	118
〈표 3-36〉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사업 유형	120
〈표 3-37〉 해외 문화원 현황	123
〈표 3-38〉 시도 공무원 유학 및 연수 제도 운영 현황	127
〈표 3-39〉 충남 국외장기교육훈련 현황	131
〈표 3-40〉 충남 국외 장기교육훈련 직무과정 유형 및 선발요건	132
〈표 3-41〉 지방공무원 국외 장기교육훈련 어학요건	133
〈표 3-42〉 전라북도 국외훈련 운영규정(안)	134
〈표 3-43〉 전라북도 및 공공기관 국제교류 현황	135
〈표 3-44〉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2019)	138
〈표 3-45〉 시도 중국 상하이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	139
〈표 3-46〉 국제화 관련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업무 비교	140
〈표 3-47〉 타 지자체 국제교류 관련 센터 업무 비교	141
〈표 3-48〉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국제진흥팀 및 교류협력팀 업무	144
〈표 4-1〉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49

그림목차

〈그림1-1〉 연구추진체계도	7
〈그림 2-1〉 국제화 유형	14
〈그림 2-2〉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 조직 및 지원조직	22
〈그림 3-1〉 국제교류방식 패러다임의 변화	62
〈그림 3-2〉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향	68
〈그림 3-3〉 미얀마 농림업분야 중장기 개발협력 추진전략	68
〈그림 3-4〉 중국 일대일로 6대 회랑 플랜	69
〈그림 3-5〉 헬데를란트의 혁신네트워크	78
〈그림 3-6〉 싱가포르 우수정책 수출 단계	89
〈그림 3-7〉 전북형 우수정책 흐름도	90
〈그림 3-8〉 SDGs	91
〈그림 3-9〉 전북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농촌진흥청 협력체계 구축	98
〈그림 3-10〉 전라북도 자체 해외도시 공무원 교육훈련 연수사업 추진체계	102
〈그림 3-11〉 전라북도 자체 해외도시 공무원 교육훈련 연수사업 추진절차	102
〈그림 3-12〉 전라북도와 지방자치단체개발원 해외도시 공무원 공동연수 프로그램 운영 체계	103
〈그림 3-13〉 주요국의 국제기구 본부 현황	105
〈그림 3-14〉 국제기구 유치 추진방향	109
〈그림 3-15〉 국제기구 유치 프로세스	110
〈그림 3-16〉 국제기구 유치 검토방향(안)	111
〈그림 3-17〉 정부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114
〈그림 3-18〉 삼락농정 공공외교사업 추진체계	121
〈그림 3-19〉 전북 복합홍보관(J-CAFE) 추진체계	124
〈그림 3-20〉 한국 자유연상 이미지	125
〈그림 3-21〉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체계	136
〈그림 3-22〉 전라북도 민관협력 플랫폼	137
〈그림 3-23〉 전북청년 해외인턴십 추진 절차	138

1

장

연구 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국제화에 대한 중요성 부각

- 지방정부의 국제화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행정영역 확대 및 지역주민의 수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세계 각국과 경쟁적으로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화의 규모 및 수준이 확대되고 있음. 이는 지방정부의 국제화가 지역발전 및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김미연, 2010: 61)
- 지방의 국제화는 지방정부의 정책수요 확장으로 인해 지역간 경쟁 구조의 본격화 및 성장,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정책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4차산업 혁명으로 인해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중요성이 증가. 특히 민주시민의식 확산 및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소프트 파워의 자산 다각화 등으로 인해 국제화를 통한 지역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 급증
- 지방정부는 국제 도시 간에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임성 증대 및 국제환경 대응 능력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핵심동력 발굴 및 사업화 등을 위한 국제화 대응 역량 강화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화의 경우 오히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박범중, 2017: 166), 이러한 지방정부의 국제화 관심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보편화 되어 가고 있음(CDMX, 2015: 1)
-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문화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화는 지방정부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 및 상품, 문화 등이 해외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임. 지방정부가 국제화 시대에 있어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의미(이정주·최외출, 2003: 146). 이제 지방정부는 경제활동 능력의 가능성 확대, 도시모델 개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 공공서비스의 대응력 확보 등을 위해 해외 국가와의 역동적인 관계(a

dynamic of relationships)을 개척, 유지하지 않고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임 (CDMX, 2015: 1)

- 지방의 국제화는 지방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화 동인이 되고 있으며(조성호·박희정, 2004:104),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상황으로 간주 되고 있음(이재훈·양현주, 2011: 32-47)
-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국제화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의 문화 및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 등에서 모색되고 있음(송하중·윤지웅·김주경, 2010: 74). 이는 지방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정책의 주체이며, 국제화의 활동단위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이정주·최외출, 2003: 146)

○ 지방정부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국제화를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 브랜드 구축 노력 가시화

- 브랜드파이낸스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2조 달러로 세계 10위 (KBS 뉴스, 2018.10.15)
- 국제화는 국제교류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신종호 외, 2010: 3), 문화예술교류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 하고 있음(홍종필·여선하, 2012: 335)

○ 전라북도의 미래 가치 선점 및 대도약을 위해 도정 국제화 역량 강화 대응 필요

-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도 간의 국제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전라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여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전라북도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 국가는 4개국 10개 지역으로 타 시도의 평균 14개국 22개 지역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국제화 역량 기반 강화가 필요한 상황
- 민선 7기 도정목표인 전라북도 대도약의 정책 기조에 부응한 도정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 방향과 추진과제 도출 추진

○ 전북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 국가 확대 및 인적자원 기반 구축 필요

- 전라북도 국제화 기반 구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향 및 세부 정책 등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적자원 지원 기반 필요
- 지방정부는 국제화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내부 역량 및 기능, 구조 등의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함(박범중, 2017: 169)

- 지방정부의 국제화 기반 및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과의 교류 확대 등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지역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거주 생활 조건(living conditons)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포괄적, 지속적으로, 매력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CDMX, 2015: 1)

2) 연구 목적

-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현황분석 및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책 방향 및 과제 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국제화의 역량강화는 지방정부의 국제화 수준이나 국제화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다양한 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음. 예컨대, 국제화 역량 강화방안 등에서 도출된 과제는 주로 국제교류, 민관협력, 인재양성, 국제화 조직기반 구축, 공공외교사업 확대, 공무원의 역량, 국제화 지원 예산,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정도, 국제활동 지역의 다양성 등임(송하중·윤지용·김주경, 2010; 차재권 외, 2010; 우양호·이정석, 2010; 성태규·문희철·정연정, 2006; 조성호·박희정, 2004; 박형서·이동형·이주석, 2014 등). 그러나 본 연구는 국제화 역량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 첫째, 국제교류 역량강화 및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전라북도의 핵심 정책 및 시책,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교류 국가지역 확대 방안 마련
 - 전라북도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과 연계하고, 역사문화 및 지정학적 관계 등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대상 국가 등을 확대하고 단계별로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전라북도와 기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이루어진 자매우호 지역 간의 교류 내실화 및 지속화
- 둘째, 전라북도의 국제교류 및 글로벌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전라북도에 맞는 공공외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공공외교사업 발굴
 - 공공외교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외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기반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외교사업에

2018년 기준 1,063억원을 투자하고 전국적으로 550개의 공공외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셋째, 전라북도의 국제교류 협력 및 확대, 국제교류 협력 사업 등의 내실화를 위해 국제화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라북도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및 시군의 국제교류 확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역할 및 기능 확대를 통해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 따라서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 및 세부적인 과제 등을 도출이 필요. 지방 국제화 향상을 위해 국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박형서·이동형·이주석, 2014: 282)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고 민선 7기의 전라북도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국제화 정책 관련 선행연구, 전라북도 현황분석,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조례 및 정책 비교분석을 실시함. 국제화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화의 개념, 유형, 선행연구의 특징 등을 통해 국제화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국제화 현황분석을 통해 전라북도의 현상을 진단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추진하고 있는 조례를 비롯한 국제화 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과제 도출을 하고자 함
- 둘째,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등임. 전라북도의 현황분석, 사례 분석 등 다양한 연구프로세스 등을 통해 도출된 의견 및 시사점,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략과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국제화 관련 개념과 유형, 선행연구의 특징 등을 정리하여 이론적인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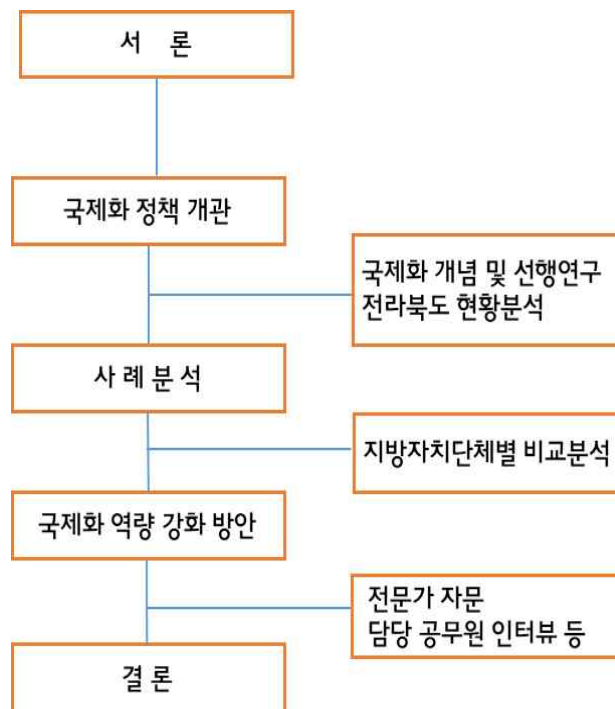
○ 사례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정책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 등을 도출

○ 전문가 자문

- 국제화 전략 및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자 및 관계자 등의 인터뷰 등을 통한 자문 실시

○ 연구추진체계



〈그림1-1〉 연구추진체계도

2장

국제화 정책 개관

-
1. 국제화 개념 및 선행연구
 2. 전라북도 국제화 현황분석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조례 및 정책 비교분석
 4. 시사점

II. 국제화 정책 개관

1. 국제화 개념 및 선행연구

1) 국제화의 개념 및 유형

가. 국제화의 개념

-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한 나라가 경제, 환경, 정치, 문화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의미(두산백과)하고 있음.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국제화의 개념에 대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
- 이용현(1994: 1567)은 국제화의 개념을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음. 즉 “첫째, 개인·조직·국가가 다른 국가와 거래를 통해 국제사회에 적응해가는 경험 유형의 총체적 과정, 둘째,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국제수준을 갖추는 것. 셋째, 한 국가와 국민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는 것. 넷째, 세계사회와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것. 다섯째, 전지구적 공동체를 실제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
- 박범중(2017: 168)은 “국제화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수준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주체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형태”를 의미한다고 개념 정의하였음
- 조성호·박희정(2004: 106)의 연구자들은 국제화를 “외형적인 측면에서 상품, 노동, 문화 등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전지구화, 내향적 측면에서 국가, 지방, 기업, 개인 등 활동주체들이 상호의존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
- 박용길(2003: 121)는 국제화란 “시간과 공간이동의 단축을 전제로 국가가 인적, 물적 자원, 정보, 문화 등을 교류함으로써 상호 융합 및 의존성을 강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함
- 송하중·윤지웅·김주경(2010: 77-78) 연구자들은 국제화의 개념을 조성호·박희정(2004)연구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내향적 국제화(inward internationalization)와 외향적 국제화(outward internationalization)로 구분하고 두 개념의 관계를 상

호 보완적 관계라고 함. 즉 “내향적 국제화는 의식과 제도를 글로벌 수준에 적합하게 고쳐나가는 과정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을 의미. 반면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 축진을 위해 국제교류, 국제통상, 해외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음

- 반면에 국제화를 지방정부의 내적 및 외적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연구도 있음(예컨대, 이윤식·이기식, 2002). 즉 “내부적 국제화는 내부조직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인식, 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등을 통해 글로벌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부적 국제화는 지방정부가 다른 국가와 상호작용을 지속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이윤식·이기식, 2002: 133)
- 차재권 외(2010) 연구자들은 국제화를 국가 간의 경계와 국가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개념 정의를 하였음. 즉 “국제화는 국가의 주권 범위 내에서 국가 질서 유지가 전제되는 가운데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를 의미하고 특히, 경제 교류를 통해 상호 의존성이 높아가는 현상”이라고 함(차재권 외, 2010: 93)
- 홍성우(2011: 201)는 국제화의 개념을 “지구화, 지식정보화, 네트워크화 등 지방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존 및 상징전략으로서 국제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 등을 증진 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함
- 박형서·이동형·이주석(2014: 284-285)는 국제화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인적, 물적, 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의 교류와 협력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 국제화는 국제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국제 활동 행위로 보고 있음
- 국제화의 개념적 정의를 국제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연구자도 있음. 이정주·최외출(2003: 146-147)에 의하면 “국제화는 국제교류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국제화 노력 등을 통해 행태와 경험을 축적,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음

나. 국제화의 유형

○ 국제화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 국제화의 유형에 대해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음. 이은재(1994)의 경우 국제화의 유형을 자매결연, 인적교류, 해외상설전시장, 국제화전담조직 등으로 구분하였음
- 지방정부의 국제화에 있어 언급되고 있는 유형은 국제교류임. 국제교류는 국제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이정주·최외출, 2003: 146; 김미연, 2010: 62; 박형서·이동형·이주석, 2014: 283), 국제화를 추진하는 당면과제의 해결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음(우양호·이정석, 2010: 395). 마찬가지로 신종호 외 연구자들의 경우도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류가 국제화의 하나의 방식과 수단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고 함(신종호 외, 2010: 3)

〈표 2-1〉 국제화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유 형
이은재(1994)	자매결연, 인적교류, 해외상설전시장, 국제화전담조직
송하중·윤지웅·김주경(2010)	해외자매결연, 해외연수지원, 통번역서비스, 우수사례, 국제화간행물발간, 국제포럼, 국제화지원서비스, 인력양성
홍성우(2011)	국제교류
이정주·최외출(2003)	국제교류
박형서·이동형·이주석(2014)	국제교류, 국제협력, 국제통상투자, 문화사회교류

○ 국제화 유형 설정

-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함.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국제교류의 대상을 발굴하고 외국의 자치단체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송하중·윤지웅·김주경, 2010: 92)
- 국제화 유형은 국제교류,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 인재양성 등으로 설정함



〈그림 2-1〉 국제화 유형

○ 유형 1: 국제교류

- 국제교류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국제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교류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정책의 수단 및 정책의 선택적인 상황으로 지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 및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박범종, 2017: 169),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임(이정주·최외출, 2003: 147). 이미 국제교류의 연구는 담론을 비롯하여 정책 및 사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음(우양호·이정석, 2010:395)
- 이러한 측면에서 박형서·이동형·이주석(2014)의 연구자들의 경우 국제교류는 국제화의 활동 주체이며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정부의 활동이라고 보고 있음. 즉 “지방의 국제교류는 지역사회 내 모든 단체와 계층이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 수단까지 망라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함(박형서·이동형·이주석, 2014: 283 재인용). 또한 국제교류를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인종, 종교, 언어, 체제, 이념을 초월하여 다양한 행위 주체가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라고 정의하기도 함(신종호 외, 2010: 13)
- 김형수(2017)는 국제교류를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 과 우호협력(friendship)으로 구분하고 “자매결연을 한 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 대해 상호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 경제, 문화,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반면에 “우호협력을 상호 교류를 위한 신뢰관계 형성 단계”라고 보고 있음(김형수, 2017: 43-44 재인용). 이러한 국제교류는 인적 및 행정, 문화예술, 및 관광과 청소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고 제시함

- 이러한 국제교류는 국가발전 및 해당 지역의 국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당 지역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됨(신종호 외, 2010: 13)
- 국제교류의 유형은 연구자별 약간의 차이가 있음. 김형수(2017) 연구자 경우 국제교류를 행정교류, 인적교류, 문화예술교류 등 11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고, 신종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자매결연, 경제통상교류, 학술·예술·문화·스포츠 교류, 행정·인적 교류, 국제기구 참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박범종(2017)의 연구자는 행정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을 구분

〈표 2-2〉 국제교류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교류유형
김형수(2017)	행정교류, 인적교류, 문화예술교류, 관광교류, 청소년교류, 스포츠교류, 기술학술교류, 경제통상교류, 민간단체교류, 상징사업, 기타
신종호(2010)	국제기구 참여, 자매결연, 경제통상교류, 학술·예술·문화·스포츠 교류, 행정·인적교류
박범종(2017)	행정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기타교류

〈표 2-3〉 국제교류 분야 및 내용

교류분야	해당항목 예시
행정교류	공무원 상호교환, 파견근무, 공무원 연수, 사찰단 및 조사단 등
인적교류	사찰단 및 조사단 파견, 청소년상호방문, 학생교류, 홈스테이 등
문화예술교류	축제 참가, 예술단공연, 바둑 및 서예교류전, 미술전시회, 서적기증 등
관광교류	수학여행, 의료관광유치 등
청소년교류	홈스테이, 수학여행, 청소년스포츠교류, 여학연수, 국제인턴십
스포츠교류	스포츠교류단 상호파견, 친선축구대회, 친선야구대회, 국제육상대회 등
기술학술교류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농업기술연수, 산업관련 연수 등
경제통상교류	경제교류협정체결, 시장개척단 파견, 경제상담회 개최, 국제인턴십, 상공회의소간 교류, 투자설명회, 기술이전 협의 등
민간단체교류	상공회의소간 교류, 예술협회, 의사회 등 민간단체간 교류, 대학생교류사업 등
상징사업	명예시민증 수여, 공원 조성 및 거리 명명식 진행, 자매도시 전시관 조성 등
기타	재난 상호 원조, 성금 전달, 의료봉사, 기증 사업

자료: 김형수. (2017).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와 도시. 서울연구원. p46 재인용

- 국제교류의 다양성 및 집중화를 위해서는 기존 교류 국가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제교류 대상 국가의 확대가 요구됨.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효과를 높여야 함. 신종호 외 (2010: 121)의 연구자들의 경우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국가와 유대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새

로운 국가를 선정하여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차재권 외 공동연구자들의 경우도 국제교류 등 국제화를 위해서는 대상 국가의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차재권 외, 2010: 118)

○ 유형 2: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

- 국제화는 글로벌 환경 및 세계시민의식 구조 등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정책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 추진 주체 및 관련 시군과의 유기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 이는 국제화 추진은 지방정부의 국제화 추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에 의해 역량이 달라질 수 있음(차재권 외, 2010: 117; 박범중, 2017: 183)
- 국제화 추진에 있어 외부의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국제화의 추진 기반 및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제화 자문단 등 운영이 필요함

○ 유형 3: 인재양성

- 지방정부는 국제화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인재양성이 중요함.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경쟁력 및 해당 지역의 브랜드 확보는 공무원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임
- 국제화 추진 정도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력관리 전략이 필요(김형수, 2017: 46)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적인 지원 노력 및 탄력적인 인사 운용이 요구됨(신종호 외, 2010: 105)
- 국제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등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및 실효적 운영이 필요. 이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임(신종호 외, 2010: 106)

2) 선행연구의 검토

- 지방정부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선행연구도 동시에 증가하였음. 국제화 관련 선행연구는 지방의 국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비롯하여 국제화 사례, 국제화 추진유형 및 방식, 국제화 영향 요인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가. 국제화의 개념, 필요성, 방향 및 과제 등의 선행연구

- 첫째, 국제화에 대한 개념, 필요성, 인식수준, 방향 및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들임. 이들 연구들의 특징은 주로 지방정부의 국제화 수준(degree of internationalization)과 관련되어 이루어졌음(예컨대, 홍성우, 2011; 고준호, 2017; 김형수, 2017 등)
- 홍성우(2011)의 경우 국제화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더불어 국제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제교류를 연구범위로 설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국제화의 중요성 등을 제기하였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국제화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 및 국제교류 실적이 많은 지역의 경우 대부분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음
- 고준호(2017) 연구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제화를 통한 도시외교 활성화를 위해 비전 및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였음. 즉, 추진과제로 영역 확대 및 기능강화, 콘텐츠 발굴, 아시아의 국제기구 중심지로 육성, 추진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 김형수(2017)의 경우도 국제화는 국제교류가 중요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국제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재양성의 지속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개별주체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지원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나. 국제화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

- 둘째, 국제화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임(예컨대, 황판·한상연, 2015; 박범중, 2017; 등). 국제화를 추진하는 사례들의 연구들 대부분은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단이나 방법 등에 있어 연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국제화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국제교류에 대한 지역 운영 사례가 대표적임
- 황판·한상연(2015) 연구자들은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제주도와 중국 하이난성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이를 활성화기 위해 국제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박범중(2017)은 국제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부산시의 국제교류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화의 중요성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의 대상 국가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전담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대상별 타겟을 설정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음

다. 국제화 추진 유형, 방식 및 수단 등에 관한 선행연구

- 세 번째로 국제화를 추진 유형 및 방식, 수단으로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들임(예컨대, 이정주·최외출, 2003; 신종호 외, 2010; 김미연, 2010; 우양호·이정석, 2010 등). 국제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부분 국제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제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음
- 이정주·최외출(2003)는 국제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목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국제교류가 근거가 된다고 하며 예산 확보, 관련 조직 확충, 제도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신종호 외(2010)는 국제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제교류가 필요하고,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기반을 구축하며, 협력적인 네트워크 및 대상 지역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전략과제 등을 제시하였음

라. 국제화 수준 및 국제교류 영향요인 등에 관한 선행연구

- 네 번째로 국제화 수준 및 국제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들임(예컨대, 하영수, 2001; 송하중·윤지웅·김주경, 2010; 차재권 외, 2010; 박형서·이동형·이주석, 2014, 우양호·이정석, 2010, 조성호·박희정, 2004 등)
- 지방정부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들은 내부적인 측면에서 변수를 설정하여 국제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하영수(2001)는 국제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 자치단체의 재정, 업무협조, 조직적 측면 등을 설정하였음
- 송하중·윤지웅·김주경(2010) 연구자들은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있어 해외자매결연, 해외연수, 통번역서비스, 우수행정사례, 국제화 간행물, 국제화 포럼 및 연찬회, 내향적 국제화 서비스, 국제화 인력양성 등의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음. 이들 연구자들의 분석결과 외향적 국제화 수준 향상을 위해 통번역서비스, 국제화 관련 간행물 서비스가 국제화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향적 국제화 수준 향상의 경우 국제화 관련 간행물 발간, 내향적 국제화 서비스 제공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차재권 외 (2010) 연구자들은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지표를 개발하여 분석하였음. 이들 연구자들은 국제화 수준 평가 지표로 환경적 인프라 구축 정도, 행정주체의 준비정도, 결과의 효용성 등을 중심으로 20개의 세부평가지표 구성하였음. 정신적 지표의 경우 개방적, 마인드, 의지와 비전, 행정 및 제도 인프라는 인력, 예산, 법률 및 제도, 지원시설, 지원서비스 등을 설정하였음
- 박형서·이동형·이주석(2014)의 연구자들은 경상북도 지역의 국제화 활동 수준의 평가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하였음. 국제활동의 지역적 다양성, 협력의 지속성 및 활동의 빈도성, 활동분야의 다양성,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국제화 정도를 평가
 - 세부적인 지표는 국제활동의 지역적 다양성의 경우 지역적 편중현상, 국제교류로 대상 지역 등으로 설정하였고, 협력의 지속성 및 활동빈도성의 경우 교류활동 지속기간 및 활동빈도 그리고 활동 분야의 다양성의 경우 국제교류, 국제협력, 국제통상투자, 문화사회교류 등으로 설정. 주민 및 지방 자체의 영향의 경우 주민참여정

도, 국제교류 의지 등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음

- 우양호·이정석(2010)은 국제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
을 두었음.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교류의 영향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규모, 전담조직
과 예산, 최고 관리자의 특성, 시민의 특성, 동기부여, 정부간 파트너십, 환경적 요
인 등을 설정하였음. 분석결과 국제교류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
담조직과 예산, 중앙정부의 지원, 최고 관리자의 특성, 동기부여, 문화·정서적 조건
등으로 나타남
- 조성호·박희정(2004)은 국제화 추진 역량 등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요인으로 중
앙과 지방간 관계 속에서 추진역량과 지방 자체적인 추진역량을 구분하였음. 지
방 자체적인 추진역량은 제도적인 변수와 행태적인 변수로 구분하였고, 제도적인
변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 전담조직의 정비로 보았고, 행태적인 변수는 단체장
의 의지, 공무원의 참여, 공무원의 전문성 등으로 설정하였음

〈표 2-4〉 국제화 수준 및 국제교류 영향요인에 관련 선행연구

선행연구	국제화 수준 및 국제교류 영향요인
송하중·윤지웅, 김주경(2010)	해외 자매결연지원, 해외연수, 통번역서비스, 국내·외 우수행정사례 제공, 지방의 국제화 관 련 간행물 제공, 지방의 국제화포럼 및 연찬회 개최, 지방의 내향적 국제화 지원서비스, 지 방의 국제화 인력양성
차재권 외(2010)	정신적 지표(개방적 마인드, 의지와 비전), 행정 제도 인프라(인력, 예산, 법률 및 제도, 지 원시설, 지원서비스), 인식(중요도 및 필요성 인지, 위치파악), 체계(사업추진체계, 평가체계 구축), 능력(공무원 외국어 능력, 시민외국어능력), 관계(시민사회 관계, 해외민간교류, 중앙 지방관계), 성과평가(해외투자 유치성과, 특화된 개발정도)
우양호·이정석 (2010)	지방정부의 규모, 전담조직과 예산, 최고관리자의 인적특성, 시민의 관심과 지지, 동기부여, 정부간 파트너십
성태규·문화철·정 연정(2006)	구조적 요소(조직 및 인력, 예산, 외부협력체계), 기능적 요소(인적교류, 정책교류, 자매결연)
조성호·박희정 (2004)	중앙과 지방간 관계속의 추진역량, 지방 자체적인 추진역량(제도적 변수: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전담조직의 정비; 행태적 변수: 단체장의 의지, 공무원의 참여, 공무원의 전문성)
박형서·이동형· 이주석(2014)	국제활동의 지역적 다양성(지역적 편중현상, 국제교류대상지역), 협력의 지속성 및 활동 빈 도성(교류활동 지속기간, 활동빈도), 활동분야의 다양성(국제교류, 국제협력, 국제통상투자, 문화사회교류), 주민 및 지방자치체의 영향(주민참여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의지)

2. 전라북도 국제화 현황분석

- 전라북도 국제화 현황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변수 및 내용 등을 참고하여 설정.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송태규 외(2006) 연구자들이 현황분석에 사용하였던 구조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자들의 현황분석 요소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현황분석 틀을 설정함. 구조적 요소는 조직, 인력, 예산, 제도 등, 기능적 요소는 인적교류, 정책 및 국제기구, 자매결연 등으로 설정하여 분석

〈표 2-5〉 현황분석 요인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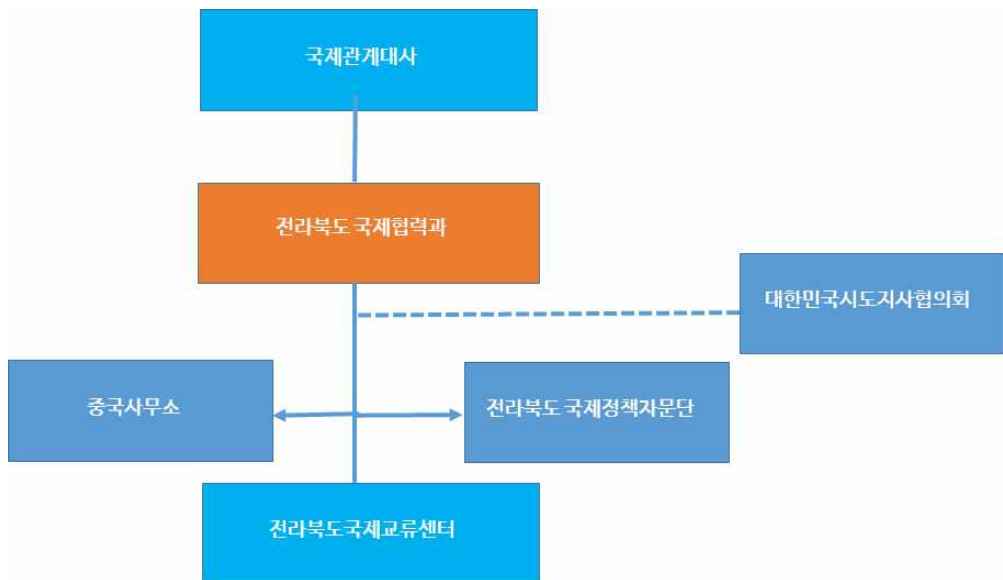
구분	구조적 요소				기능적 요소		
	조직	인력	예산	제도	인적교류	정책 및 국제기구	자매결연
송하중 외(2010)		○					○
차재권 외(2010)		○	○	○			○
우양호외(2010)	○	○	○				
성태규외(2006)	○	○	○		○	○	○
조성호외(2004)	○			○			
박형서외(2014)							○

1) 구조적 요소

가. 조직 및 인력

- 전라북도 국제화 관련 추진 조직은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중국사무소,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국제정책자문단, 국제관계 대사 등이 있고 지원조직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있음
-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 부서는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이며, 10명의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제협력과는 전라북도 국제화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전략, 국제교류 및 협력 정책에 대한 기획 및 조정 역할, 자매우호 및 결연사업 등

을 추진. 국제협력과를 중심으로 국제화의 기반 구축 및 자매·우호 국가 연계, 한·일·중·미 등 국가의 분야별 교류 추진, 한스타일 공공외교사업 추진, 도청 실국의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림 2-2〉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 조직 및 지원조직

- 또한,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정책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일본, 동북아시아(러시아, 몽골 등), 중국(장쑤성, 상해시) 등의 교류 업무, 한중 분야별(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 등), 미국(워싱턴 주, 뉴저지주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국제기구 관련 업무 등을 수행

〈표 2-6〉 전라북도 국제화 관련 조직 현황

조직 및 기구	인원(명)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10
중국사무소	5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11
전라북도 국제정책 자문단	16
국제관계대사	1
계	43

- 전라북도 국제교류를 위해 중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중국사무소는 2003년4월 상해시에 법인을 등록한 후 산둥성 청도로 2008년 7월 이전 후 다시 2012년 7월 에 상해로 이전하였음. 중국사무소는 현재 파견공무원 2명과 현지인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대행 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중국 내 자매·우호 도시 등 국제교류 및 협력,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도내 기업 통상지원, 중국 유학생 유치 및 한옥학당 운영, 중국내 전북민 회 활성화 지원 및 도정 홍보 등임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설치는 총 54개를 설치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경북 7개, 경남 6개, 대전 6 개, 부산 5개, 강원 5개, 광주 4개 순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

〈표 2-7〉 시도 해외사무소 현황-1('18년 1월기준)

자치단체	설치현황		자치단체	설치현황	
	국가명(도시명)	설치시기		국가명(도시명)	설치시기
부산	미국(LA)	996.4.1	대구	중국(상하이)	2013.5.1
	일본(오사카)	1996.7.1		베트남(호치민)	2016.8.1
	중국(상하이)	1997.7.8	대전	중국(심양)	2003.12.1
	중국(칭다오)	2016.7.15		중국(남경)	2004.9.1
	베트남(호치민)	2008.8.1		일본(후쿠오카)	2009.7.1
광주	일본(도쿄)	2003.4.1		베트남(빈즈)	2017.6.12
	독일 (프랑크푸르트)	2008.4.1		베트남(호치민)	2017.6.13
	미국(LA)	2011.2.1	강원도	미국(실리콘밸리)	2014.5.21
	중국(상하이)	2017.12.1		중국(베이징)	2015.9.1
경기도	인도(뭄바이)	2005.11		중국(길림)	1995.3.9
	러시아(모스크바)	2006.4.1		일본(도쿄)	2016.3.1
	말레이시아(KL)	2008.8.1		러시아(연해주)	2011.4.1
	미국(LA)	2009.9.1		베트남(호치민)	2017.6.9
	중국(상하이)	2010.3.1	경상남도	중국(산둥)	1999.7.12
	중국(심양)	2011.9.1		중국(상하이)	2003.2.8
	중국(광저우)	2016.3.31		미국(LA)	2008.3.2
	베트남(호치민)	2016.4.1		일본(도쿄)	2009.7.29
	중국(충칭)	2017.5.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2.5.1
	이란(테헤란)	2017.5.8		베트남(호치민)	2013.12.11
	싱가포르(상판역)	2017.11.21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표 2-8〉 시도 해외사무소 현황-2('18년 1월기준)

자치단체	설치현황		자치단체	설치현황	
	국가명(도시명)	설치시기		국가명(도시명)	설치시기
경상북도	미국(뉴욕)	2007.2.1	전라남도	중국(상하이)	2003.4.17
	미국(LA)	2008.2.1		일본(오사카)	2003.5.28
	중국(북경)	2009.12.22		미국(LA)	2003.12.10
	중국(상하이)	2015.8.1		독일 (프랑크푸르트)	2012.6.15
	일본(도쿄)	2015.8.1	충청북도	중국(상하이)	2015.1.2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5.8.1	제주특별자치도	중국(상하이)	2015.8.17
	베트남(호치민)	2017.1.23		일본(도쿄)	2017.8.23
전라북도	중국(상하이)	2003.4.17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 전라북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간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제화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설립(2015.8.6.)되어 운영되고 있음. 국제교류센터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2015.5.29.)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음. 국제교류센터는 현재 1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사업, 전북 매력알리기 사업, 프렌들리 전북사업 등 13개 사업 등을 추진

〈표 2-9〉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사업 현황(2019년기준)

사업	세부사업
전북 국제화사업	해외한국어 진흥사업, 공공 외교인프라 강화사업, 글로벌 리더 양성지원사업, 세계시민양성프로그램 운영사업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사업	전북형 개발협력사업, 글로벌 문화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전북매력 알리기사업	해외 민간교로 활성화 사업, 전라북도 테마답사, 재외동포 청소년교류 전북초청사업, 세계인한마당축제, 전북공공외교단 운영사업
프렌들리 전북사업	전라북도 영문 홍보잡지 제작,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

- 전라북도 국제정책자문단은 국제교류 확대와 공공외교사업 발굴 등 도정 국제교류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정책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도정 국제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문과 의견수렴, 전북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국제교류 정책과제 및 공공외교사업 발굴 자문,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한 교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고도화 모색 등임
- 국제관계 대사는 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 경험이 풍부한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 고위외무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운영. 2008년부터 현재까지 8명이 국제관계 대사를 채용, 운영하였음. 주요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지원, 해외교류사업의 활동지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협력 활성화 도모, 투자유치 활동 및 경제통상, 문화외교 활동 지원, 해외 협력 업무 등의 지원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조직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1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국제화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이와 관련한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은 지자체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인재 육성 사업과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 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국제화 지원 사업은 온라인 사무국, 국제교류멘토링,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방공무원 글로벌정책리서치,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평가대회, 해외우수행정사례발굴, 국제교류 활성화포럼 등의 업무를 수행¹⁾)
-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음. 그러나 업무 전담보다는 다른 업무 중에 일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표 2-10〉 전라북도 및 시군 국제화 조직, 인원

지역	담당부서	인 원
전라북도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10명
전주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팀	4명
군산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계	6명
익산	기획예산과 기획계	2명
정읍	기획예산실 기획팀	1명
남원	총무과 대외협력팀	3명
김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4명
완주	기획감사실 기획팀	1명
진안	기획감사실 기획팀	1명
무주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3명
장수	기획조정실 기획팀	2명
임실	기획예산실 기획팀	1명
순창	기획예산실 기획팀	1명
고창	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팀	3명
부안	새만금국제협력과	4명

나. 예산 및 제도

-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은 필수적인 사항임. 2019년도 전라북도 국제협력과의 총 예산규모는 10,912백만원이며 이 중 국제화 전담 부서인 국제정책팀의 예산은 4,467백만원임

1)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gaok.or.kr/검색일>, 2019.7.24.)

〈표 2-11〉 전라북도 국제전담부서(국제정책팀) 예산현황(2019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계	4,467
자매(우호) 결연지역 등 교류	101
전라북도 해외사무 운영	500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	1,538
자매결연도시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	100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	100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	17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25
전라북도-장쑤성 교류한미당 운영	200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1,262
남북교류협력사업	5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272
세계지방정부연합 협회비	14
재외동포 활동 지원	27
국제관계대사 운영	20
국제화 도민역량 강화	103
국제화 기반 구축 추진 기본경비	33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 전라북도 시군 국제화 담당 조직 예산 현황을 보면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예산규모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예산 내용은 국제교류 협력 지원 및 활성화 부문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가장 많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군산시로 1,373백만원임. 그 다음으로 전주시로 404백만원임

〈표 2-12〉 전라북도 시군 국제화 담당 조직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지역	담당부서	2019 예산
전라북도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10,912,812
전주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팀	404,500 (국제교류협력지원 부분)
군산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계	1,373,874 (국제교류협력증진 부분)
익산	기획예산과 기획계	314,967 (국내외교류활성화 부분)
정읍	기획예산실 기획팀	476,330 (국내외교류 부분)
남원	총무과 대외협력팀	297,000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및 대외교류 기반강화 부분)
김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276,240 (국제협력 부분)
완주	기획감사실 기획팀	287,300 (국제교류부분)
진안	기획감사실 기획팀	30,000 (교류협력강화 부분)
무주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241,750 (국제교류활성화 부분)
장수	기획조정실 기획팀	222,600 (국제교류운영 부분)
임실	기획예산실 기획팀	300,000 (공직마인드 향상_국외연수 포함)
순창	기획예산실 기획팀	221,460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부분)
고창	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팀	391,437 (대외협력관리 부분)
부안	새만금국제협력과	357,680 (국내외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주) 해당 시군 홈페이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추경예산 제외)중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국제화 기능에 해당하는 예산을 정리함

○ 전라북도 및 시·군 국제화 관련 조례는 남원, 진안, 장수, 부안 등을 제외하고 국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시군 지역에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를 통해 국제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는 국제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담은 조례로 2006년 정도 제정된 이후 폐지되고 있음. 해당 조례를 폐지한 자치단체는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지역 등임.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임

〈표 2-13〉 전라북도 및 시·군 국제화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전라북도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라북도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조례
전주	전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군산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지역	조례명
익산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정읍	정읍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남원	-
김제	김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완주	완주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진안	-
무주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수	-
임실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순창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고창	고창군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고창군 국제화추진 민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	-

〈표 2-14〉 전라북도 및 시·군 국제화 관련 조례 비교

지역	국제교류/협력 조례	추진협의회 조례		국제화 관련 센터 운영
		제정	폐지	
전라북도	○		○	○
전주		○		
군산	○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	
진안	×		○	
무주			○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	×			

2) 기능적 요소

가. 자매·우호 협력

○ 전라북도의 자매결연·우호도시는 4개국 10개 도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자매결연은 워싱턴주, 뉴저지주, 중국 강소성 등임, 우호협력 국가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이며, 일본의 경우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중국의 경우 상해, 산둥성, 운남성 등 3개지역이며 베트남의 경우 닥락성, 까마우성 등임

〈표 2-15〉 전라북도 자매우호교류 현황

구분	국가	지역명	체결연도	구분	국가	지역명	체결연도
자매 결연	미국	워싱턴주	'96. 05. 17(우호) '04. 06. 08(자매)	우호 협력	일본	가고시마현	'89. 10. 30
						이시카와현	'01. 09. 10
	중국	뉴저지주	'00. 05. 19		중국	상 해	'03. 04. 17
						산 동 성	'06. 11. 02
						운 남 성	'09. 10. 28
		중국	강소성		'94. 10. 27	베트남	닥 락 성
			까마우성	'19. 05. 03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 전라북도의 자매결연지역인 미국 워싱턴주, 미국 뉴저지 주, 중국 장쑤성 등임
 - 미국 워싱턴주는 체결(우호결연 1996.5.17; 자매결연 2004.6.8.) 이후 행정 및 인적 교류, 청소년 교류, 민간단체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뉴저지주는 바이오제약, 섬유화학품,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지역으로 체결(2000.5.19.) 이후 교류가 중단되었다고 지속화를 위해 방문 추진
 - 중국 장쑤성은 장쑤성에서 교류 제안으로 체결(1994.10.27.) 이후 2018년 기준 총 274회, 2,663명의 상호 방문 이루어졌음. 장쑤성과 자매결연 이후 오랫동안 전라북도와 행정, 문화 청소년, 교육, 스포츠, 언론, 학술, 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전라북도와 장쑤성의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전라북도 공식방문(2019.6) 이후 새만금한중협력단지, 해상 항로 개설, 새만금 재생에너지, 기업투자 및 수출상담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장쑤성과 실질적 경제교류 확대 위해 본격화 계획을 추진
- 전라북도의 우호협력 도시는 중국 상하이, 중국 산둥성, 중국 윈난성, 일본 가고시마현, 일본 이시카와현, 베트남 닥락성 및 까마우성 등임
 - 중국 상하이는 우호협력을 체결(2005.9.23.) 이후 2018년 기준 총 137회, 942명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졌음. 주로 행정, 교육, 경제 부문에서 교류 활동이 이루어졌음
 - 중국 산둥성은 체결(2006.11.2.) 이후 총 189회, 1,159명이 교류 활동이 이루어졌고, 행정, 교육, 청소년, 서예 부문에 있어 교류가 추진됨
 - 중국 윈난성은 전라북도에서 중국 서남 거점 지역 확대 차원에서 교류를 제안하여 체

결(2009.10.28.)이 이루어 진후 총 36회, 150명이 상호방문이 이루어졌고 , 행정, 청소년, 경제, 의회 등의 부문에서 교류 활동이 이루어짐

- 일본 가고시마현은 전라북도의 공무원 연수합의 각서를 계기로 인하여 체결(1989.10.30.)이 이루어지고 2018년 기준 총 454회, 4,233명 등이 행정, 문화예술, 인적교류, 언론, 의회 등의 부문에서 교류가 이루어졌음. 일본 가고시마현은 전라북도 교류 지역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이시카와현은 의회교류를 계기로 하여 전북도와 체결(2001.9.10.)이 이루어졌고, 총 122회, 1,626명이 행정, 청소년, 학교, 민간, 의회 부문에서 교류 활동이 이루어졌음. 일본 이시카와현과는 공통적인 관심사인 기계산업, 식품산업, 전통공예산업, 관광 레저산업 등에 집중하여 교류 활동을 추진
- 베트남 다락성은 민선6기에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체결(2017.12.22.)이 이루어진후 총 3회 59명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음. 다락성은 커피 및 옥수수 생산에 있어 베트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음

○ 전라북도 국제교류 실적

- 전라북도 국제교류실적은 3년간('16~'18년) 총 185회의 활동이 있었으며, 전북방문의 경우 110회, 국가방문은 76회로 나타남
- 전라북도 2018년 기준 국제교류 실적은 총 61회로 나타남. 2017년 국제교류실적은 58회이며, 2016년의 국제교류 실적은 66회 나타남
- 2018년 국가별 실적을 보면 중국 16회(전북 방문 7회, 중국방문 9회), 일본 15회(전북 10회, 일본 5회), 동남아 16회(전북방문 10회, 동남아방문 6회), 기타 14회(전북방문 11회, 기타방문 3회) 등으로 나타남

〈표 2-16〉 전라북도 국제교류실적

국가	중국			일본			동남아			기타(영어권등)			
	'18	'17	'16	'18	'17	'16	'18	'17	'16	'18	'17	'16	
계	16	13	18	15	18	18	16	4	17	14	23	13	185
전북방문	7	7	8	10	11	11	10	2	12	11	15	6	110
국가방문	9	6	10	5	7	8	6	2	5	3	8	7	76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 전라북도의 국제교류 활동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확대 필요

- 전라북도 국제교류 현황은 4개국 10개 지역으로 타 시·도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으로

전국 시도의 국제교류는 총 263개국 436개 해외도시이며, 평균 국제교류의 경우 15.47개국 25.65개 해외도시 지역임

- 국제교류가 활발한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 43개국 62개 지역이며 부산의 경우 23개국 31개 지역, 경기의 경우 24개국 37개 지역, 대전 19개국 25개 지역 등임
- 전라북도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16개국 28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2-17〉 시도별 자매우호 결연현황

사도	결연 현황(광역)	
	국가	도시
계	263	436
서울	43	62
부산	23	31
대구	11	23
인천	18	37
광주	12	22
대전	19	25
울산	14	19
세종	2	3
경기	24	37
강원	16	28
충북	11	16
충남	13	28
전북	4	10
전남	14	33
경북	15	24
경남	15	24
제주	9	14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검색일, 2019.7.17)

○ 시도별 해외국가 자매우호 결연현황을 보면 중남미의 경우 총 32개 국가, 동남아의 경우 87개 국가, 서남유럽 58개 국가 등과 우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흡함

- 시도별 아시아주 대상 도시의 세부지역별 현황을 보면 일본의 경우 38개 도시, 중국 115개 도시, 동남아 88개 해외도시 등과 자매우호 결연 활동을 하고 있음
- 시도 지역 중에서 전남이 23개 해외도시지역과 가장 많은 교류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과 인천 등이 각각 22개 해외도시 지역과 활동을 하고 있음
- 전북의 경우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7개 해외도시와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표 2-18〉 시도별 해외국가별 자매우호 결연현황(2017.12말기준)

사도	아메리카주			아시아주			유럽주		오세아 니아주	아프리카주	중동 지역
	미국	캐나다	중남미	일본	중국	동남아	서남유럽	북동유럽			
계	16	5	32	15	18	87	58	23	9	16	9
서울	1	1	7	1	1	14	16	5	1	5	1
부산	1	1	4	1	1	8	3	3	2	2	2
대구	1	-	1	1	1	4	2	1	-	-	-
인천	1	-	4	1	1	8	1	1	-	-	2
광주	1	-	-	1	1	3	3	1	-	1	-
대전	1	1	2	1	1	5	7	2	1	3	-
울산	1	-	2	1	1	5	1	1	-	-	1
세종	-	-	-	-	1	-	-	-	-	-	1
경기	1	1	2	1	1	8	7	1	1	1	1
강원	1	1	2	1	1	7	2	3	-	1	-
충북	1	-	2	1	1	4	2	1	-	-	-
충남	1	-	3	1	1	2	2	1	1	-	-
전북	1	-	-	1	1	1	-	-	-	-	-
전남	1	-	1	1	1	6	2	1	-	-	-
경북	1	-	-	-	1	6	4	1	1	1	1
경남	1	-	2	1	1	3	3	-	1	2	-
제주	1	-	-	1	2	3	3	1	1	-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참고하여 재구성

〈표 2-19〉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자매우호 결연현황

사도	기초자치단체 수	결연 현황(기초)	
		국가	도시
계	223	240	1,191
서울	25	29	143
부산	16	9	50
대구	7	8	25
인천	10	10	52
광주	5	3	13
대전	5	5	10
울산	5	7	19
세종	-	-	-
경기	31	37	214
강원	18	19	105
충북	11	10	54
충남	15	17	90
전북	14	12	62
전남	21	27	112
경북	20	23	114
경남	18	19	105
제주	2	5	23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검색일, 2019.7.17.)

〈표 2-20〉 전라북도 시군별 자매우호 결연현황(2018.1월기준)

사군	결연 현황	
	국가	도시
전주	5	9
군산	4	17
익산	4	4
정읍	2	2
남원	4	5
김제	4	4
완주	1	4
진안	2	3
무주	3	4
장수	1	1
임실	3	3
순창	-	-
고창	4	5
부안	1	2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참고하여 재작성

나. 국제기구 참여 및 공공외교 정책

① 전라북도 국제기구 참여 현황

- 전라북도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세계 지방정부연합, 국제회의컨벤션협회(ICCA),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임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1996년에 경북 경주에서 창립 총회를 통해 설립되었음. NEAR은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러시아) 78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사무국 소재지는 포항시에 있으며(2005.2) 1총장 1차장 2부(기획총무, 국제협력)으로 구성되어 연 11억 예산지원이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부담하여 운영
- 세계지방정부연합(UCLG)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 주거향상 도모, 지역사회 경제발전 지원 등을 위해 국제적으로 자치단체간 정보와 정책공유, 지방자치 분권 실현 노력을 위해 설립
 - 설립은 1913년에 설립되어 UN 193개 회원국가 중 140개국의 1,00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조직은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General

Assembly), 320개 지자체 대표로 구성된 세계이사회(World Council), 113개 지자체 대표로 구성된 세계집행부(Executive Bureau) 등 3개로 구성됨. World 사무국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있으며, ASPAC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음

- 한국 회원은 전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총 2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음. 제6회 UCLG ASPAC 총회를 전북에서 개최한 바 있음

○ 국제회의컨벤션협회(ICC)는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회의의 현황 및 통계 공유 목적으로 1963년에 설립되었음. 회원은 88개국 950여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태사무국은 말레이시아에 있고 세계사무국은 네덜란드에 있음. 한국 회원은 20개 단체 및 기관이 가입하였음

○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나 관광단체가 공동으로 관광진흥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노력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2년에 부산에서 총회를 통해 설립. 회원은 10개국 75개 도시, 9개국 37개 민간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사무국은 부산에 위치하여 있음

② 전라북도 공공외교 정책 추진 현황

○ 전라북도는 한스타일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사업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 연출사업, 자매결연도시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을 추진

○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사업은 매년 재외공관 5~6개소 정도를 한지 소재벽지, 조명등, 가구, 소품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연출하는 사업으로 외교부와 협의하여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공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자매우호도시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은 전라북도와 자매우호 지역에 한스타일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함. 한식·한복·전통놀이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한스타일 테마 부스 운영

○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 사업은 전라북도 유·무형 문화유산인 한지, 한식, 출판, 소리 등과 현지 문화자원을 연계, 접목하여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한국 문화의 확산 및 홍보함

〈표 2-21〉 전북 공공외교 정책

연도별	구분	재외공관 한스타일 연출		한스타일 전시관		전북의 날 운영
2018	추진대상	대사관, 영사관 공모		자매우호지역대상		해외 한국문화원 공모
		1차	2차	1차	2차	
	대상국가 (기관/장소)	말레이시아 체코	태국 캐나다	일본 (이시카와현 립음악당)	중국 (장쑤성) 공예미술 전시관	아랍에미레이트 (한국문화원) 아부다비국립극장, 자이드대학교
	주요내용	한스타일 공간연출	한스타일 공간연출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2017	대상국가 (기관/장소)	가나, 콜롬비아, 폴란드, 제네바, 중국	시드니, 사우디아라 비아, 샌프란시스코	일본 (가고시마)시 민문화홀	중국 (윈난성) 켄벤 션센터	멕시코 (한국문화원)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주요내용	한스타일 공간연출	한스타일 공간연출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2016	대상국가 (기관/장소)	시애틀, 몽골, 프랑스	모로코, 싱가포르	미국 (워싱턴주) 피어스칼리지, 헬스에듀케이션센터		베트남 (한국문화원) 하노이베스문화궁 전
	주요내용	한스타일 공간연출	한스타일 공간연출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2015	대상국가 (기관/장소)	오만	광저우	중국 (장쑤성) 난징도서관		인도 (한국문화원) select citywaki광장
	주요내용	한스타일 공간연출	한스타일 공간연출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공연, 전시, 한식, 체험관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다. 인적교류 및 글로벌 해외연수

-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제화 함양을 위해 인적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인적교류는 전라북도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정책으로 미국 워싱턴 주, 일본 이시카와 현, 중국 장쑤성 등과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워싱턴 주와의 인적교류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19명이 파견되어 인적교류를 하였음.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년 기간 동안 인적교류가 이루어졌으나, 2006년부터 2년간 동안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워싱턴주와의 인적교류는 2008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5년부터 인적교류가 이루어졌음

- 일본 이시카와현과의 인적교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었다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이시카와현과의 인적교류는 현재까지 총 7명이 파견되었음
- 중국 장쑤성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총 10명이 파견되었음. 중국 장쑤성과의 인적교류는 1994년의 체결에 의해 이루어졌음
-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선진사례 및 정책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현재 전라북도는 유럽 및 미주지역에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의 경우 1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글로벌 해외연수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3팀 1,237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에 29개팀 124명, 2018년 32개팀 129명이 참여하였음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조례 및 정책 비교분석

1)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정책 유형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화 정책에 관한 기본 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대체로 국제화 관련 정책은 국제화 관련 규범, 국제화 제도, 국제화 정책, 국제화 문화 형성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 강화 뿐 만 아니라 국제도시화, 국제 거점 도시로의 이행은 결국 국제화 관련 규범, 국제화 관련 제도, 국제화 관련 정책, 국제화 문화 형성 등의 일련 과정을 거쳐 형성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이나 국제 거점 도시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국제화 환경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발전함

〈표 2-22〉 국제화 관련 영역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제화 관련 규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국제화 정책 추진을 구체화시키고 제도적인 보장을 만드는 단계임. 국제화 관련 조례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에 준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정책이슈에 따라 형성됨. 절차적인 규범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화 관련 정책 및 사업, 제도를 이행함
국제화 관련 제도	국제화 관련 제도는 국제화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국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 제도는 국제화 전담 부서 설치, 자문위원회, 재단 또는 센터 설치 등이 있음
국제화 관련 정책	국제화 관련 정책은 제정된 조례와 이와 근거하여 설립된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구체적인 국제화 행정 및 사업 등을 의미. 국제화 관련 정책은 기본계획 수립, 우수정책 해외 공유, 국제개발 협력 등이 있음
국제화 문화 형성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국제화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 및 글로벌 위상이 확립되는 것을 의미. 도시교류의 날 운영,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민간학협력체계 구축,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등이 여기에 해당됨

- 첫째, 국제화 관련 규범은 국제화 관련 조례, 국제화 도시 및 교류 거점도시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 국제화 도시선언 등을 포함하여 구체화됨. 이러한 국제화 관련 규범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국제화 정책 추진을 구체화시키고 제도적인 보장을 만드는 단계임. 국제화 관련 조례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에 준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정책이슈에 따라 형성됨. 절차적인 규범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화 관련 정책 및 사업, 제도를 이행함
- 둘째, 국제화 관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국제화 관련 조례에 근거로 하여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화 행정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화 환경변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를 설치하거나 국제정책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사무소 설치, 국제협력관 운영, 국제교류 재단이나 센터와 같은 국제화 지원 및 자문 기구를 설치함
- 셋째, 국제화 관련 정책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의사결정 및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국제화 및 국제

교류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우수정책 해외공유 및 국제개발협력, 국제화 관련 백서 등이 있을 수 있음

〈표 2-23〉 국제화 관련 정책 유형

구분	규범	제도	정책	문화
내용	•국제화 관련 조례 •국제도시화 이행 •국제화 도시선언	•국제정책담당부서 •국제정책(추진)자문위원회 •국제교류재단/센터 •명예외교관/협력관 운영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	•국제화 및 국제교류 기본 계획 수립 •우수정책 해외공유 •국제개발협력 •국제기구 가입 및 유치 •국제행사 유치 •기금설치 및 운용 •기록보존 관리(백서)	•도시교류의 날 운영 •민관학협력체계 구축 •민간국제교류 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국제문화교류 •자매결연/우호협력

○ 넷째, 국제화 관련 문화 형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화 관련 정책과 사업이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과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국제화 친화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 국제화 분위기를 형성하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화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라북도의 글로벌 위상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국제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교류의 날 운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함

〈표 2-24〉 국제화 정책 세부사업(1)

구분	책무	자매 결연	교류 사업 내실 화	기록 보존 관리	명예 시민 증 수여	시민 명예 외교 관/ 해외 명예 협력 관 운영	해외 통신 원 운영	도시 의날/ 교류 의 날 운영	국제 기구 유치/ 가입	국제 대회 (행사) 유치	기금 설치/ 운용	해외 사무소 설치 운영
서울	●	●	●	●	●		●	●	●			
부산		●	●					●				
대구	●											
인천		●	●			●			●			
광주	●	●	●	●		●		●		●		
대전		●										
울산	●	●				●						●
세종	●	●	●	●					●	●	●	
경기												
강원	●	●	●	●								●
충북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		●
경북	●	●							●		●	
경남												
제주		●		●								

〈표 2-25〉 국제화 정책 세부사업(2)

구분	우수 정책 해외 공유	전문 인력 양성	국제 개발 협력 · 공적 개발 원조	공무 원 해외 도시 근무 /국 제인 재양 성	민관 학 협력 체계 구축	교류 재단 / 교류 센터	민간 국제 교류 지원	국제 정책 자문 단 운영	국제 협력 자문 관 운영	기본 계획 수립	국제 화추 진협 의회	국제 문화 교류	국제 문화 교류 협 회
서울	●	●	●	●	●								
부산						●	●						
대구			●										
인천			●						●	●			
광주			●							●	●	●	●
대전			●			●						●	
울산										●			
세종			●	●		●	●			●		●	●
경기			●						●			●	●
강원			●						●				
충북							●					●	●
충남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경북							●			●			
경남			●										
제주											●	●	●

2)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관련 조례 비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조례는 지역적인 국제정책에 대한 방향 및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조례 제정 및 내용 등이 상이함. 일반적으로 국제화 관련 조례의 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국제개발 협력, 국제문화교류, 국제교류재단 및 센터, 자매결연, 민간지원·자문운영·기금운용 등을 중심으로 제정되었음
- 국제화 관련 조례 유형은 국제교류 관련 조례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였고, 국제문화교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8개, 국제개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6개임

〈표 2-26〉 국제화 관련 조례 현황

사 도	조례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서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2014-05-14	국제교류담당관
부산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2016-06-08	도시외교정책과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15-02-25	도시외교정책과
대구	대구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2019-07-10	국제통상과
인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2007-11-05	경제자유구역청
광주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6-08-15	국제협력담당관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2018-08-15	문화도시정책관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실천활동지원 조례	2015-01-01	민주인권과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2017-08-01	국제협력담당관
대전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2018-04-20	국제협력담당관
	대전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	2007-10-05	국제협력담당관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2018-10-05	문화예술정책과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14-10-28	국제협력담당관
울산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2016-09-29	투자교류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2015-07-30	대외협력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8-11-12	대외협력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조례	2012-07-02	대외협력담당관
경기	경기도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2019-01-14	문화정책과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조례	2019-04-19	평화협력과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2013-12-02	외교통상과
강원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2017-08-04	중국통상과
충북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9-03-29	문화예술산업과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1-01	국제통상과
충남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9-6-30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15-09-30	기업통상교류과
전북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16-12-30	국제협력과
	전라북도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조례	2011-11-11	스포츠생활과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16-09-30	국제협력과
전남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16-10-27	국제협력관
경북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16-09-19	국제통상과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	2017-03-02	국제통상과
경남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2015-04-02	대외협력담당관
제주	제주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	1996-03-04	관광국제자유도시 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2017-12-29	문화정책과
	제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1994-03-31	관광국제자유도시 지원과

○ 국제화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제화 관련 조례가 1개에서 4개까지 제정되어 있음. 가장 많은 국제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광주와 대전으로 4개를 제정하였음. 그 다음으로 세종과 경기, 제주가 3개의 조례를 보유

하고 있음. 1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대구, 울산, 강원, 전남, 경남 등임

-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및 촉진 등을 중심으로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임. 그러나 국제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대구, 경남의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화 정책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 관련 조례만 제정하고 있음

〈표 2-27〉 국제화 조례 유형별 비교

사 도	조 례 유 형					민간지원/ 자문운영/기 금운용 등
	국제교류	국제개발	국제문화교류	재단/센터	자매결연	
서울	●					
부산	●			●		
대구		●				
인천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세종	●	●	●			
경기		●	●			●
강원	●					
충북			●			●
충남	●		●			
전북	●		●	●		
전남	●					
경북	●					●
경남		●				
제주			●		●	●

- 지방자치단체 중 국제개발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경남 등이고, 국제문화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임
-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 등을 중심으로 공적원조의 필요성과 더불어 신규 투자 촉

- 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국제 개발협력 관련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원국(受援國)과의 경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국제문화교류 관련 조례는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하는 조례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
 - 국제화 추진을 위해 별개로 조례를 제정한 사례도 있음. 국제화 추진을 위한 재단 및 센터 등 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과 전북이 며, 그 외에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충북), 명예 국제관계 고문 운영(경기), 국제화추진협의회(제주), 국제협력기금 운용(경북) 등을 제정하였음

3)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관련 제도 비교

- 국제화 관련 제도는 국제화 정책담당부서, 국제화 정책 및 자문위원회, 명예외교관 또는 국제협력관, 국제교류재단 또는 센터의 운영, 해외사무소 설치 등을 의미함. 국제화 정책담당부서는 국제화 정책 및 사업 등을 전문적, 행정적으로 담당하는 실행부서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제화 관련 제도의 한 형태임. 국제화 정책담당부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국제화 정책 및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및 국제화 기반 구축사업 등을 정책 자문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임
- 국제화 추진 네트워크 구축이나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명예외교관이나 국제교류 협력관의 운영도 국제화 관련 제도 중의 한 형태를 이루고 있음. 또한 국제화 관련 지원 및 정책 기구로서 국제교류재단 또는 국제교류센터의 경우, 해외사무소 설치도 국제화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형태로 분류됨
- 국제화 관련 정책 및 자문위원회는 국제화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하는 기구가 있거나 국제화 정책의 자문 기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구분됨. 국제화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관련 사업 및 정책 선정, 국제화 과제 발굴, 국제기구 등의 유치 및 지원, 그 밖에 위원회 인정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

〈표 2-28〉 국제화 관련 정책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성격

구분	인천	울산
인원	20	20
정책심의조정	●	●

〈표 2-29〉 국제화 관련 정책 및 자문위원회의 심의·조정 분야

구분	인천	울산
국제화 기본계획	●	●
연차별 시행계획	●	
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	●	●
국제도시화 사업 선정 및 추진	●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	●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		●
국제화 관련 위원회의 인정사항	●	

- 국제화 및 국제교류 추진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자문관, 해외명예외교관(협력관, 자문관) 등의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국제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국제자문관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하고,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시장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한 자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함. 국제자문관의 역할은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국제교류협력사업, 국제기구 유치, 해외인사와의 교류,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등임
- 명예외교관 또는 해외명예협력관(자문관)은 시민이나 교류 도시의 현지 교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각 대륙별 또는 언어권별로 위촉하여 각종 국제행사 안내 및 통역, 외국어 교육 지원, 해외홍보지원, 국제교류협력,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유치 등의 지원, 해외시장의 동향분석 및 제공 등의 민간차원에서 지원 운영

〈표 2-30〉 국제화 관련 국제자문관 및 명예외교관(협력관) 운영

구분	인천	광주	울산	전남
국제자문관	●			●
명예외교관/협력관/자문관	●	●	●	

〈표 2-31〉 국제화 관련 국제자문관 및 명예외교관(협력관)의 역할

구분		인천	광주	울산
국제자문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홍보	●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	●		
	해외인사 교류	●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		
명예협력관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	●		●
	해외홍보지원		●	●
	외국어 교육지원	●		
	외국 선진행정 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정보수집 및 제공			●
	해외바이어 연결 통상지원			●
	외국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도시간의 협력사업지원			●
	국제교류협력방문활동지원	●	●	

-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전담기구로 국제교류재단이나 국제교류센터를 설립. 이 전담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

〈표 2-32〉 국제화 관련 국제교류재단 및 센터의 기능과 역할

구분	부산	대전	세종	전북
기능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통상활동지원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국제교류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외국인 민원서비스 제공 •외국인 취업상담 •외국인 생활정보, 편의 제공 •외국인과 시민에 대한 국제화 지원 •외국인 네트워크 구축 •자매우호도시의 교류협력 •민간국제교류의 활성화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연구 및 기획 •국제행사, 국제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지원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시민에 대한 해외정보 제공 및 국제화 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국제기구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국제 민간교류지원사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외국인이 살기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정보공유사업 •기타 필요사업

○ 국제화 해외지원 부서로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해외사무소는 해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업무, 국제교류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에 있음.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외국의 정보 수집 및 제공, 외국기업의 유치, 해외 주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

〈표 2-33〉 국제화 관련 해외사무소(출장소, 국외본부)의 기능

구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기능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외국의 최신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제공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상담 및 지원활동 •외국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시정 및 문화관광에 대한 해외홍보 •재외교포와의 협조체계 구축 •그 밖의 인정사항	•통상지원, 투자유치, 농축수산업 등 경제관련 사무 •문화관광 및 도정홍보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자료 수집·분석 •그 밖의 인정사항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외국의 무역, 투자통상, 산업기술 정보수집 제공 •도내 공산품, 농수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전북 도정의 대외적 홍보 •기타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련 업무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제공 •도의 수출상품의 전시, 홍보, 수출상담지원 •무역, 투자의 일선 및 상담 •도의 도정, 문화 및 관광홍보 •그 밖에 인정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 국제화 관련 정책 비교

- 국제화 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심 정도, 국제화 추진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국제화 관련 정책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국제화 관련 정책은 크게 관련법 제정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과 지역의 국제화 정책환경을 반영한 정책으로 구분됨. 이 중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국제문화교류, 공공외교사업 등은 공공외교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등을 적용하여 추진되고 있음

〈표 2-34〉 국제개발협력의 대상 지역 범위 비교

구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경남
공적개발대상국 중 국제교류가 형성된 지역	●		●	●	●	●	●	●
해외재난재해 지역	●		●	●	●	●	●	●
우수정책과 제도 공유 및 상생발전		●						
재외동포거주지역			●	●	●		●	●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				●				
세계과학도시 연합회원도시					●			
6·25 전쟁 참전국						●		
OECD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	

-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정책 방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인도주의적 상생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우호적인 협력 및 개도국의 빈곤감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짐.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의 범위는 대체로 공적개발원조 대상 국가 중 국제교류 관계있는 지역,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원조가 필요한 해외지역, 재외동포거주 지역, 우수정책과 제도의 정책공유 등을 크게 구분하여 운영.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세종시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대상 국가로 6·25 참전 대상국을 포함하여 지원 방향 등을 수립하고 있음

- 국제기구 가입 및 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규모나 국제화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따라 국제기구의 가입 정도 및 국제기구의 유치 정도가 상이하여 달라질 수 있음. 국제기구 유치는 유치 기반 조성 및 지원 범위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은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 추진함. 국제기구 유치 활동이나 유치 활동 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홍보를 비롯한 국제기구 개소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함

〈표 2-35〉 국제기구의 가입 및 유치 비교

구분		서울	세종	충남	전남
국제기구 가입	국제기구의 가입 및 창설, 지원			●	●
국제기구 유치 기반 조성	국제기구 관련 국제협력 조사연구	●			
	국제기구 유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			
	유치기반 조성 인정사업	●			
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국내외 홍보	●			
	자료의 제공	●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 행정지원	●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	●			
	국제기구 지원 및 운영 인정사항	●			
	공유재산의 장기간 무상임대		●		
	지방세 감면		●		
	인력지원		●		
	사무의 우선처리		●		

-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정책을 해외도시의 지역적 특성 및 환경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정책공유를 실시하여 해외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우수정책의 발굴 및 우수정책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정책을 해외도시로 공유하고 정책수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기여

〈표 2-36〉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사업의 내용(서울시)

구분	서울
사업내용	• 우수정책의 발굴 및 체계적 정리, 우수정책 해외홍보체계 구축 •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추진 대상도시 발굴 •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 공적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사업 • 그밖에 해외도시와 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제협력 등 국제화 관련 기본계획 수립은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화 관련 기본계획은 비전과 전략,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유치·지원,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글로벌의식 함양, 민간 국제교류 증진 및 활성화방안, 도시 이미지 극대화 방안 등의 내용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표 2-37〉 국제화 기본계획 내용

구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북
수립기간(5년)	●	●	●	●			
중장기 비전과 목표, 전략	●	●	●	●	●	●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유치·지원	●			●		●	●
국제대회 유치 전략		●		●	●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 전략 및 활성화	●	●	●		●	●	●
시민의 글로벌 의식함양	●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		●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		●				●	●
관련 산업 유치 전략 및 발전방안				●			
국제화 증진 지원체계 구축방안		●	●		●		
국제화 촉진 및 국제협력 증진 정책개발						●	●

구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북
국제화 증진 지역주민 참여방안					●		
국제화 사업의 평가		●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	●	●		●	●
그 밖의 필요 사항	●						●

〈표 2-38〉 국제화 기본계획 수립 현황

지역	수립연도	계획명	기본계획 비전	전략
서울	2017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	세계와 함께 나누는 도시 서울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민관협치형 도시외교 •동북아 평화번영 기여 •도시외교 기반 조성
부산	2018	부산광역시 국제화 추진계획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품격있는 국제도시 구현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도시브랜드 마케팅강화 •외국인 살기좋은 환경 조성 •동북아 최고 전시컨벤션
광주	2017	광주광역시 국제교류활성화 기본계획	세계로 소통하는 열린도시 광주광역시	•국제화교류기반조성 •국제협력 사업의 내실화 •시민참여 내향적 국제화 추진 및 활성화 •글로벌 도시 브랜딩 구축
경기	2010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	세계와 통로, 글로벌 메갈로폴리스	•세계화 •실용화 •네트워크화 •다각화 및 다양화
울산	2018	울산광역시 국제도시 실현계획	국제화의 중심, 글로벌 리더 울산	•국제도시 수준에 맞는 인프라 확대 •외교역량 강화와 국제네트워크 형성 •외국인에 친근한 도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세계 공동체적 시민의식 보급 및 확산

자료: 부산(<http://www.busan.go.kr/bhbusiness01>, 검색일 2019.6.14.); 광주(광주광역시 국제교류활성화 기본계획); 경기(경기연구원, 경기도국제협력기본계획연구, 울산(<http://www.ulsan.go.kr/economy/fhbuicd7>, 검색일 2019.6.14.))

- 국제협력기금은 경북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국제협력증진과 민간 단체의 국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음.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해외자매우호도시 및 개도국 도시, 민간단체와의 국제협력사업 및 활동 지원, 우호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2-39〉 국제협력기금 운용 내용(경상북도)

구분	경 북
목적	•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및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사업 지원
기금의 자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 구성 : 10명 이내 • 기금의 운용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규모 결정, 기금의 목적 달성 및 존폐여부, 기금결산 등
기금의 존속기한	• 10년

5) 지방자치단체별 국제 문화 형성 비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문화 형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 도시의 날(교류의 날) 운영, 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국제문화교류 등임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문화 형성에 있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협약 등임. 지방자치단체는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설정하기도 함.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대전의 경우 자매결연 해외도시를 1국가 2도시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예외함. 이는 무조건적인 교류 국가의 확대보다는 교류의 필요성, 재정적인 여건,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검토사항을 명문화하여 적정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통적인 주요 검토사항은 면적·인구 및 행·재정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산업·지역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상호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역사·문화적 배경·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교류의 지속가능성 등임

〈표 2-40〉 자매 및 우호도시 선정 및 체결 시 검토요건 비교

구분	서울	인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과의 유사성	●							●		
면적, 인구, 행재정수준 등 지역 유사성	●	●	●	●	●	●	●	●	●	●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	●	●	●	●	●	●	●	●	●
상호 대응한 협력 및 우호증진가능성	●	●	●	●	●	●	●	●	●	●
교류를 통한 실익 기대성	●	●	●	●	●	●	●	●	●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	●	●	●	●	●	●	●	●
자매결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그 밖의 교류 지속(영속)가능성	●	●		●	●		●	●		

-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 분위기 형성, 지역주민들의 국제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우호증진, 교류 형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해외도시와의 교류의 날, 또는 도시의 날을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행사를 비롯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을 추진
- 민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국제교류 및 봉사 활동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교류, 자매우호 등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임. 지원 범위는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연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각종 초청연수 및 설명회, 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활동, 교육지원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등을 위해 국제민간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민간교류 차원이 아닌 국제기구 활동 경험 및 정보가 있는 기구를 중점 지원함

〈표 2-41〉 민간국제교류 지원 범위 지역별 비교

구분	부산	광주	충북
우수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연구	●		
국제교류 행사	●		
초청연수 및 설명회	●		
환경개선 지원 활동		●	
보건의료지원활동		●	
교육지원활동		●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개최 관련 협력사업			●

- 국제문화교류는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및 활성화 등을 위해 문화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향상시켜 국제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2-42〉 국제문화교류 지역별 비교

구분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제주
지역계획 수립	●		●	●	●	●	●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	●	●	●	●	●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0명)	● (-)	● (20명)	● (20명)	● (20명)	● (20명)	● (20명)
기능 및 사업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	●	●	
	• 국제문화교류진흥사업	●		●	●	●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양성사업	●		●	●	●	
	• 국제문화교류 정보의 유통사업	●		●	●	●	
	•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	●	●	●	●
	•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분담, 조정에 관 한 사항		●	●	●	●	●
	• 국제문화진흥 관련 인정사항		●	●	●	●	●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을 통해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진흥 관련 사업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 인원은 광주의 경우 2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대전의 경우 위원 인원을 한정하지 않고 임기를 2년으로 제한을 두었음
- 국제문화교류진흥 사업은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국제문화교류 진흥사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정보의 유통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임

4. 시사점

- 전라북도 국제화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조직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의 국제화 관련 사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전라북도 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 전라북도 시군 등의 국제화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추진 등에 대한 협력관계 등을 설정하여 협업 구조를 형성하여야 함. 전라북도 시군의 경우 자매결연, 우호협력 등을 중심으로 해외국가 및 해외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 남원, 진안, 장수, 부안, 무주 등의 경우 국제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익산, 정읍, 김제 등의 경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만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 시군의 국제화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협업 구조를 통해 국제화 기반 구축 및 정책을 추진함
- 둘째, 전라북도의 친선교류방식에서 벗어나 실리적인 공공외교 확대를 위해 해외국가 및 해외도시와의 교류 등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함. 현황분석 결과 전라북도의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는 4개국 10개도시로 전국 시도 평균 15.47개국 25.65개 해외도시 교류 실적보다 현저하게 미흡하여 정부의 신남방 정책 및 신북방 정책 등과 연계하고 실리적인 공공외교 등을 추진이 필요함
- 셋째, 전라북도 국제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국제기구 유치 등의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 사례분석에서 다른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관련 정책은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기구 유치 등임.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하여 수원국의 공적 개발원조 지원과 더불어 신흥국가와의 교류 확대

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의 우수정책, 관련 기업, 공공기관 등의 해외진출, 우수인재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안 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국제기구의 유치 및 참여는 세계적인 공통 아젠다에 참여하고 지방정부의 글로벌 위상을 위해 국제기구의 참여 및 국제기구의 활발한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넷째,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 그리고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환류 등을 위해 중장기적인 국제화 기본계획 등을 수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북 등 지역에서 국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에서 국제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고 있음

- 다섯째, 자매 및 우호도시 선정 및 체결 시 필요한 검토 요건 등을 마련해야 함. 현재 전라북도는 자매 및 우호도시 체결 등에 있어 경험적, 묵시적인 요건을 통해 우호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명문화된 자매 및 우호도시 체결 검토요건을 설정하여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대전의 경우 무분별한 체결 및 우호협력을 방지하기 위해 1국가 2도시로 제안하고 있음

3장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 전략과 추진과제

-
1. 추진전략
 2. 추진과제

Ⅲ.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1. 추진전략

- 전라북도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전북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국제화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확대,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추진,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등으로 설정
- 전라북도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외연적 확대 추진
- 한스타일 사업을 포함하여 전라북도에 적합한 공공외교사업 등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글로벌 이미지 정립 및 글로벌 브랜드 확산
- 국제화 역량을 위해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고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기능 등을 강화하여 민간 국제교류의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 확대

①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국제화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확대

- 국제화를 위해 자매·우호 해외도시의 확대 및 실질적 운영이 필요함. 현재 전라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해외도시와의 자매·우호 관계 형성이 적어 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특성과 적합한 해외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해야 함. 특히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추진에 맞추어 해당 국가 및 해외도시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실리적인 외교 형태로 전환해야 함
- 전북형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 및 정책수출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확립 및 위상 확립을 추진. 전라북도가 보유한 우수한 정책 분야를 발굴하고 해외도시와의 공공 외교 및 국제교류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 전북형 국제개발협력(ODA)는 지속가능개발 목표 이행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내 지자체의 참여가 높음.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인도적인 지원과 더

불어 개발도상국가의 개발 잠재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북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

- 국제화를 위해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공동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여 자매·우호 도시와의 신뢰 관계 형성 및 전라북도 우수정책 사례의 홍보, 전라북도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전북의 글로벌 가치 확대 및 지속적인 국제 교류 추진
- 글로벌 공동의제 참여 및 의제 설정 등을 통해 해외도시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목적을 달성하여 해외국가 및 도시간 상호 신뢰 형성, 전라북도의 글로벌 위상 정립을 위해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 및 유치 기반을 조성

② 전북형 공공외교 사업 추진

- 공공외교법 제정으로 공공외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외교사업이 550개 사업(2017년)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규모도 1,063억원이 투입되고 있을 정도로 공공외교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전라북도 한스타일 사업(공간연출사업, 전시관 운영,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 등을 통해 공공외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공공외교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전라북도의 대표 공공외교사업으로 육성 필요

③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 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해 공무원 직무연수 및 유학제도 도입 등 공무원의 국제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이 필요. 현재 전라북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공무원 파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극소수에 인원에만 한정하고 있고 주로 업무 파견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교육훈련을 통한 연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별, 공공기관 등에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 등을 통합, 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

질적인 국제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전라북도 국제관계 대학 및 시군, 시민단체, 연구소 등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교류 민·관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 활용을 위해 공공외교백서를 제작하며,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 해외문화원, 해외기업 등 글로벌 일 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
-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제교류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신규사업 발굴 및 업무진단을 통한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

2. 추진과제

1)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국제화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확대

(1) 추진방향

- 전북의 미래가치 증가 및 글로벌 브랜드 제고를 위한 교류 국가 외연 확대
 - 전라북도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의 역점시책, 지역발전, 경제발전,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의 전라북도 글로벌 브랜드를 정립하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 및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외연적 영역 확장
 - 전라북도의 정책 및 자원 특성 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산업,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확대
- 자매·우호 교류 협력분야의 지속화 및 다양화, 실리적 교류 확대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매 및 우호 지역과의 협력 분야의 지속화 등을 통해 상호 신뢰 관계 형성
 -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동과 우호 국가 및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 지속화를 위해 자매 결연·우호 협약 등에 대한 체결 확대 추진
 -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가 산발적, 개별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방식에서 실질적, 전략적 관계로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



〈그림 3-1〉 국제교류방식 패러다임의 변화

○ 국위별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추진 방향 모색

- 선진국 및 인접국, 신흥국, 후진국 등의 국가별 상황 및 국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 방향 모색
- 선진국(유럽 및 미국 등)의 경우 선진 행정 및 산업, 시민의식 등 벤치마킹 등을 통한 사례 확산
- 인접국(일본, 중국 등)의 경우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문화예술이나 경제 및 인적교류를 추진
- 신흥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등)은 개발협력사업, 도내 기업진출, 투자대상점토 등 경제외교 및 문화적 교류 등을 추진
- 후진국(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개발지원사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원외교 및 기업협력진출, 대학연계 사업 등을 추진

(2) 추진과제

① 자매·우호 해외도시 확대 : 전북실�크로드 조성

■ 목 적

- 전라북도의 국제화를 제고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도시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륙별 국제교류 자매·우호 국가 확대 추진
-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에 따라 연계성을 유지하고 국제교류 다원화를 통해 전라북도 국제화 기반을 구축.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국제교류 확대 정책에 의한 유라시아 진출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할 경우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 등과의 관계 강화 및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임.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 회원국이며, 여기에 인도를 포함하여 신남방 11개국가 등을 대상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 의하면 국내의 주요 방문 국가이며 교역, 투자대상 국가가 아세안과 인도 지역으로 국내 1위방문 지역(한국 아세안 방문 720만명, 아세안 국가 지역 방문 2010만, 2017년 기준), 교육투자 대상 2위, 수출대상국 7위 등2)으로 전략적인 중요 지역임
- 신남방정책의 목표는 교류증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미래지향적인 상생경제협력기반 구축,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등임

〈표 3-1〉 신남방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람 (people)	상호방문객 확대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대, 국내 여행호나경개선, 비자간소화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수교기념 북한한류행사개최(말레이시아 20년/60주년, 베트남 22년/30주년)
	인적자원 역량강화지원	정부초청 장학생 및 이공계 연수생 규모확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교류 확대, 기술직업훈련 지원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시민사회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지원, 반부패 공공행정시스템 개선 등 거버넌스 강화 지원
	상호체류 국민권익보호증진	외국인노동자의 출입국, 구인구직 및 경력개발 등 고충처리지원, 다문화 취약가정 교육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
	삶의 질 개선 지원	농촌개발 및 농업기술 ODA 확대, 물관리 및 질병 대응 역량강화지원
상생번영 (prosperity)	무역투자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RCEP 조기타결,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 개선, 비관세장벽 완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간, 다자간 협력 채널 확대, 거점 협력센터 확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18.6설립)· 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사업(PPP) 수주 지원
	중소기업 등 시장 진출지원	한류박람회 등을 통한 한류마케팅 확대, 유통대기업 해외 홈쇼핑 활용 등 우리기업 소비재 시장진출 지원
	신산업 및 스마트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역량제고	5G, K-Smart (Smart-City, Smart-Farm, Smart-Island, Smart-Farm),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인도, 싱가포르), 보건의료업 및 제약,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등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사업 현지투자 확대 지원(인니), 한국 산업제도 공유, 기술지원센터(TASK) 설치 등 산업화 역량 강화(베트남, 미얀마 등), 중소기업 기술교류 협력(베트남,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 등)

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http://www.nsp.go.kr/national/national02Page.do>(2019.7.17.검색)

평화 (peace)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2년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의 정상회의로 격상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강화	아세안 회의체 및 아세안 각국의 북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국방 방산협력확대	한-인니 차세대전투기(KF-X/IF-X) 국제공동개발 사업 추진 등 방산협력 기반 마련
	역내 테러 사이버 해양안보공동대응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대테러·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아세안 사이버 안보센터(싱가포르) 설립 참여, 선박 안전향해 역량강화
	역내긴급사태 대응역량강화	기후기술 협력수요 발굴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재난위험 경감, 재난 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돌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 기술공유, 해양조사·예보 인프라 구축 지원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참고하여 작성

-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철도, 전력, 북극항로, 항만, 수산, 가스, 조선, 농업, 산업단지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북방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함
-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교두보를 확보하여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와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해정, 이용화, 2017: 1~2)
- 신북방정책은 5개 전략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소·다자협력, 통합네트워크, 산업협력고도화, 인적교류 확대,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북방정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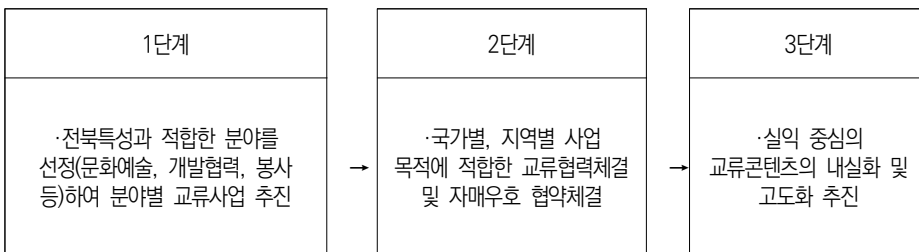
〈표 3-2〉 신북방정책의 16대 중점추진과제

소·다자협력	통합네트워크	산업협력고도화	인적교류확대	추진체계구축
·초국경 경제협력 ·한동해 관광협력	·유라시아 물류망 구축 ·동북아 수퍼그리드구축 ·한-러천연가스협력 ·북극항로진출	·한-러혁신 플랫폼구축 ·인프라환경협력 ·4차산업혁명대응 ·금융접근성강화 ·보건의료협력 ·농수산분야진출	·문화체육관광협력 ·청년교류인력양성	·민관협력체계구축 ·외교협력기반조성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발표자료('18.6월)

■ 자매·우호 교류 확대 목표 및 대륙별 대상 국가

- 자매우호지역 : 후속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상호방문 정례화를 통해 자매 우호 지역의 연계성 확대
- 신규검토지역 : 신규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지역별 적합하게 교류사업 및 공공외교 사업 등을 개발하여 교류를 위한 교두보 및 대상 지역 확대



- 신규 자매우호 목표 : 현재 4개국, 10개지역 → 13개국, 20개 지역으로 확대
- 단계별 목표 전략
 - 1단계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영국, 러시아, 아르메니아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2단계는 베트남, 몽골, 중국, 독일,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호주, 마다카스카르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함

- 3단계는 미얀마, 인도, 프랑스,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브라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류협력 등을 추진

〈표 3-3〉 단계별 신규 자매 우호 지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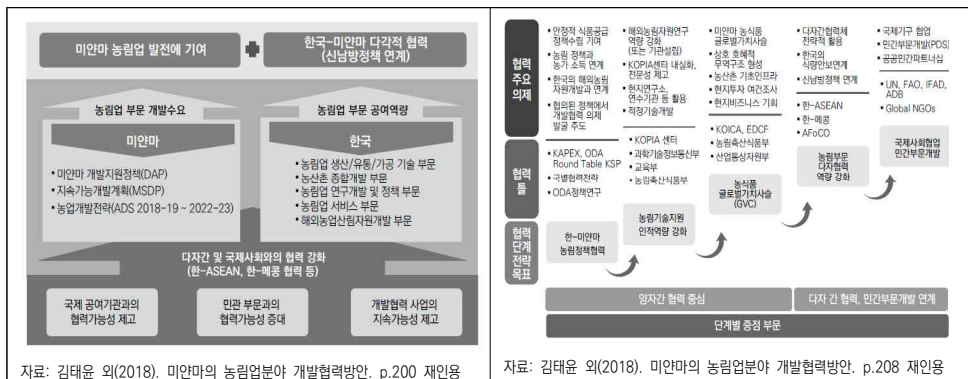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점 교류활동 (협약·MOU체결목표)	6지역 (4지역)	8지역 (3지역)	8지역 (4지역)
아시아	인도네시아(서부수마트라주) 베트남(호치민시) 라오스(루앙프라방주)	베트남(까마우성) 몽골(셀렝게아이막) 중국(스촨성)	미얀마 (네파도) 인도(마하라슈트라주)
유럽	영국 (노스웨스트잉글랜드주)	독일 (바이에른주)	프랑스 (오토노르망디주) 네덜란드 (헬데를란트주)
C I S	러시아(연해주) 아르메니아(예레반특별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아메리카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	브라질 (상파울루주)
오세아니아		호주 (시드니)	호주 (빅토리아주)
아프리카		마다카스카르 (안타나나리보)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

■ 아시아 지역 교류 대상 국가의 특성 및 교류 필요성

- 베트남에 대한 국내 투자가 2018년기준 전년대비 60.3%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보험, 부동산, 도소매업 등의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이재호, 2019 : 6). 베트남의 경제산업구조는 가공식품, 섬유 및 의류제품, 전기전차, 1차산업에 비중이 높고 국내 기업 및 정부 등과 밀접한 상호교류가 형성되어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의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교류 전략을 통해 협력관계를 설정
- 인도네시아는 전라북도가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인 관심을 두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여야 하는 국가임. 인도네시아는 자원을 공급하는 국가로 아세안 경제

를 주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인도네시아가 한국 수출의 자원공급 지역이고 한국과 지속적인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이홍식 외, 2018:110),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함.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내 투자는 제조업 및 농림업 부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 투자보다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이재호, 2019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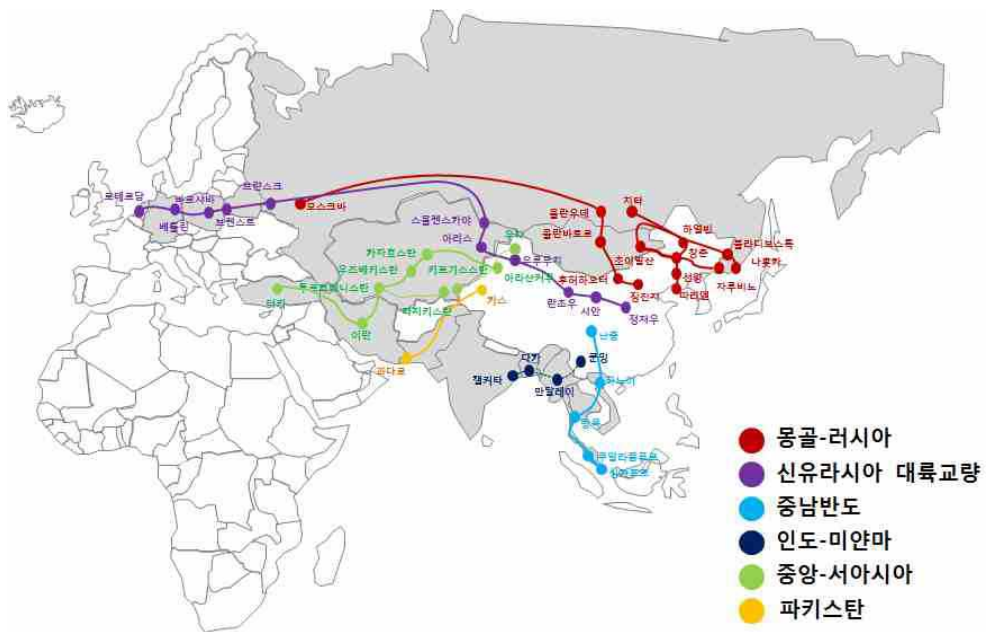
- 라오스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부문은 광업 및 소매서비스로 자원빈약국인 한국으로서 광업자원이 풍부한 라오스와 중점 협력국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이홍식 외, 2018: 102),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국제교류 협정 및 인적자원 교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인도는 제도적인 안정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서 선진국과 직간접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있어 전라북도 차원의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의 다양한 부문에 있어 단기적인 관계설정 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요구됨. 인도의 경우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설정되어 있고 전라북도와의 추진할 수 있는 분야 등에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라북도 국제화의 교두보를 확대
- 미얀마는 아세안의 미개척 지역으로 전라북도 입장에서 다양한 사업기회가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진입 가능성이 높음. 미얀마는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조대현, 2016: 10), 농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입장에서 전라북도의 선진화된 농업기술 및 농업기계, 비료, 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는 '농업전용 SEZ'(Special Agricultural Industrial Zones : SAIZ)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얀마의 사가잉, 바고, 마그웨, 아예아와디, 타닌타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조대현, 2016: 5)
 - 미얀마는 농업개발전략(ADS 218-2022)를 통해 농업생산성, 경쟁력 제고,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농촌개발 및 농림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김태운 외, 2018: 198), 농업협력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농업정책등과 연계성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해 보임. 이를 통해 민관협력 가능성 및 국제교류를 통한 관계 설정의 지속성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그림 3-2〉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향

〈그림 3-3〉 미얀마 농림업분야 중장기 개발협력 추진전략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서 중앙 및 동남아시아, 중동을 지나 유럽을 연결하는 6개 회랑(Economic Corridor)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전 세계 GDP의 30%, 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국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육성과 해상을 철도, 도로, 항만으로 연결하고 인프라 투자 및 에너지 투자를 병행하는 경제개발 구상임(이해정, 이용화, 2017: 5)
-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 8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100여개의 협력프로젝트가 합의 및 진행하고 있음(이현주 외, 2018: 13).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한국, 북한, 러시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1,900달러가 투자됨



자료: 이해정·이용화(2017).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요인. 현대경제연구원. p.5 재인용
 <그림 3-4> 중국 일대일로 6대 회랑 플랜

- 몽골은 지정학적 잇점을 활용하여 중국, 러시아와 철도, 도로, 전력망, 송유, 가스관 등을 연결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제안(이해정, 이용화, 2017: 6)하여 유라시아 지역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몽골의 프로젝트는 중·몽·러의 경제회랑 공동건설이라는 아젠다를 실현하고 교통, 산업, 에너지, 무역, 환경, 과학기술, 농업, 의료보건 분야 등 32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기 위해 추진
- 몽골은 많은 부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제3 이웃 정책’을 통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인도 등과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있음. 몽골은 광업, 서비스업, 농목축업 등에 산업구조가 집중되고 있고,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 철도 및 도로 등 인프라 건설, 광산개발 등을 목표를 두고 경제개발 협력 및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음(북방경제위원회, 2018: 172-175)
- 몽골과의 국제교류를 위해 농·목축업, 식품·경공업 부문에서 육류가공, 가축전염병 대응, 온실 및 저장고 설비, 농기계, 비료 등과 관련 부문에서 인적 및 물적 협력을 추진하여(정동연, 2019: 19), 전라북도와 몽골과의 경제동반자 협력을 추진

〈표 3-4〉 아시아 지역 국가 국제교류 필요성 및 단계별 추진방안

대륙별	국가(지역)	여건 검토	교류 필요성	추진방안			비고
				1 단계	2 단계	3 단계	
아시아 (8)	①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	· 세계 제4위 인구 · 5~6% 경제성장을 · 신남방정책 거점지역	· 독특한 문화, 음식, 관광자원 보유 · 인천↔빠당 직항 개설 추진중 · 2회 상호방문, 해당국 교류 적극 의사 표명, 교류협약 필요	협약 체결	상호 방문 교류	교류 확대	기 계획
	②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 라오스 제1의 관광지 · 라오스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 · 수상, 육로교통 요충지 · 닥나무 주요생산지	· 도내민간단체 교류 추진중 · (분야) 전통문화, 관광, 농업, 산업기술, 외국인노동 등 교류협약 가능 ※한국걸연지역 : 대전	현지 방문 협약 체결	시범 교류	실질 교류	신 규
	③ 베트남 (호치민시)	· 현재 한국의 해외투자 1위 국가(6천개기업) · 인적교류 활발 · 높은 경제성장률, · 젊은 인구연령	· 베트남경제중심지 · 대베트남 교류, 통상업무 등의 거점지역으로 활용도록 교류 필요 ※ 한국걸연도시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경북, 경기)	협약 체결	시범 교류	실질 교류	신 규
	④ 베트남 (까마우성)		· 베트남 내 주요 해산물 생산지역으로 도내 수산업 등의 경제교류 지원기반 필요 · 전복 방문 후 교류협약 적극적 의사 및 검토 요청	현지 답사 및 현지 방문	협약 체결	시범 교류	신 규
	⑤ 몽골 (셀렝게 아이막)	· 수도 울란바타르와 인접해 있으며 대사관 적극협조중 현지네트워크 활용	·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장기적 관점 접근필요 · 농업, 의료, 유학생 등 교류 우선 추진	중점 교류 분야 선정	대표 단 방문	교류 추진	기 계획
	⑥ 중국 (스촨성)	· 중국내 대표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임 · 한국걸연도시 (강원, 충남, 전남)	· 중국교류가 동부쪽에 집중되 서부권 확대 필요 · 의회간 우호교류 비망록 체결	타당 성 검토 및 시범 교류	협약 체결	상호 교류	신 규
	⑦ 미얀마 (네피도)	· 풍부한 노동력, 저임금 · 높은 경제성장률, ·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 ※ '16년 100억불 · 농업중심 경제구조	· 도내 농기계분야 기관 ODA사업 추진 · 교류분야 : 농업인력양성, 농기계수출, 인프라 건설 · 교류대상 포함 필요	현지 방문 및 타당 성 검토	시범 교류	협약 체결	신 규
	⑧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 세계 제2의 인구 · 높은 성장잠재력 · 차기 세계공장 역할	· (2024년)세계1위 인구예상 (2030년)제2경제대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 선정 필요	교류 지역 검토	시범 교류	협약 체결	신 규

■ 러시아·CIS·중앙아시아 교류 대상 국가의 특성 및 교류 필요성

- 러시아는 동아시아 시장 참여 및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동방정책(New East Asia Policy)을 추진. 신동방정책은 중국, 한국, 일본 등과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와의 경제 및 외교 협력을 추진한다는 정책(이해정, 이용화, 2017: 4)
- 러시아 지역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개발을 통해 러시아 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동북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결성하여 극동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총인구는 약 1억 8,270만명(전세계 인구의 2.5%, '16년 1월기준)이며 GDP 규모는 약 2조 2,000억달러(전 세계 GDP의 3.2%, 2014년기준)임. 러시아는 유럽연합(EU)에 대응하기 위해 유라시아 연합(Eurasia Union)의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이현주 외, 2018: 15)
 - 유라시아는 세계인구의 70%, 에너지 자원의 75% GDP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교통, 물류의 성장으로 세계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부상 가능성 높음(이해정, 이용화, 2017: 6)
 - 러시아 극동지역은 광물자원, 원유 및 천연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자원 수출에 특화된 경제구조로 제조업 및 인프라 등이 취약한 구조로(이현주 외, 2016: 23),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TOR)을 통해 다양한 산업정책 및 기반 등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선도개발구역(TOR)은 관세 면제와 더불어 투자기업의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사회보장세의 감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예산으로 인프라 건설 및 노동자 쿼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함(이현주 외, 2016: 40)

〈표 3-5〉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TOR) 현황

행정구역(연방관구)	지역(TOR명칭)	육성분야
연해주	나제진스키	운송, 물류, 경공업, 식품
	미하일로프스키	농축산(돼지사육, 육가공, 사료)
하바롭스크주	볼쇼이 카멘	조선, 선박수리
	하바롭스크	운송, 물류, 철강
아무르주	콤소몰스크	항공기 및 부품, 목재가공
	프리아무르스카야	시멘트, 석유정제, 운송, 물류
추코트카주	벨로그르스크	공가공, 사료, 제빵
사하공화국	베링고프스키	석탄, 천연가스 채굴 및 가공
캄차트카주	칸갈라시	건축자재, 페인트
사할린주	캄차트카	관광레저, 북극항만개발
	유주나야	농축산
유태인자치주	고르니 보즈두흐	관광
	아무로-힌긴스카야	-

자료: 이현주 외(2016).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상연구. p.39 재인용

- 특히, 러시아 연해주는 에너지 및 자원 수출기지이면서 한반도 및 아태지역의 연결지 역으로 핵심거점 지역으로 전라북도가 전략적인 국제교류 관계를 설정하여 추진 필요 가 있음
- 러시아와 국제교류 확대는 전북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국제교류 관계 설 정에 있어 전략적인 교류 부문 설정이 요구되는데 전라북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동반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분야 선정이 중요
- 예컨대, 연해주에서 선호하는 농업개발, 산림자원 가공 등을 검토하여 국제교류를 추 진하는 등 러시아와 교류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표 3-6〉 연해주 주요 사업분야와 전략적 이해관계

구분	한·러간 전략적 이해관계	남북 및 동북아협력에 의 의의	지역의 수용태도	타국과 경합관계	비고
에너지 개발 및 수송	일치	중요	선호하나 효과에 대해서는 미온적	중·일과 경합관계, 한·러 협력 강화 필요	대규모 투자 소요, 이해관계 조정 난관
교통, 통신	일치	중요	선호	중국은 자국의 수출회랑 구축에 관심	중규모 투자 소요, 북한의 참여의지
광물자원개발	부분적 일치	제한적	제한적 선호	수입국과의 상충관계	개발의 효과성 문제
농업개발	부분적 일치	북한노동력 활용시 유리	선호	중국과의 경합	가격경쟁력의 문제
산림, 수산 자원가공	일치	상충가능성	매우선호	중·일 모두 관심, 경쟁관계 심화가능	수익성의 문제
산업단지	일치	상충가능성	선호	중·일 모두 나호트카 공단 성사여부에 관심	연방정부의 태도가 관건
주택 등 사회인프라개발	부분적 일치	북한노동력 활용시 유리	선호	일본의 진출 여부 유념	시장진입여부 관건
과학기술자원	일치	중립적	매우 선호	중·일과 경쟁관계, 미국과의 마찰소지	러시아의 협력정도가 문제

자료: 김원배(2004). 러시아 연해주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자. 국토정책브리프 p.5 재인용

○ 카자흐스탄은 1인당 GNI 8,710달러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경제적으로 성 장한 국가로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고, “Nurly Zhol(bright path)” 프로젝트

트를 통해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육성, 주택건설 등을 통해 2050년까지 3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북방경제위원회, 2018: 179). 카자흐스탄은 성장잠재력에 높아 전라북도 차원의 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적인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8년에는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발전을 위해 4차산업혁명 대응을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자 10대 목표를 제시(정민현·김초롱, 2019: 12)
- 10대 목표는 산업화를 통한 신기술 도입, 스마트기술을 통한 농업발전, 스마트 국민을 위한 스마트 시티 조성,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개발, 현대화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부정부패척결 및 법치주의, 교통물류시스템 효율성 증대, 전설주택관리분야 신기술 도입, 금융분야 재정비, 효율적인 국가 운영 등임(정민현·김초롱, 2019: 12)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과 광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금의 경우 매장량이 세계 4위, 구리의 경우 매장량이 세계 10위, 우라늄이 세계 12위임.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는 품목은 주로 자동차 부품, 자동차, 합성수지, 농기계 등이고(북방경제위원회, 2018: 182),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2016년~2020년까지 개발협력을 지원하고 있음(김세원 외, 2017: 14).
-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에 자유경쟁시장 조성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 민간 참여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의 다각화 및 외환시장의 자유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하였음(정민현·김초롱, 2019: 14).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의 선결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라북도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추진 필요
-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 3국 중에 하나이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으로 지정학적 잠재력이나 미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체계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국제교류 협력 방안이 필요한 국가임. 아르메니아는 산업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교류 및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전라북도와 협력관계를 유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르메니아는 성장기반이 취약하여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가 60%에 이르는 경공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농업의 경우 소규모 가족농장이 전체 농업생산의 97%를 담당하고 있는 영세한 구조임. 반면에 광물자원이 풍부

하여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아르메니아는 빈곤율 및 실업률이 높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정동연·강부균, 2018: 6~9)

- 한국이 아르메니아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의료용품, 광학·의료측정, 검사정밀 기기, 일반차량, 보일러 기계류, 담배 등임(정동연·강부균, 2018: 27). 한국 정부는 아르메니아와 3차례(2005년, 2011년, 2014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가, 최근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2018.10.19.)하여 투자기반을 마련하였음

〈표 3-7〉 아르메니아 현안과제 및 경제발전전략의 기본방향

현안과제	경제발전전략의 기본방향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	·(목표) 수출지향적 산업화 추구: 수출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시장 확대
·원자재(광물) 의존 수출구조 다각화	·(중점육성분야) 전통수출산업(광업, 금속가공, 농식품제조업 등), 신성장동력 및 연계발전산업(농업, 기계), 재생에너지, 운송물류인프라, 관광, ICT, 도시환경건축 등)
·경공업(조제, 식료품) 위주의 제조업 다각화 및 고도화	·(지원방안)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투자환경개선, 전자플랫폼 구축, 통관절차 간소화, R&D촉진, 전문인력양성 등

자료: 정동연·강부균. (2018). 코카서스 3국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30 재인용

〈표 3-8〉 러시아·CIS·중앙아시아 국가 국제교류 필요성 및 단계별 추진방안

대륙별	국가(지역)	여건 검토	교류 필요성	추진방안			비고
				1 단계	2 단계	3 단계	
C I S 독일국가 연 합 / 중 앙 아시아 (4)	① 러시아 (연해주)	·최근 러시아 지방정부들은 한국 등 아시아지역 적극적 교류 의사 타진 ·한-러 지방포럼 확대 참가신청 등 관심 많음	·농업·에너지·교육 분야 등 미래투자가치 보유, 교류적극 추진 필요 ·민간교류 추진중 (' 18년도)	교류 분야 협의 협약 체결	시범 사업	교류 추진	기 계획
	② 아르메니아 (예레반특별시)	·아르메니아 정부의 적극적·지속적인 교류 추진 의사를 바탕으로 상호교류가능	·농업·교육·의료·보건 분야 높은 발전 잠재력 보유, 농업기술개발, 농기계제작 등 산업 협력 가능 ·상호방문2회(' 17 ~ ' 18)	교류 분야 검토 협약 체결	시범 사업	교류 추진	기 계획
	③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	·CIS(구 소련 지역)내 고려인동포 최다거주, 문화·역사적 친밀감 바탕, 유학생유치 ·문화교류 추진 가능	·인구 증가와 더불어 시장발전 가능성이 높고, 상이한 경제 구조로 상호 산업 교류 추진 가능	교류 분야 검토 시범 사업 선정	현지 방문	사업 추진	신 규
	④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다수의 한국기업 진출, 한국에 대한 높은 선호도 보유, 태권도·교육·문화관광 교류 가능	·중앙아시아 지역 내 경제 신흥국으로 경제·문화 분야 등 포괄적 교류 추진 가능	교류 분야 검토 전북 초청 사업	현지 방문	사업 추진	신 규

■ 유럽 교류 대상 국가의 특성 및 교류 필요성

○ 독일 바이에른 주는 면적이 70,550㎢(1위), 인구 13,067,186명(2위)으로 1인당 GDP의 경우 독일 내 도시자체가 주로 편성된 함부르크, 브레멘을 제외하고 1위 지역임. 바이에른 GDP는 약 6,250억 유로로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 등의 국가보다 경제규모가 높은 지역임. 또한 바이에른 주는 독일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상회하고 있어('17년 바이에른 경제성장률 3.2%, 독일 경제성장률 2.2%) 독일 전체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음(김홍재, 2019)³⁾

3) 김홍재. (2019.6.10.) 바이에른 주의 2019년 경제현황.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참고하여 재작성함

- 2017년도 기준 바이에른 수출규모는 독일 전체 수출의 14.5%, 수입의 17.1%를 차지하고 있음. 바이에른 지역의 주요 수입 품목은 전자전기(24%), 자동차(16%), 화장품 및 신발 등 기타(15%), 기계(12%), 화학제품(9%), 천연자원(8%) 등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기업의 진출 수준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아 지속적인 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바이에른 주는 35개 클러스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독일 전체에서 4위에 차지하며 산학연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김홍재, 2019)
- 전라북도가 직접적인 국제교류 협약을 통해 협약 분야 선정 등을 통해 국제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류가 바이에른 주가 확산되지 않고 있어 문화교류 등을 통해 점진적인 교류를 추진
- 프랑스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농업, 항공우주, 자동차 등 제조업과 더불어 금융 및 문화관광이 발달된 지역임. 한국과는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프리미엄 소비재인 헬스케어, 스타트업, ICT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김현수, 2018: 23)
- 특히 오토노르망디 주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세계 최초로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태양광도로 와트웨이(Wattway)를 개통함. 오토노르망디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로 가장 높은 고용률('16년 20.6%)을 기록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산업, 농업식품산업, 유리산업 등과 더불어 해운물류서비스 산업이 발달되어 있음⁴⁾
- 네덜란드는 지속적인 경제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8년 2.9%, '19년 2.7% 전망),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세계 2위, 수출액 세계 6위이며(Kotra, 2019a: 11~12), 미래먹거리 9대 선도산업(Top sectoren)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예정. 선도산업은 농식품, 원예, 첨단 기술, 에너지, 창의산업, 생명과학, 화학, 물 산업 등임(Kotra, 2019: 9). 특히 네덜란드는 한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한식 관련 자원 등을 활용하여 국제교류 기반을 추진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5436&searchNationCd=101013>, 검색일 : 2019년 7월23일)

4)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regional-innovation-monitor/base-profile/haute-normandie>(검색일, 2019.7.23.)

〈표 3-9〉 네덜란드 9대 선도산업

(단위: 백만유로, 1,000F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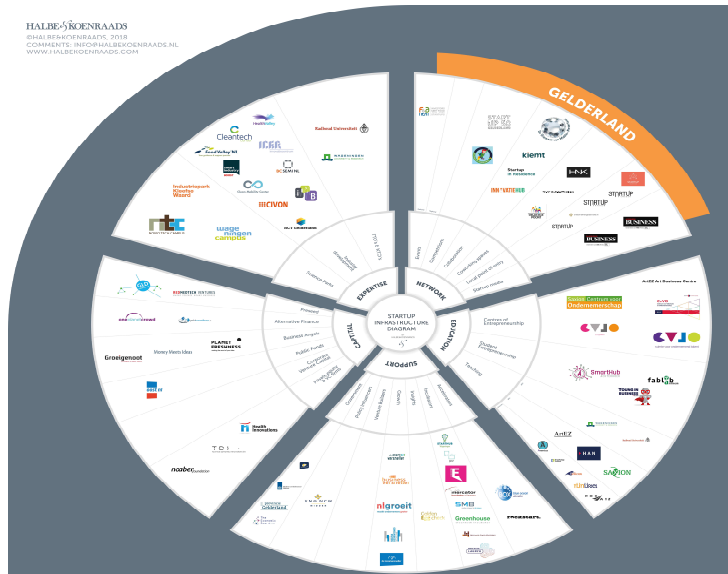
선도산업	주요 활동	부가가치	고용
농식품	농식물 Food Chain, Food Valley	19,310	208
원예	시설원예, 화훼, 과수, Greenports	10,675	105
첨단기술	Hightech 소재 및 장비, 항공	50,637	480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Energy Valley	16,108	78
물류	여객, 화물, 운하 등 유통시장, 스키폴 공항, 로테르담항	28,533	286
창의산업	건축, 패션, 게임, 산업디자인, 미디어	11,163	173
생명과학	백신, 진단,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예방기술	4,487	37
화학	석유화학, 기초원료 및 정밀화학	15,696	77
물	수자원 개발 이용, 간척기술, 해양건설	4,548	52

자료: Kotra. (2019). 2019 국별 진출전략 네덜란드. p.10

-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세계 최초 해양 태양광 발전소를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임. 네덜란드 도시 트웬테(Twente)에 기술개발단지“Technology Base”를 조성하고, 리툼베르크스 기업은 이곳에 대규모 캠퍼스를 조성하여 전기차 전지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300개 일자리 및 2,000명 고용이 예측(Kotra, 2019a: 4-5)
- 네덜란드 헬데를란트 주(Gelderland)는 기업 및 지역주민이 살고 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속 가능한 환경 여부를 판단하는 EU 지역 경쟁력지수에서 250개에서 21위를 선정. 또한 EU에서 유럽 혁신기업상을 수상할 정도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⁵⁾. 헬레들란트 주에는 최초의 농업대학(1918년)인 와게닝겐 캠퍼스(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Radboud University 등이 있으며, 100여개의 연구개발 회사가 입지해 있음. 2020년에 세계식량센터(World Food Centre)의 연구시설이 문을 열 예정임⁶⁾

5) <https://getinthering.co/country/gelderland/>(검색일, 2019.7.23.)

6) <https://www.worldfoodinnovations.com/partners/province-of-gelderland/about>(검색일, 2019.7.23.)



자료: <https://getinthering.co/country/gelderland/>

〈그림 3-5〉 헬데를란트의 혁신네트워크

- 영국은 2017년 글로벌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에서 실리콘밸리, 뉴욕에 이어 런던이 3위를 기록하였고 유럽내에서 1위로 선정되어 창업자와 기술인력이 모여들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 반면에 무상의료 실시로 인한 의료예산 적자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부상하고 있고 K-뷰티와 K-패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Kotra, 2019b: 7). 영국은 세계 금융 중심지로 GDP의 약 79%를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고 있음(Kotra, 2019b: 12)
- 노스웨스트 잉글랜드 주는 영국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2017년 고용률이 73%(영국 평균 74%)로 영국에서 세 번째의 경제규모 성장률을 가지고 있음. 노스웨스트는 화학, 섬유, 선박 및 엔지니어링 등의 전통적 강점을 갖고 ICT, 생명공학, 의약, 우주항공 및 통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또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맨체스터 대학교, 리버풀 및 랭커스터 대학 등 12개 대학이 입지하여 있음⁷⁾

7)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regional-innovation-monitor/base-profile/north-west>(검색일, 2019.7.22.)

〈표 3-10〉 유럽 국가 국제교류 필요성 및 단계별 추진방안

대륙별	국가(지역)	여건 검토	교류 필요성	추진방안			비고
				1 단계	2 단계	3 단계	
유럽 (4)	① 독일 (바이에른 주)	·기 교류 진행중인 도내 기관과 협업하여 교류사업 확대 가능	·도 핵심프로젝트* 및 복지선진국, 행정연수 및 교류 정례화 필요 ·청원 벤치마킹 선호국가 *(신재생 에너지·친환경기술 ·탄소 등)	교류 방안 협의 및 시범 교류	상호 방문 및 협약 체결	시범 교류	신 규
	② 프랑스 (오토노르망디 주)	·K-pop, 한식 등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관심, 전통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 가능	·도 핵심프로젝트* 및 선진국으로 우수 지방행정 벤치마킹 필요 ·(스마트 팜 신재생 에너지 탄소 등)	교류 방안 협의	시범 교류	사업 추진	신 규
	③ 네덜란드 (헬데를란트주)	·식품 클러스터, 푸드 밸리 조성 관련 지자체 단위의 실질 교류추진 용이	·농업·원예·화학·식품 가공업 분야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자체 교류 필요	교류 방안 협의	시범 교류	협약 체결	신 규
	④ 영국 (노스웨스트 잉글랜드주)	·국제 금융도시 조성 등 도정현안 관련 지자체 교류	·유럽 내 국제교류 선진국, 지자체 국제교류 성공사례 및 우수정책 연찬 필요	교류 방안 협의	시범 교류	협약 체결	신 규

■ 아메리카·오세아니아·아프리카 교류 대상 국가의 특성 및 교류 필요성

○ 브라질과의 국제교류는 지리적 접근성 및 브라질의 정치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당장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 소비재 및 화장품 선호도 증가, 그리고 한류 문화 확산 등을 고려할 경우 브라질의 상파울루주를 대상으로 남미 지역의 교류 거점 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브라질은 신정부 출범으로 침체된 경제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 동력 등을 마련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2017년 브라질 GDP는 약 2조 552억달러로 남미 전체 GDP의 약 38.1%를 차지(Kotra, 2019c: 18)하고 있고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음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화장품 및 개인위생품 시장 규모가 세계 4위로 2017년 기준 전년대비 3.2% 증가한 321억 달러로 나타남. 이러한 영향으로 K-Beauty가 형성되어 한국 화장품이 2017년 기준 전년대비 28.7%가 증가(1억 1,020만달러)하였

고(Kotra, 2019c: 34), 한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캐나다는 한국과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 (2014.9)한 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생명과학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 등이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진출하고 있음. 특히 전라북도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할 지역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 지역은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자 하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기술, 에너지 효율성 및 폐자원 관리분야 등에 있어 최첨단 과학기술을 보유⁸⁾하고 있어 전략적인 협력관계 설정이 필요함
- 캐나다는 현재 재정적자 누적으로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대도시 인구유입 급증으로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등의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앨버타 주의 인구성장률이 캐나다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고 해외 이민자 증가하고 있어(2020년까지 약100만명의 신규이민자 수용) 과밀 현상이 지속화될 전망(Kotra, 2019d: 8~11)이고 동시에 1인가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Kotra, 2019d: 25)
- 캐나다는 인프라 개선을 위해 스마트시티도시 건설 및 교통인프라 10개년 발전계획 사업 착수하고 있음. 캐나다의 주력 산업은 항공우주산업, 생명과학산업,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임
-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세계5위이며 상용기 부문의 경우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음. 생명과학산업은 세계적 제약회사, 의과대학, 임상병원, 연구소 등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집적 효과를 발휘되고 있음('16년 의약품 판매액, 약21조 8,157억원) 또한 딥러닝(Deep Learning)분야에서 인공지능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인공지능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Kotra, 2019d: 18~20)
- 호주는 세계 최장기 3%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 전라북도가 호주와 국제교류를 위해 전략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함. 호주와 전라북도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 및 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 식음료 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통해 국제교류 협약 및 관련 부문 연계전략 마련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호주는 식음료 부문에 관심이 높아 전라북도의 청정한 이미지 마케팅과 유기농 인증 등을 통해 채소, 곡류 등 전라북도의 청청 농산물을 아시

8) <https://www.britishcolumbia.ca/TradeBCPortal/media/Marketing/bc-cleantechnology-kor-mit.pdf>(검색일 2019.7.23.)

안 식품 체인점이나 벤더, 수입업체 등과 연계하여 국제화 기반을 추진

- 호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에너지 저장능력 증대를 위해 태양광 저장용 배터리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Kotra, 2019e: 7). 세계 최대 소고기 생산국으로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수요 증가로 생산량 증가. 세계 최대 석탄 및 철광석 수출국으로 2012년까지 광산업 비중이 GDP의 16.5%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Kotra, 2019e: 11~12)
 - 호주는 제조업에서 교육, 관광, 금융, 의료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6.5%를 차지(Kotra, 2019e: 14)
 - 호주 식음료 서비스 산업규모는 2017년 기준 190달러로 성장이 지속화되고 있고, 호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 산업으로 건강식, 프리미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유기농, 할라 등 관련 인증 식품을 선호하고 있고 식문화와 편리함이 결합된 Meal Kits 배달 서비스 인기(Kotra, 2019e: 30)
 - 전라북도가 호주와 국제교류 확대하기 위한 검토 지역으로 빅토리아주와 시드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빅토리아주(Victoria)는 인구가 635만 명으로 호주 내 두 번째로 많으며, 세계 탑 10 의과대학 중 2개 대학이 위치하고 관련 기업이 집적화되어 있어 바이오, 정보통신산업,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음(Kotra, 2018). 시드니(Sydney)은 문화관광,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교류관계를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 등에서 교류 범위를 확대 추진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불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국가의 투자 지역으로 관심이 확대되는 등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부상. 자원수출에 의존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생산 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도 교량, 자원개발, 인프라 등에 진출하면서 국제기반을 구축(Kotra, 2019f: 29)하고 있고, K-pop, K-beauty 등의 영향으로 한국문화 이해 및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에서도 남아공과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 및 전략기지로 활용
- 남아공은 소득수준이 상승된 신흥중산층과 밀레니엄 세대가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가계소비가 2019년 기준 전년대비 20.9%가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층인 BOP(Bottom of Pyramid)의 소비도 점차로 증가(Kotra, 2019f: 8)
 - 남아공은 빠른 도시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평균수명 상승으로 의료시장 확대가 되고 있으며, 물 부족 사태(18년)로 수자원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대한 투자

- 남아공의 산업별 비중은 2017년 기준 3차산업(69.5%), 2차산업(19.6%), 1차산업(10.9%) 등의 순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농업과 광업은 근간산업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음. 남아공 전체 노동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옥수수 밀 재배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함(Kotra, 2019f: 12~13)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연간 60만대 자동차생산), 선진국 수준의 금융인프라 보유, ICT산업도 발달되어 있음(Kotra, 2019f: 14)
- 남아공은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기적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30, NDP)과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정책행동계획(Industrial Policy Plan, IPAP)를 추진
- 마다가스카르(Madagascar)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하여 있고, 우리나라 면적의 2.7배 정도이며, 옥수수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나 옥수수 재배기술이 낮아 생산량이 적음(대우로지스틱스, 2013: 13).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빈국이나 광물자원(석유, 니켈, 크롬, 석탄 및 보석류 등)등 풍부하여 자원부국으로 성장가능성이 있으며(대우로지스틱스, 2013: 25), 비즈니스 환경은 2012년 기준 Doing Business 전 세계 183개국 평가에서 20위로 비교적 사업 추진이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대우로지스틱스, 2013: 30)

〈표 3-11〉 아메리카·오세아니아·아프리카 국가 국제교류 필요성 및 단계별 추진방안

대륙별	국가(지역)	여건 검토	교류 필요성	추진방안			비고
				1 단계	2 단계	3 단계	
아 메 리 카 (2)	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 북지 선진국으로 적극적인 국제교류 추진의지 보유	· 캐나다 지자체 국제교류 선진지역 · 청원 벤치마킹 선호국가 · 북미지역 교류검토 필요	교류 방안 협의 및 시범 교류	상호 방문 및 협약체결	시범교류	신 규
	② 브라질 (상파울루주)	· 남아메리카가 원거리여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이긴 하나 장기적으로 남미지역 교류확보 필요	· 중남미지역 선도국, 지역내 국제교류 거점지 역할 수행 가능 · 남미지역 교류검토 필요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수렴	교류 방안 검토	시범 교류	신 규
오 세 아 니 아 (2)	① 호주 (빅토리아주)	· 선진 농업기술 교류가능 · 탄소소재·부품산업	· 호주 최대 낙농지, 공업·상업 중심지로 선진농업 교류 가능 · 청원 벤치마킹 선호국가	교류 방안 협의	시범 교류	협약체결	신 규

대륙별	국가(지역)	여건 검토	교류 필요성	추진방안			비고
				1 단계	2 단계	3 단계	
		연계					
	② 호주 (시드니)	· 기 진행중인 교류사업을 기반으로 문화·교육·청소년 민간 교류 확대 용이,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 오세아니아 지역 국제교류 중심도시로 교류검토	교류 방안 협의	시범교류	협약 체결	신 규
아프 리카 (2)	① 마다카스카르 (안타나나리보)	· 기타 아프리카국과 비교, 경제·정치적으로 안정,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 보유 (아프리카지역이지 만 말레이계 인종 다수) · 한국대사관 적극 협조의사	· 아랍·아프리카·아메리카·유럽·영향로 대표되는 문화·관광 분야 교류가능성 검토 추진 가능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이 많은 지역으로 관련 산업 진출 등 검토 · 후진국이나 순수한 국민성으로 봉사활동 등 자원외교 가능	타당 성 검토 및 의견 수렴	시범교류	사업 추진	신 규
	②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케이프주)	· 장기적 관점의 접근 필요, 실질적 상호 교류추진이 가능한 지자체 선정 중요	· 아프리카내 선진국, 아프리카지역 교류확대시 거점국 역할 수행	타당 성 검토	시범 교류	사업 추진	신 규

② 전북형 우수 정책 해외도시 공유 및 정책 수출 모델 구축

■ 목 적

- 전라북도가 그 동안 추진하였던 다양한 정책 및 사업 중에 우수 정책 및 경험을 모
둘화하여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다양한 해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우
수한 정책을 소개하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컨설팅, 기술이전, 사

업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라북도의 국제적 위상 확립 및 글로벌 상생협력을 추진

- 전북형 우수정책 공유 해외진출사업을 통해 전라북도의 기관 및 기업, 인력 등이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국제교류 모델 구축
- 전라북도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책의 질적 성장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삶의 질 개선 및 정책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왔음. 전북의 기초적인 도시 인프라 및 교통, 상하수도, 문화관광정책, 농업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정책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필요한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를 추진
- 신흥개발도상국의 빠른 도시화로 인해 인프라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신흥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시장 선점을 위해 도시외교 및 국제교류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

■ 국내사례

- 해외도시 대상 정책공유 및 정책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가 대표적임. 서울시는 2012년부터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우수정책 해외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정책 교류를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선도분야 등을 선정하여 추진
- 해외도시 정책공유 8대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8대 분야는 도시계획, 교통시스템, 도시철도, 전자정부,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친환경분야, 주택 등임. 현재 33개국 45개 도시 72개 사업을 추진('19년 1월말 기준)
- 분야별 추진 실적을 보면 교통분야 31개 사업, 도시철도 11개 사업, 상수도 4개사업, 전자정부 13개 사업, 도시계획 3개사업, 환경 3개사업, 소방 3개 사업, 교육 2개사업, 콘텐츠 개발 2개 사업 등이 이루어졌음

〈표 3-12〉 서울시 해외도시 정책공유 세부분야별 실적

분야	세부분야	정책공유사업
교통	교통카드시스템, 교통정보센터, 교통계획, 교통정책, 버스운영	31
도시철도	시설계량, 시설설계, 자원조달, 관리운영	11
상수도	시설개량, 시설조성 및 운영	4
전자정부	전자정부 일반, 시민참여시스템, 방재시스템, 건설행정시스템, 상권분석, 교통정책, 세무시스템	13
도시계획	테크노폴리스, 지역계획, 교육	3
환경	하천복원, LED 가로등, 매립지개선	3
소방	소방방재센터	3
교육	직원역량강화	2
콘텐츠개발	ITS가이드북, 사례집	2

자료: 서울정책아카이브(<https://seoulsolution.kr/ko/bestpolicy-introduction>) 참고하여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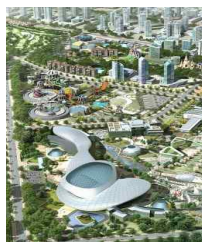
〈표 3-13〉 서울시 해외도시 정책공유 사업 실적(교통분야)

분야	세부분야	국가(도시)	사업명
교통(31)	교통카드시스템(16)	중국(베이징)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
		뉴질랜드(웰링턴)	교통카드버스 도입 및 정산시스템 구축
		뉴질랜드(오클랜드)	교통카드버스 도입 및 정산시스템 구축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버스결제시스템 구축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통합정산시스템
		콜롬비아(보고타)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태국(방콕)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컨설팅
		그리스(아테네)	e-ticketing 시스템 구축
		몽골(울란바토르)	자동안임 및 버스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코트디부아르(아비장)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
		사이디아라비아(메카)	외국 ITS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말레이시아(말라카)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이집트(카이로)	메트로 승차권 자동판매시스템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태국(방콕)	BMTA 산하 공영버스 산하 e-ticket 구축
		필리핀(교통부)	필리핀 교통부 대중교통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
	교통정보센터(3)	몽골(울란바토르)	교통정보센터 등 구축
		아제르바이잔(바쿠)	교통정보센터 등 구축
		필리핀(메트로마닐라)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교통계획(9)	가나(아크라)	도시교통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기술자문
		스리랑카(콜롬보)	도시, 광역 대중교통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 기술자문
		베트남(다낭)	광역교통체계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인도네시아(반둥)	교통인프라 개발지원 정책자문
		콜롬비아(콜롬보 재무부)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수립 컨설팅

분야	세부분야	국가(도시)	사업명
		몽골(울란바토르)	지능형 교통시스템 중장기 계획 수립
		우크라이나(키예프)	스마트시티 도시진단 마스터플랜 수립
		필리핀(세부)	필리핀 세부 대중교통 개선사업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대중교통 발전전략 수립 지원
	교통정책(2)	인도네시아(반둥)	버스시스템 개선정책 수립지원
		케냐(나이로비)	지능형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시스템 정책자문컨설팅
	버스운영(1)	나카라과(마나과)	교통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

자료: 서울정책아카이브(<https://seoulsolution.kr/ko/bestpolicy-introduction>)

- 정부는 도시에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모델인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으로 집중 육성하고(국토교통부, 2019: 1), 국내의 경험과 ICT 인프라 기술 등을 해외도시 및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이를 위해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을 대상으로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체계인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 (K-SCON)'를 구축(국토교통부, 2019: 10) 및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등을 개최 추진

스마트시티정책 해외진출 사례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		■(개요) 쿠웨이트시티 서측 30km 인근에 64.5km² 규모 (2.5~4만호)의 신도시 개발 계획 * 총사업비 약 26조원 추정 ■(현황) LH↔쿠 PAHW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계약(17.4월, 433억원)을 체결하고 수행 중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스마트시티		■(개요) 산타크루즈 북동쪽 15km, 1,748만평 규모 (약 12.4만호, 43만명 규모) * 총사업비 약 3.2조원 추정 ■(현황) 기본구상 및 기반시설 기본계획 완료 (15.4, 인프라계획 : 한국종합기술, 536천불)→ 실시계획 용역 계약 (16.3, 선진-평화Eng 컨소시엄, 960만불)

이라크 비스마야 스마트시티		■ (개요) 바그다드 동남쪽 10km 비스마야 550만평 부지에 주거시설(10만호) 및 인프라 건설 중* 총사업비 10조원 추정 ■ (현황) 주택건설 계약('12.5) 및 건설 계약('15.4) → '19.4월 1.2만 세대 기입주 → '24년 완공 예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 (개요) 코타키나발루 북측 10km 반경, 290만평(변경 가능) 규모의 복합 레저형 스마트시티 개발 * 총사업비 약 2조원 이상 추정 ■ (현황) 정상회담 계기 MOU 체결('19.3), 기본구상 수립 및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중
콜롬비아 그리스 교통카드 시스템		■ (개요) 교통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 무료 환승이 가능한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 수출 ■ (현황) 콜롬비아 보고타 3천억('11~'13년), 그리스 아테네 2천억('15~'17년) 포함 8천억원 이상 해외 수출, 해외 진출시 S/W 개발, 장비제작 관련 중소기업 동반 진출
중국 등 23개국 도시통합 플랫폼		■ (개요) 스마트 통합관제(방범, 교통, 재난, 항공 발전 IoT시설, 스마트 팩토리 등) 플랫폼 수출 ■ (현황) 중국 텐진시 구축계약 체결 등 중동, 아세안, 중국 등 23개 국가 수출 추진 중 * 중국 SI기업인 타이지, 화루그룹, 알리바바 등과 협력 중
미국 등 42개국 스마트 쓰레기통		■ (개요) IoT센서를 활용, 적재량을 실시간 측정하여 자동 압축하고 수거시기, 최적 수거경로 등을 제공하는 쓰레기통 수출 ■ (현황) 전세계 42개 국가, 80여개 도시에 스마트 솔루션 수출, 쓰레기통 범람 절감, 쓰레기 수거 빈도 감소 등 효과 발생 * '19. 1월 미국 볼티모어와 \$1,500만불 계약 체결

자료: 국토교통부. (201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p. 4 재인용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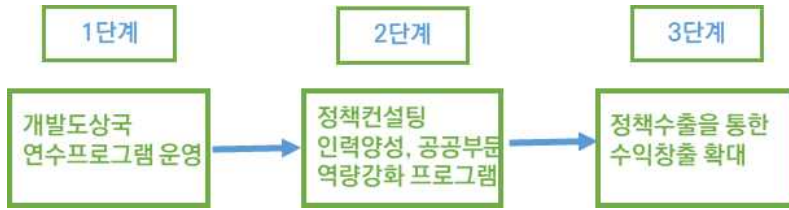
- 우수정책을 수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국제교류 사례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임. 싱가포르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SCE(Singapore Cooperation Enterprise)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우수정책 및 지식, 경험 등을 수출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창출. 개발도상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당 국가 및 도시의 문제, 이슈 등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는 위한 사례 및 방법 등을 컨설팅하여 해당 국가와 협력하여 사업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 규모가 확대될 잠재성이 있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3단계 전략을 추진하였음(이창, 2018: 107~108). 1단계는 개발도상국 대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싱가포르의 거버넌스 체계, 교통, 교육, 의료, 도시계획,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등을 방문단에게 교육

〈표 3-14〉 싱가포르 정책수출 주요내용

국가/도시	사업내용
인도네시아	반다르 람퐁 민관협력, 물 처리 시설 설립 컨설팅
몰디브	관세청에 지적재산권, 식물병, 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베트남, 하노이	하노이 건설부와 호치민 인민위원회에 도시계획 관련 답사 및 연수
중국, 장쑤성	산업단지 관리, 환경보호, 물류관리 답사 및 연수
UAE, 아부다비	공공분야 인사간리와 행정조직 개발 자문, 관광진흥투자부 토지구제, 노동력 역량강화, 범죄자 재활 관련 답사 및 연수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기본계획 수립 자문
오만	CMA(Capital Market Authority of the Sultanate of Oman) 재정전략 자문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아지즈 대학교에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계획 일반투자 업무 컨설팅
나이지리아, 라고스주	환경계획 및 도시개발부 대상 도시계획 및 건축기준 연수 프로그램

자료: 이창 외(2018) 서울시 도시외교 가능성과 과제. p.108 재인용

- 싱가포르는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책수출의 방향을 설정. 2단계는 정책컨설팅을 실시함. 정책컨설팅을 통해 현안문제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정책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인력양성과 공공부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짐. 3단계는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거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일자리 창출 및 수익창출을 가져오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



〈그림 3-6〉 싱가포르 우수정책 수출 단계

■ 추진방안

- 전북형 우수정책 선정 : 전라북도에 우수한 정책분야 및 정책사업 등을 선정하여 추진함. 우수정책은 분야별 및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정책을 디자인하여 선정
 - 분야(안)는 농업, 경제, 문화관광 및 복지, 에너지, 소방, 지역개발 및 교통, 행정
 - 세부 정책사업(안)은 삼락농정, 연구개발특구, 스마트팜혁신밸리, 전북투어패스 등 선정하되, 실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사업 결정

〈표 3-15〉 전북형 해외도시 공유 우수정책 사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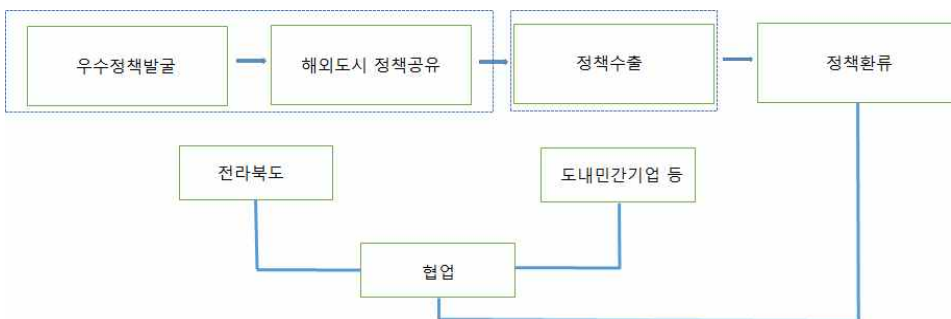
분야	세부분야
농업	삼락농정, 스마트팜혁신밸리, 종자생명산업, 사회적 경제, 농촌융복합, 농업기술
경제	연구개발특구, 안전보육융복합첨유산업, 홀로그램기술개발, 탄소산업, 식품산업
문화관광, 복지	전북투어패스,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태권도, 관광개발, 문화도시 조성,
에너지	재생에너지 산업
소방	소방안전인프라, 안전체험, 소방기술
지역개발 및 교통	매립지 개발, 도로망 확충, 공항건설, 지능형 교통시스템
행정	재정사업관리, 공무원능력개발, 인사관리, 정책SNS홍보, 시민정책소통시스템

- 추진체계 : 전라북도 정책공유 및 정책수출을 위해 국제협력과를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선정된 분야 및 해당 부서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업플랫폼 구축(building a collaborative platform)을 통해 추진
 - 국제협력과는 해외국가, 자매우호 도시, 국제기구, 민간교류 등을 총괄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국가의 수요 진단 및 전북 우수정책의 확산, 이전 등을 추진하고 우수정책의 해외수출 모델을 수립
 - 분야별 세부정책사업의 담당부서는 사업 추진의 경험과 지식, 기술 등을 정책공유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사업 등을 발굴



■ 기대효과

- 전라북도의 우수정책 활용을 통해 전라북도의 경험 및 지식,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실질적 교류 확대
- 전라북도의 정책 경험을 해외도시 국가 및 도시 지역과 공유하고 해결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해당 국가 및 도시와 우호적인 협력 관계 유지 및 지속적인 우호협력 확대
- 전라북도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도시에 확산하고 전파함으로써 전라북도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해외 관련 국가 및 도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그림 3-7〉 전북형 우수정책 흐름도

③ 전북형 국제개발협력(ODA) 모델 구축

■ 목 적

-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과 전 세계적으로 빈곤 및 기아퇴치, 교육 및 보건 등 사회발전, 경제·산업 발전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단계에 따라 개발수요 대응 및 지원에 대한 국내 지자체의 참여 확대
- 국내 지자체는 SDGs의 실현과 개발도상국의 인도적 위기 대응에 참여하는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내 대규모 사업 증가 등 새로운 잠재적 수요 및 개발 잠재력 확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 내의 민간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그림 3-8〉 SDGs

- 국내 국제개발협력 규모('19년)는 약 3조 2,003억원으로 1,40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시아(38.8%), 아프리카(21.6%)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 분야는 교통(15.1%), 보건(13.0%), 환경(10.6%), 교육(10.2%) 순이며, 형태의 경우 프로젝트(68.6%), 봉사단 파견(6.3%), 연수사업(5.0%), 개발권선텩(3.8%), 민관협력(2.9%) 순으로 나타남(2019년 국제 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1~23)

〈표 3-16〉 국내 국제개발협력 현황(2019년도)

현황	주요내용								
총규모 (십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921.4	1,955.2	2,166.9	2,606.9	2,488.9	3,048.2	3,200.3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기타			
	38.8	21.6	8.2	5.2	0.5	25.6			
분야별(%)	교통	보건	환경	교육	농림수 산	공공행 정	인도적 지원	산업 에너지	기타
	15.1	13.0	10.6	10.2	8.9	7.3	5.7	8.1	20.9
형태별(%)	프로젝 트	봉사단 파견	연수사 업	개발 컨설팅	민관협 력	프로그 램	행정비 용	기타 기술협 력	기타
	68.6	6.3	5.0	3.8	2.9	2.3	1.6	1.0	8.5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참고하여 재작성

- 국제개발협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자매, 우호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교통, 보건, 환경, 교육, 농림수산 분야 등에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매우호 및 실리적인 외교라는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고 있음
- 국제개발협력은 2018년 기준 11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 164.8억원 지원이 되고 있음. 경북이 65.8억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37.4억, 인천 26.9억, 서울시 18.9억, 대구 6.8억, 강원 4.1억, 부산 1.7억, 1억미만이 경남과 광주로 나타남(정상훈, 2019). 2018년 지자체의 ODA사업 예산분석 결과 사업유형의 경우 프로젝트(49.1%), 연수(21.2%), 장학지원(4.5%), 봉사단(2.5%), 순수다자(17.7%)로 나타남(정상훈, 2019)
- 국제개발협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혁신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며, 국제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의 상호 간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전라북도에 특화된 정책모델을 이전하고 공유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글로벌 이미지 형성에 기여

■ 추진방안

- 전북형 국제개발협력 모델 구축 : 농업기술 및 축산기술 등
 - 국제개발협력국 검토 및 선정 : 국제개발협력국 선정에 있어 전라북도와 밀접한 국제

-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원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ODA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 협력국 선정에 있어 수원국의 발전수준, 수원국과의 국제교류 협력정도, 전라북도의 지원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현재 정부에서는 24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였고, 지역별로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동·CIS 2개국임

〈표 3-17〉 정부 국제개발협력국 및 중점지원분야-아시아

지역	국가명	중점지원분야									
		물 관리	보건 위생	교육	지역 개발	에너지	재해 예방	교통	환경 보호	통신	공공 행정
아시아 (11개국)	네팔	○	○	○	○	○					
	라오스	○	○	○	○	○					
	몽골	○	○	○				○			○
	미얀마				○	○		○			○
	방글라 데시	○		○				○			○
	베트남	○		○				○			○
	스리랑 카	○	○	○	○			○			
	인도네 시아	○						○	○		○
	캄보 디아	○	○	○	○			○			
	파키 스탄	○	○		○	○		○			
	필리핀	○	○		○		○	○			

자료: 2017 대한민국 ODA백서.

〈표 3-18〉 정부 국제개발협력국 및 중점지원분야-아프리카 및 중남미, 중동·CIS

지역	국가명	중점지원분야											
		물 관리	보건 위생	교육	지역 개발	에너지	재해 예방	교통	환경 보호	통신	산업	공공 행정	평화 구축
아프리카 (7개국)	가나		○	○	○	○							
	르완다			○	○ (농촌 개발)					○			
	모잠비크	○	○	○		○		○					
	세네갈	○	○	○	○ (수 산업)			○					
	에티오피 아	○	○	○	○	○		○					
	우간다		○	○	○								
	탄자니아	○	○	○		○		○					
중남미 (4개국)	볼리비아		○		○	○		○					
	콜롬비아				○			○			○		○
	파라과이	○	○		○			○		○			
	페루		○					○	○			○	
중동· CIS (2개국)	아제르 바이잔	○			○					○		○	
	우즈 베키스탄	○	○	○								○	

자료: 2017 대한민국 ODA백서.

- 국제개발협력 사업분야 검토(안) : 농업기술 및 축산기술 등을 추진.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인 농업기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 전라북도는 농업기술을 근간으로 한 농생명도시 및 식품산업 도시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지원사업 등을 추진. 농업기술의 경우 쌀분야, 농기계, 농업인프라등을 고려할 수 있음.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업분야를 검토하여 추진
- 쌀분야는 다양한 벼 품종으로 인해 자급자족이 달성된 만큼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벼 육종 기술, 재배기술, 수확 후 벼 관리기술, 쌀의 가공기술 등을 이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추진
- 농기계분야는 전라북도의 농기계, 농기계 교육훈련시스템, 농기계 이용 조직 운영사업, 농기계 R&D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보급 및 농기계 이용, 교육훈련 사업 등을 추진
- 농업인프라는 전라북도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농기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관 배수시설 구축, 대단위 및 마을 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농촌지역 정주권개발사업 등 농업 인프라의 구축 경험 및 기술력 등을 교육·이전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성

장 및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전라북도 경제발전에 기여

- 축산기술은 전라북도가 보유한 축산기술을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주로 품종개량 및 축산 관리기술, 가공기술, 축산 활용기술, 가축방역기술 등을 통해 해당 국가와 국제교류 활성화 및 전라북도의 축산기술을 해외도시와 협력함으로써 전라북도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형성

〈표 3-19〉 전북형 국제개발협력사업(안)

사업분야	세부분야	
농업기술	쌀	벼육종기술, 재배기술, 벼 관리기술, 가공기술 등
	농기계	농기계보급, 농기계교육훈련, 농기계이용 및 R&D
	농업 인프라구축	농업용수개발, 농지개발, 경지정리, 대단위 및 마을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
축산기술	품종개량, 축산관리기술, 가공기술, 축산활용기술, 가축방역기술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는 주로 국제화,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요구됨
-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공적개발원조는 프로젝트 원조,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기술원조, 그밖에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표 3-20〉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서울시 조례내용

구분	서울시 조례내용
제18조 8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 원조 사업
제20조 (공적개발원조의 활용)	① 시장은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을 위해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적개발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원조 2.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3. 기술원조 4. 그 밖에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되는 사업

-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 상황에 적합하고 전라북도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해외도시 국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 전라북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은 국제개발협력의 비전 및 전략, 사례분석, 세부추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

〈표 3-2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현황

지자체	사업계획명	연도
서울	서울형 ODA 사업 추진 기본계획	2011
경기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선진화 및 기본계획 수립	2015
부산	POST-BUSAN 이행체제와 우리나라 ODA의 전략 및 방향연구	2012
강원도	강원도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2017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6
대구	대구시 ODA추진방안과 전략	2015
충남	충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방향	2016
충북	충북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16

○ 농촌진흥청과 ODA 협력체계 구축

-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특화된 해외농업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7년 기준 총 188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21개국가의 현지 농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109억원), 대륙별 공통농업기술 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72억원)을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7.5.1.)

-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의체는 47개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국은 공통발생 병해충관리, 유전자원 관리시스템, 수확 후 관리기술 등을 중점지원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시스템 구축, 농작업 기계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중남미 국가는 농작물 물관리시스템, 토양정보 공유시스템,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3-22〉 농촌진흥청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의체 사업내용

대륙	협약체명	회원국	주요 사업 내용	중점지원분야
아시아 (14국)	AFACI	한국,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태국, 키르기스공화국, 부탄, 미얀마	지속적 농업성장을 위한 과학영농 기술보급	공통발생 병해충 관리 유전자원 관리시스템 수확후 관리기술 영농기술서 보급
아프리카 (20국)	KAFACI	한국, 앙골라,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코모로, 르완다, 잠비아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증산 지원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시스템 구축 원예작물 수확후 관리 농작업 기계화
중남미 (13국)	KoLFACI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이티	소농의 역량강화 및 소득향상 지원	농작물 물관리시스템 토양정보 공유시스템 소농의 경영역량 강화 원예작물 수확후 관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5.1)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손잡는다. 재편집

-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으로 필리핀을 지원하여 벼생산성을 18% 향상시키는 등 국내 농업기술 전문가 566명을 파견, 개도국 농업 관련자 727명을 초청 훈련

등 농업기술 역량 강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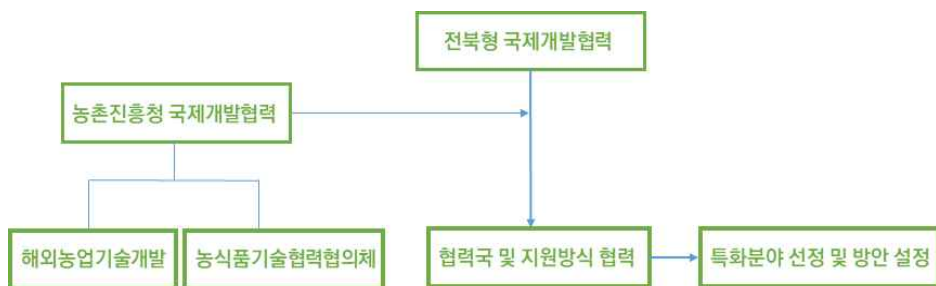
- 해외농업기술개발은 아시아·CIS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중남미 5개국 등을 중심으로 채소, 벼, 양잠, 축산, 농기계, 과수 등의 기술을 이전하고 있음

〈표 3-23〉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2017년)

설치 년도	아시아·CIS(9개국)	아프리카(6개국)	중남미(5개국)
'09	베트남(채소, 미안마(벼), 우즈베키스탄(채소, 유전자원)	케냐(서류, 축산)	파라과이(채소, 감자)
'10	필리핀(벼), 캄보디아(옥수수, 양계)	알제리(채소, 맥류, 버섯)	
'11	태국(옥수수, 조식배양) 스리랑카(두류, 채소)	에티오피아(채소)	볼리비아(감자, 끼누아) 에콰도르(시설채소)
'13	몽골(밀, 사료작물)	우간다(옥수수, 서류) 세네갈(벼, 채소)	도미니카(과수, 채소)
'16	라오스(채소, 양잠)	짐바브웨(채소, 농기계)	니카라과(17 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5.1)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손잡는다.

-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 및 해외농업기술 관련 이전 사업 경험 등을 공유하고 전라북도에 적합한 농업기술 및 축산기술 등을 해외도시에 공유하고 실질적 전라북도 농업기술 등을 이전·확산·협력 확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



〈그림 3-9〉 전북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농촌진흥청 협력체계 구축

○ 전북형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전북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실익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

- 국제개발협력국 및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요조사, 국제개발협력국 선정 및 사업선정, 평가 및 피드백 등의 일련 과정을 정립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전략적인 전북형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협력 및 국제화 기반 마련

〈표 3-24〉 전북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구분	주요내용
기본계획수립	·전북형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	
수요조사	·전북 특성에 적합한 사업선정 및 연계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
↓	
개발협력국 및 사업선정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해당국의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협력국 선정 및 전북형 사업 선정
↓	
평가 및 피드백	·수혜도시 만족도 및 사후관리, 평가회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내실화 방안 마련

④ 해외도시의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전북 교육훈련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목 적

- 전라북도과 자매·우호 신뢰 관계를 확대하고 전라북도와 해외도시간의 인적교류, 정책공유, 정책수출 등을 형성하기 위해 전북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운영
-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해외도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전문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우수한 정책 및 사례를 교육, 연수시킴으로써 미래의 전북 가치 증대 및 실익 국제교류를 확대
- 초청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은 잠재력이 풍부한 해외도시 국가들과 자매, 우호 관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당 해외 도시 지역의 공무원 등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과 더불어 연수성과에 따라 해당 도시 지역과의 공공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설정되어 전라북도 정책 및 사업을 수출

■ 사례

○ 서울시 사례

-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도시 공무원, 전문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총 146회의 교육훈련 연수사업을 실시하였고, 참여인원이 2,097명에 이르고 있음
- 해외도시 국가 공무원 초청 연수는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고 관련 세부프로그램은 해당 운영기관에서 연수 및 교육훈련 시행
- 교육훈련 연수주제는 교통, 전자정부, 상수도, 도시관리, 기후변화 등 우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과정당 연수인원은 15명, 연수기간은 7일~10일이고, 연수방법은 강의, 현장방문, 토론 등을 활용

〈표 3-25〉 서울시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실적 현황

프로그램명	분야	운영기관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	전자정부, 교통, 상수도, 도시계획, 기후변화, 도시정책	서울인재개발원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도시계획, 도시행정	서울시립대
해외철도 관계자 교육	도시철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 종사자 초청연수	상수도	상수도사업본부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관련 연수	소방, 안전	소방재난본부

자료: 서울정책아카이브(<https://seoulsolution.kr/ko/policy-training>)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외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국제교류 협력을 하고 있음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분야별 중점 사업 및 정부혁신,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지역공동체 현장 탐방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토론, 현장학습 등 참여형 교육방식을 통해 해당 도시 지역의 문제해결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주관하면서 농진청의 KOPIA, KDI, 주한 외교단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 등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2019년 외국공무원 교육 계획은 9개 과정 218명을 대상으로 평균 12.89일 교육기간을 통해 역량강화 및 지방행정 등의 과정을 운영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검색일 : 2019년 7월17일)

〈표 3-2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공무원 교육과정(2019년도)

과정명	교육일정	기간	인원(명)	교육대상
몽골군수 역량강화과정	2.17~2.24	8	15	몽골군수 등
몽골 NAOG 교수단	3.10~3.17	8	15	몽골 NAOG교수요원 및 공무원 등
아프리카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	4.15~5.3	21	15	아프리카 지방공무원 등
팔레스타인 기자재요원과정	5.20~6.14	28	15	팔레스타인 공무원교육원 기자재 요원
개도국 지방행정과정	6.23~7.6	14	15	개도국 지방공무원 등
개도국 교육기관장 초청 세미나	6.23~6.26	4	15	개도국 교육훈련기관장 등
탄자니아 지방행정과정	8.26~9.6	14	10	탄자니아 지방공무원 등
키르기스스탄 인적자원관리	9.23~10.5	14	18	키르기스스탄 지방공무원 등
베트남 현지방문교육	11.4~11.8	5	100	베트남 지방공무원 등
9개과정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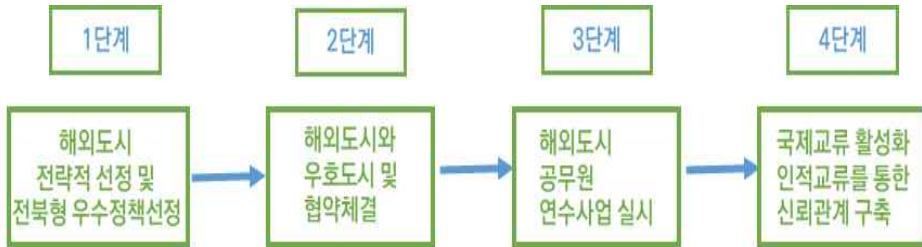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2019)

■ 추진방안

○ 전라북도 자체 해외도시 공무원 교육훈련 연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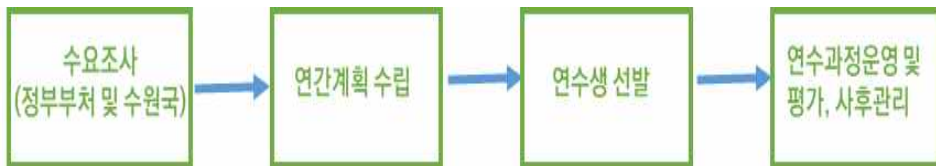
-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 전라북도 우수정책 등을 선정하여 전략적인 우호 및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상국가 및 도시 등의 공무원 및 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연수 사업을 실시
- 전라북도가 발전 및 성장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 행정역량 등을 전략적인 교류협력 국가와 공유하고 인적자원, 제도적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상호 간의 실익 국제교류 추진
- 교육훈련 연수 프로그램 기획은 개발도상국의 성장단계 및 수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

획을 해야 함



〈그림 3-10〉 전라북도 자체 해외도시 공무원 교육훈련 연수사업 추진체계

- 해외도시 공무원 교육훈련 연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수원국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연간계획 및 연수생을 선발 확정하여 연수과정을 운영한 후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함
- 대상국가 선정에 있어 국내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 정보를 교환하고, 현지에서 해당되는 해외도시 지역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면서, 현지 대사관이나 KOICA의 도움 등을 받도록 함
- 해외도시 공무원 교육훈련 연수사업의 추진 시 연수생의 DB의 구축 및 관리를 하고 전라북도와 교류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인적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함



〈그림 3-11〉 전라북도 자체 해외도시 공무원 교육훈련 연수사업 추진절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공동 연수 또는 현지방문 프로그램 공동 개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해외국가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에 3년간(’16~’18년) 총 976명의 외국 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였음
- 2018년도 교육운영 실적을 보면 9개 과정에 217명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음. 2016년 6개 과정에 102명, 2017년에 9개 과정에 657명 등이 교육훈련을 하였음
- 인재개발원에는 2019년도에 218명 정도가 방문하여 교육훈련 연수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인재개발원과 협력하여 공동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공동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방문한 외국 공무원들과 교류 및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고 있어 이들과의 인적교류 및 향후 교류협력 등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해 공동연수 프로그램 또는 현지방문 프로그램에 전라북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12〉 전라북도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도시 공무원 공동연수 프로그램 운영 체계

〈표 3-2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3년간 운영현황

년도	과 정 명	연수국가	인원	교육내용
2016 (6과정 102명)	몽골 NAOG 교수단 역량강화과정	몽골	16	공공부문 성과관리
	우간다 지방행정역량강화과정	우간다	15	지방행정 혁신, 지역경제 발전 등
	베트남 지방공무원(랑선성) 역량강화과정	베트남	25	지방행정 혁신, 지역경제 발전 등
	페루 지방정부 행정역량강화과정	페루	15	지방행정 혁신, 지역경제 발전 등
	개도국 지방행정과정	동티모르, 미얀마, 베트남,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캄보디아, 탄자니아, 필리핀 등 9개국	14	우수 지방행정 사례, 지방행정 혁신, 지역경제 발전 등
	몽골고위공무원 Study Visit Program	몽골	17	공공부문 성과관리
2017 (9과정 657명)	몽골 군수 역량강화과정	몽골	14	
	몽골 NAOG 및 고위공무원 study visit 프로그램(자체)	몽골	15	한국 의 지역개발 사례, APG국제회의의 참석 등
	페루 지방정부	페루	13	지역개발, 정부혁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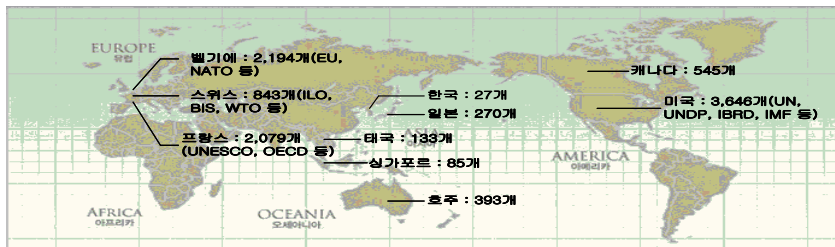
년도	과 정 명	연수국가	인원	교육내용
	행정역량강화과정			
	아프리카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	말리,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등 6개국	19	지역개발, 정부혁신 등
	몽골 현지방문 교육	몽골	130	지역개발, 정부혁신 등
	페루 현지방문교육	페루	430	지역개발, 정부혁신 등
	PNSA 교수요원 과정	팔레스타인	15	공무원 교육훈련 이해, 과정 개발, HRD 등
	팔레스타인 HRD 관리자 과정	팔레스타인	8	HRD
	개도국 지방행정과정	몽골, 미얀마, 베트남,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등 9개국	13	우수 지방행정 사례, 지방행정 혁신, 지역경제 발전 등
2018 (9과정 217명)	몽골군수 역량강화과정	몽골	14	지역개발
	페루 지방정부 행정역량강화과정	페루	15	지역개발, 정부혁신 등
	몽골 NAOG 교수단 역량강화과정	몽골	15	성과관리 시스템
	아프리카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	14	지역개발, 정부혁신 등
	탄자니아 지방행정과정	탄자니아	10	지역개발, 정부혁신 등
	개도국 지방행정과정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인도, 키르기즈, 캄보디아, 터키, 파나마 등 13개국	18	우수 지방행정 사례, 지방행정 혁신, 지역경제 발전 등
	캄보디아 현지방문교육	캄보디아	80	지역개발,
	태국 STOU Stouy Visit	태국	33	한국 지방정치, 정치사 등
	키르기스스탄 인적자원관리과정	키르기스스탄	18	한국의 공무원 제도, HRM, HRD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부자료

⑤ 국제기구 가입 및 참여 확대, 유치기반 조성

■ 목 적

-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간 또는 해외도시간 공동의제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동 목적을 달성하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의 참여 및 국제기구 유치가 중요해짐
- 글로벌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의제 설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국제기구의 가입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의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음
- 국제기구는 글로벌 이슈 선도 및 세계적인 여론을 형성, 정책 아젠다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만들어내는 토론, 협의, 사례공유 등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임. 따라서 국제기구의 운영방식이나 아젠다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해외도시들은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활동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함(이신화, 2011: 13)
- 국제기구 본부는 21,000개 수준으로 국제기구 본부가 많은 지역은 미국으로 3,646개, 그 다음으로 벨기에가 2,194개, 프랑스 2,079개, 영국 2,048개, 이탈리아 1,072개 순으로 나타남(기획재정부, 2010)



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ICCA(국제회의컨벤션협회), 아이사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등 총 4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였음. 타 지역에 비하여 국제기구 가입이 미흡한 만큼 적극적인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국제화 기반 형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추진

〈표 3-28〉 지자체 국제기구 가입 현황

시도	국제기구가입 현황	비고
서울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 세계대도시협의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망,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C40 기후리더십 그룹, 세계대중교통협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아·태관광협회, 세계관광도시연합회, 세계협회연합,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유엔글로벌콤팩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국제도시조명연맹, 세계도시문화포럼, 열린정부파트너십, 세계지방정부건강도시협의체	18
부산	한일해협연안도시현자사회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회의, 세계대도시회의,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회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세계지방정부연합회의, 아태지역인간정주개발지방정부회의, 세계도시서밋시장포럼, 아태도시정상회의, 국제컨벤션협회,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국제도시조명연맹, GTI동북아시아지역지방협력위원회,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세계타워연맹, 세계항구도시협의회	15
광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빛의도시국제네트워크, 세계대도시협의회,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전미자매도시연합,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7
대전	세계대도시연합, 세계과학도시연합,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아태지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지역벤처마케팅콘소시엄,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세계물위원회	10
울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기구,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한일자사회의, 한중지사성장회의, 한중해경제기술교류회의,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 세계알프스산악관광도시협의회	14
전북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회의컨벤션협회,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4

자료: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 추진방안

○ 국제기구 가입 확대

- 전라북도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의 가입 및 참여를 확대하고 전라북도 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창립하여 글로벌 브랜드 위상을 높임
- 전라북도가 가입을 고려할 수 있는 국제기구 등을 검토하여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 가입을 검토

- 기구명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 설립연도 : 2011년
- 성격 : 재생에너지 특화기구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
- 회원국 : 135개 국가
- 주요활동
 -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혁신
 - 정책자문 및 역량 강화
 - 국제 에너지 관련 주요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조직
 - 지식정책 및 금융센터(아랍에미리트), 기술혁신센터(독일), 국가협력파트너국(오스트리아)

자료: 삼정회계법인. ISCAN 국제기구화 추진방안에서 발췌하여 재정리

- FAO 한국협회 주관 아시아·태평양 농업정책포럼(APAP FORUM)에 가입을 추진

- 포럼명 : 아시아·태평양 농업정책포럼(Asia Pacific Agricultural Policy Forum)
- 설립연도 : 2002년
- 성격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농업·농촌개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이자 연합체
- 목적
 - 농업 및 농촌개발 현안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간 협력 증진
 - 역내 농업 및 농촌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업정책 사안에 관한 회의 개최
 -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베이스 개선을 위한 농업 및 농촌개발 문제에 관한 연구 지원
- 조직 - 의장 : 이상무 박사(한국,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부의장 : Donato B. Antiporta 박사(필리핀, 전 FAO 선임정책담당관)
 - 사무총장 : Saifullah Syed 박사(방글라데시, 유라시아정책전략연구센터 소장)
 - 이사진 :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10개국 20인
- 기대효과 - 역내 전문가, 정책입안자, 민간 이해관계자와 FAO 등 국제기구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역내 농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안 모색
- 회의 개최 : 정기 포럼(연 1회, 한국), 라운드테이블(연 1회, 역내 국가

자료: FAO KOREA , http://www.fao.or.kr/html/business/seminar_event.php

- 그 외에도 가입가능한 국제기구 등을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국제네트워크 기반 구축

가입 가능한 국제기구 현황

지속가능도시센터, 월드레저기구, 세계전자정부협의체, 세계물위원회, 세계대도시연합, 아시아대도시네트워크 21,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망, 세계도시대회,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 세계유산도시위원회, 세계관광도시연합회, 글로벌 디자인도시협의체,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국제교육도시연합, 동북아시아치단체연합, 세계역사도시연맹, 동아시아관광포럼,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유엔평화사절도시연합, 세계디지털도시네트워크, 세계대중교통협회, 유엔거버넌스센터, 국제유기농운동연맹, WHO건강도시연합, 세계참여민주주의관측기구, 정보화도시모임, 세계과학도시연합

자료: 대한민국도시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재정리

○ 국제기구 유치, 신설 전략 마련 및 기반 구축

- 전라북도의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유치 추진을 검토해야 함. 국제기구는 글로벌 업무 및 사업, 이슈 등을 담당하는 인적, 물적,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서비스업으로, 국제기구의 유치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 기회가 되고, 해외투자 및 외국 소비주체의 국내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2010)
- 국내 지방정부의 국제기구 유치 현황(2016년기준)을 보면 총 48개 국제기구를 유치하였으며, 인천, 서울 등에 집중되어 유치되었음

〈표 3-29〉 지자체 국제기구 유치 수

구분	계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경남	강원	경기
계	48	25	13	3	2	1	2	1	1
UN기구	19	7	9	2	1				
국제기구	29	18	4	1	1	1	2	1	1

자료: 인천광역시(2016).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글로벌 인천 만들기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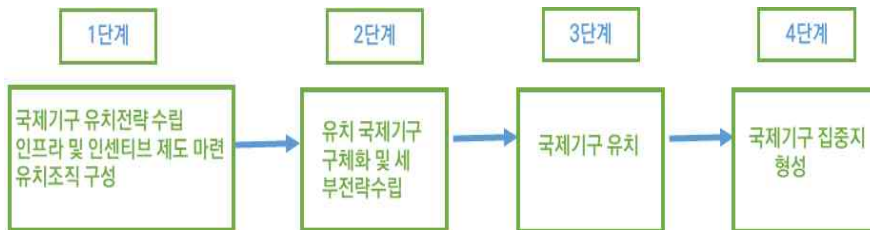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2010 :1) 국제기구 집중지 조성시 연간 경제적 효과의 경우 소비지출 증가의 경우 약 6조원(국내 민간최종소비지출의 1%, 서울 소비지출의 4%, 인천 소비지출의 21.5%), 생산유발 효과는 약 10조원(GDP의 약 1%), 고용유발 효과는 1명의 주재원은 1명의 지역 고용인을 창출
- 전라북도의 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 제3금융중심지 조성 및 더불어 농생명 특화 도시, 탄소산업, 재생에너지 거점 도시, 대규모 새만금 프로젝트 등의 성공적인 추진 및 글로벌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

〈표 3-30〉 국내 국제기구 유치 실적 현황

구분	국제기구 유치 현황
서울	국제백신연구소(IVI),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한아세안센터, 유럽-아시아 국제연구개발망 협력센터(TEINCC), 국제자치단체연합(ICLEI) 동아시아사무소,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인천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UN APICT),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EAAFP), 유엔 국제재해경감전략 동북아시아사무소(UN ISDR), 유엔 국제재해경감교육훈련연수원(UN ISDR GETI),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아사무소(UN ESCAP SRO-ENEA),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사무국(NEASPEC),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유엔국제상거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UN CITRAL RCAP),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 OSD), 녹색기후기금사무국(GCF),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A-WEB), 세계은행 한국사무소(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사무소(GGGI),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사무국(YSLME),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부산	UN기념공원(UNMCK),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APEC e러닝연수센터
경기	국제이구지구(IOM)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국제만화가대회(ICAC)사무국
대전	UNESCO-WTA산하 과학도시연구원, 국제통계발전센터(ISDC)
광주	UN대학교 환경연구소
강원	UN 국제주거위원회(HABITAT) 국제훈련센터
경남	APEC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PRC-EA)
세종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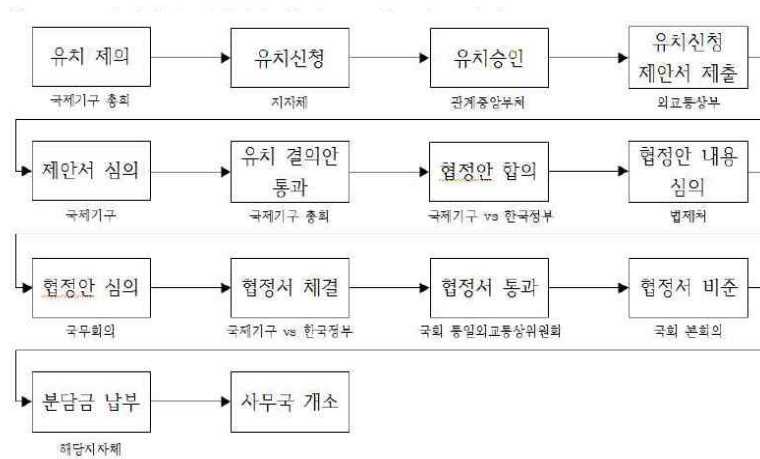
자료: 인천(2017), 2018년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부(2010; 2012), 국제기구유치 활성화방안, 행정청 보도자료(2019) 참고하여 작성

- 전라북도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대상 유치 기구 선정 및 관련 기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



〈그림 3-14〉 국제기구 유치 추진방향

-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해당 기구의 총회, 워크숍, 실무회의, 포럼 등 다양한 회의에 참여하거나(장운정, 2010: 24), 아젠다를 주도하여 회의체를 결성하는 노력을 통해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회원국들에게 유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국회의 비준을 통해 유치를 추진해야 함



자료: 장윤정(2010).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유치방안. p.24. 재인용

〈그림 3-15〉 국제기구 유치 프로세스

○ 국제기구 유치 신설 방안

- 국제기구 유치는 기존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방안, 글로벌 및 국제사회 이슈 중 국제기구 신설이 예상되거나 필요한 분야,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에서 거점이 필요한 기구, 전라북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추진
- 국제기구 창설을 주도하여 전라북도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정착 및 국제사회의 위상을 제고. 국제기구 창설을 위해 지역적인 상황 및 특성에 적합하고 이를 독창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 창설을 주도
- 현재 세종시는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을 주도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 “아시아태평양관광진흥기구(TPO)”, “북방경제도시 협의회” 등을 설립하였음. 산림청의 주도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창설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빈곤퇴치 전문 국제기구(International ST-EP Organization)”를 창설
- 현재 농진청은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를 국제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중에 있음. 현재 협의체는 4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글로벌 및 국제 사회 이슈 중 기존 국제기구의 유치 및 국제기구 신설이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국제 기구 유치를 추진할 수 있음.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근거로 하여 관련 기존 국제기구의 유치 및 신설 등을 추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국제기구 신설 등의 추진 방향을 검토



〈그림 3-16〉 국제기구 유치 검토방향(안)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및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기구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글로벌 국제협력기구
- 모두를 위한 깨끗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아시아재생에너지 국제협력기구
- UNESCO 산하 국제유스리더십센터
- 국제금융기구의 한국사무소 전북 유치
 - ※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가 인천에 위치
 - ※ 글로벌 금융협력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G20, 국제결제은행(IFS), 금융안정위원회(FS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있으며, 지역금융협력기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ASEAN+3), 동남아 중앙은행기구(SEACEN),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등이 있음. 개발금융기구는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AFDBG),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이 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농업대학 및 세계식품대학 전북 설립 추진
 - ※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농림, 식품, 수산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기구로서 농업 및 식품 관련 공공기관 집적화 및 국가식품산업 메카인 전북 지역에 세계 농업대학 및 세계식품대학 설립 추진
 - ※ FAO는 기아, 식량불안 및 영양불량 퇴치, 빈곤경감, 자연자원(토지, 물, 공기, 기후,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임(농림부 보도자료, 2019.7.12.)

- (설립연혁) 정식발족('45.10.16) 및 최초의 UN상설전문기구('46.12.14)
- (회원국) 194개국, 1개 회원기구(EU), 2개 준회원국
- (소재지) 이탈리아 로마
- (인원) 본부 및 지역사무소 등에 총 2,945명 근무('18 정규직 기준)
- (조직) 본부, 지역사무소(5), 소지역 사무소(10), 국가사무소(133), 연락사무소(6), 협력연락사무소(7)
- (회의체) 총회·지역총회, 이사회, 산하위원회(8), 산하기구·보조기구* 등
- *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FAO/WHO합동CODEX위원회(CAC), 아시아태평양식물보호위원회(APPPC) 등

자료 : 농림부 보도자료(2019.7.12.)

※ FAO 산하 세계수산대학(World Fisheries University) 시범사업 사업 약정 체결 (FAO, 해수부, 부산, 부경대)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2017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체적으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과정을 운영(24개국 석사학위자 25명,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자 19명 등 총 44명 수료생 배출)

〈표 3-31〉 FAO산하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약정체결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범사업 목적	·교육과 역량구축 활동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석사과정, 단기 훈련과정, 수산분야 세미나) 공동 개발 및 이행 ·FAO 의사결정기구의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 정보 제공
주체별 역할	·(FAO) 시범사업 관련 모든 통신문과 학생 선발 승인, 교육내용에 대한 기술 지원자문 및 자료 제공 ·(해수부) 시범사업 이행 관련 시설·서비스·자원 제공, 입국·체류 편의 제공 등 ·(부경대) 시범사업 개발 및 제공, FAO 직원 근무시설과 학생 필요시설 제공, 학생 평가 및 최종시험 시행
운영위원회	·(구성) FAO 사무국과 해수부 대표 ·(회기) MOU 발효 후 최소 6개월마다 ·(역할) 학사, 행정, 재정사항, 시범사업 제도·지침의 검토 및 승인
부칙	·(교육과정) 석사과정 30명, 3개 전공(양식기술, 자원관리, 사회과학), 12과목(필수4, 선택8), 3학기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5.14.). 해수부-유엔식량기구,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약정 체결

○ 국제기구 유치 기반 조성 및 지원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국제기반의 유치 기반 조성 및 지원 범위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

〈표 3-32〉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의 국제기구 유치 기반 조성 관련 일부개정안

구분	조례 개정안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도지사는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국제기구 유치 지원 범위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당해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당해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5.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지원 6. 기타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북형 공공외교 사업 추진

(1) 공공외교 사업 사례·유형 및 전라북도 추진 현황

■ 공공외교법 주요내용 및 중앙부처 공공외교 추진 사례

- 공공외교법 제정으로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세부시행계획 등이 마련
 - 공공외교법(16.2월 제정, '16.8월 발효) 제정에 따라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이 수립되어 공공외교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공공외교법 주요내용〉

- 공공외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공외교위원회 설치 (위원장 : 외교부장관)
- 외교부 주도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종합 시행계획 수립
- 지자체와 민간의 공공외교 역량 결집 및 체계적 효율적 공공외교 수행
- 공공외교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으로 설정하고 4개 목표, 15개 추진전략, 45개 중점 추진과제 등을 설정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공공외교 추진체제 확립,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가이미지 강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제고,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체계화 등임



자료: 외교부 공공외교종합계획(2018)

〈그림 3-17〉 정부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 중앙부처의 공공외교 추진 방향은 부처의 정책 성격 및 목표에 따라 공공외교 방향이 차별화되어 있음. 교육부의 경우 교육협력을 기반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강화, 외교부와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외교정책의 지지확보 기반 구축, 법무부의 경우 국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국방부는 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을 방향으로 설정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

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국가 이미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한식진흥 및 음식 관광 활성화, 환경부는 환경기술 이전을 통한 외교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

-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외교사업 규모 및 예산현황을 보면 총 143개의 사업 수에 2017년에 6,753억원, 2018년에는 3,345억원이 투입되었음(외교부, 2018년도 공공외교종합시행계획)

〈표 3-33〉 중앙부처 공공외교 시행계획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부처	2019년 공공외교 주요 시행계획 방향
교육부	○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등 지식 공공외교 지속 실시
외교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확보를 위한 정책 공공외교 추진 강화 -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발신을 위한 체계 마련 - 대미 정책공공외교 추진체계 조직화 -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전략적인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통일부	○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한 정책 공공외교 지속 실시 - 평화통일전략대화, 한반도 글로벌포럼, 한중 전문가 대화, 글로벌 통일교육 등 사업 계속 - 우리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다국어로 제작 및 배포
법무부	○ 국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식 공공외교 지속 실시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재한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운영 등
국방부	○ 우리 안보국방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를 위한 정책 공공외교 중점 실시 - 한미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DMZ내 6.25 참전 전사자 유해발굴 및 인도, 주한 무관단 및 방한 외국군 대상 국방정책설명회 등
행정안전부	○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업 체계를 지속강화하는 사업 계속 실시 - 중앙-지방 국제교류 정책협의회 개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강화를 위한 문화공공외교 지속 실시 - VR 콘텐츠 등 미래형 문화 콘텐츠 발굴확산 - 한-덴마크/한-필리핀 수교 60주년 등 주요외교계기 문화행사 개최 -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 주요 국제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 한식진흥 및 음식 관광활성화 등 문화 공공외교 지속 실시 - 재외공관별 한식 요리 경연대회 개최, 해외한식당 협의체 역할 강화, 한식 전문교육사업, 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 등
환경부	○ 우리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우리 환경기술 전수를 위한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추진 - 개도국 공무원 30명을 선발, 우리 국내대학 환경석사학위 과정 이수를 지원 - 주한공관장 대상 우리 환경정책 설명회 개최
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예정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대상 맞춤형 지식 공공외교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사업 지속 실시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한국생활 포켓가이드북 제작 배포 - 다문화가족 봉사활동, 이중언어 인재발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소년 교류 사업시 다문화 자녀 포함 확대 등
국토교통부	○ 우리의 선진 국토개발 및 교통관리 정책 홍보를 통한 정책공공외교외연 확대 -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월드 스마트시티 워크,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 스마트 국토엑스포 등 개최
해양수산부	○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을 통한 지식 공공외교사업 지속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 한-아세안 스타트업 워크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 정책 홍보를 통한정책 공공외교 외연 확대
국가보훈처	○ 6.25 참전용사 및 그 후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식 공공외교 실시 - 참전용사 및 후손 방한 초청사업, 재외공관 현지 위로감사행사, 유엔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 등
법제처	○ 우리 법제 정책 및 법령 알리기를 통한 지식 및 정책 공공외교 실시 - 아시아 법제 전문화 회의 개최, 생활법령정보센터의 다국어 생활법령서비스 제공 등

자료: 대한민국 공공외교시행계획(2019). 15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별 2019년 공공외교 주요계획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사업 사례

- 광역지자체의 공공외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정책방향에 맞게 설정되어 있음. 서울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거주 외국인과의 교류강화를 위해 서울평화국제포럼 개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외국인 주민 서울타운 미팅 등을 추진
- 부산시의 공공외교사업은 국제탁구대회 개최 및 자매 우호도시의 교류 확대, 인천의 경우 한류관광콘서트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설정
- 광주시는 세계인권도시포럼, 울산시는 무용단 해외공연, 경기도는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개최, 충북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직지 해외특별 전시회,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전남은 한중일 바둑대회, 남도문예르네상스 등을 추진. 경북은 K-Pop 불꽃 페스티벌, 제주도는 국제걷기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

〈표 3-34〉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추진방향 및 공공외교 사업

구분	2019년 공공외교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서울시	○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서울 서울시 거주외국인과의 교류 강화 등 정책 공공외교 강화 - 서울 평화 국제포럼 개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외국인주민 서울 타운미팅 연중 개최 등
부산시	○ 국제탁구대회 개최,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등 문화 공공외교와부산시내 외국인 대상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지식 공공외교를 균형있게 추진
대구시	○ 대구시내 외국인 대상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청소년 교육협력활성화 등 지식 공공외교 중점 추진 - 외국인유학생 한국문화교실 운영, 대구 국제대학생캠프 개최 등
인천시	○ 인천 한류관광 콘서트 개최 등 문화 공공외교와 인천시내 외국인 대상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지식 공공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
광주시	○ 광주시 공연단의 해외공연 등 문화 공공외교와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를 통한 광주시 인권 정책 홍보 등 정책 공공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
대전시	○ 외국 관광객 유치 사업 등 문화 공공외교와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대전시 우수 정책 홍보 등 정책 공공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
울산시	○ 우호자매도시와의 교류, 울산시 시립무용단 해외공연 등 문화 공공외교 중점 추진
세종시	○ 세종시 우수 문화예술단체 해외공연 등 문화 공공외교 추진
경기도	○ 경기 세계도자기비엔날레 개최 등 문화 공공외교와 미국 유타주 내 경기도 정원 조성 등 지식 공공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
강원도	○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위촉 등 도내 외국인 유학생대상 지식 공공외교 및 문화 공공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
충청북도	○ 유네스코 기록유산 「직지」 해외특별 전시회,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개최 등 문화 공공외교 중점 추진
충청남도	○ 충청남도 개발 정책 홍보 등 정책 공공외교와 한일 문화카라반 등 문화 공공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
전라북도	○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 세계인 한마당 축제 개최 등 문화 공공외교 중점 추진
전라남도	○ 한중일 3국 교류도시 바둑대회, 남도문예 르네상스 중국 전파 등 문화 공공외교 중점 추진

경상북도	o K-Pop 불꽃 페스티벌 개최 등 문화 공공외교와 해외도민회 행사지원 등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
경상남도	o 우호도시간 체육교류 등 문화 공공외교와 외국인 근로자 경남투어실시 등 지식 공공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
제주도	o 국제건기대회 개최 등 문화 공공외교와 제주도 정책 로드쇼 등 정책 공공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

자료: 외교부(2019). 15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별 2019년 공공외교 주요계획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사업의 사업규모 및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 수는 총 550개이며 예산의 경우 2017년에 1,012억 원, 2018년에 1,063억 원이 투입되었음.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8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다음으로 대구시 74개 사업, 서울 56개 사업, 대전이 49개 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표 3-35〉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사업수	예산	
		2017년	2018년
합계	550	1,012	1,063
서울	56	50.5	58.7
부산	46	19.3	18.2
대구	46	14.4	20.0
인천	15	19.9	19.5
광주	33	47.2	78.2
대전	49	82.0	77.6
울산	17	15.6	15.8
세종	5	1.4	1.6
경기	82	106.1	92.2
강원	12	2.8	4.3
충북	28	24.6	67.1
충남	4	6.7	6.4
전북	24	115.1	113.3
전남	24	20.6	59.9
경북	14	29.9	30.2
경남	75	366.2	285.2
제주	20	90.0	115.0

자료: 외교부(2018). 2018년도 공공외교종합시행계획(1)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사업의 유형

- 외교부(2019)는 공공외교를 외국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의미라고 정의함⁹⁾. 한편으로 공공외교는 국가 이미지나 브랜드의 가치를 넘어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김태환(2016: 3)에 의하면 공공외교는 단순히 국가 이미지를 넘어서서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의 의미를 대변하고 그 의미에서 논쟁과 협상 그리고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정의함
-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외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원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브랜드를 높여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외교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공공외교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보여주고 나타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은 단순히 이미지나 브랜드, 그리고 자원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음

9) 외교부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2019년 7월20일검색)

〈표 3-36〉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사업 유형

구분	공공외교사업 추진 유형								
	공연 등 문화행사	포럼	회의	대회 개최	거주 외국인 교류	교류 확대	유치 사업	정책 홍보	공간 조성
서울시		○	○		○				
부산시				○		○			
대구시	○			○					
인천시	○				○				
광주시	○	○							
대전시							○	○	
울산시	○					○			
세종시	○								
경기도				○					○
강원도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			
제주도				○				○	
계	9	2	1	7	4	3	1	3	2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사업 유형은 주로 공연 등과 같은 문화행사와 대회 개최 등에 집중되어 있음. 문화행사 및 대회개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매력을 알리고 이미지 홍보 및 브랜드를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위상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공공외교사업의 유형은 그 외에도 글로벌 이슈와 관심 주제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를 높이는 포럼이나, 거주 외국민과의 교류 확대 등의 다양한 유형을 통해 공공외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공공외교사업은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스타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북의 매력을 알리는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할 것임

(2) 전북형 공공외교 신규사업(안)

■ 삼락농정 해외 농업정책 및 기술 공유사업

-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인 삼락농정을 공공외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도시에 농업정책 및 농업기술 등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전라북도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및 삼락농정의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하고 동시에 국제교류 확대의 기회 제공
- 삼락농정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등을 통해 미래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의 농업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삼락농정을 공공외교사업으로 추진
- 삼락농정을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통합마케팅 육성,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고부가 6차산업 육성, 전북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 등이 추진되어 농가소득 증가하였음
- 삼락농정을 해외도시로 정책공유 및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해외 도시의 농업 성장 및 발전 정도, 농업 기계화 정도 등을 충분하게 분석한 후 현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그림 3-18〉 삼락농정 공공외교사업 추진체계

■ 태권도 전북 문화 페스티벌 운영 및 전북 태권도 시범단 운영

- 태권도 종주국의 대표 성지 시설이 있는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들에게 다양한 태권도 문화콘텐츠의 확산, 태권도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태권도 전북 문화 페스티벌 및 전북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통한 전북형 공공외교 사업 추진
- 태권도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및 창작성을 위한 융복합 창작 콘텐츠 경연 및 태권도 문화공연, 태권도 ICT 활용 겨루기, 태권격파 전북왕 선발, 전북 지역상품 체험 프로그램, 전북 태권도의 날 기념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북의 대표적인 공공외교사업으로 육성, 추진
- 태권도 창작 콘텐츠는 태권도와 사물놀이, 태권비보이, K-POP 댄스 연계 태권댄스, 태권체조 등 다양한 장르 등을 개발하여 해외 태권도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라북도의 글로벌 브랜드로 정착

■ 해외 문화원 한스타일 학당 운영

- 전라북도의 전통적 가치와 가장 한국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한스타일 사업을 기존의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및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문화원에 한스타일 학당을 운영하고 해외 도시민 및 재외동포 등이 참여하여 가장 한국적인 전북의 한스타일을 학습하고 전라북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구성
- 한스타일 학당은 내부공간 연출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구분. 내부공간은 한지 소재 벽지, 조명 등을 이용하여 연출하고 프로그램은 한지, 한식, 한복, 서예, 판소리 및 사물놀이 등 전통적인 문화자원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
- 해외문화원은 총 31개로 아시아·태평양에 9개, 미주 5개, 유럽·중동·아프리카에 17개가 있음. 해외문화원에 전북의 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한스타일 학당을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공공외교사업으로 추진

〈표 3-37〉 해외 문화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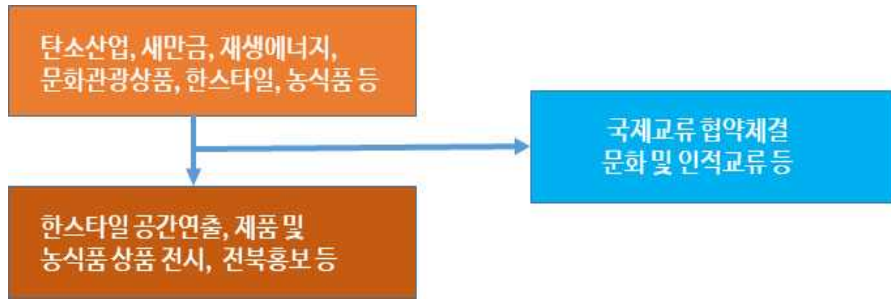
구분	국가
아시아/태평양(9)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일본, 호주
미주(5)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중동/아프리카(17)	영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란, 터키, 러시아, 카자흐스탄, 폴란드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19). <http://www.kocis.go.kr/kocc.do?searchType=menu0023> 참고하여 작성(2019.7.15 검색)

- 중국은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통해 다양한 중국의 문화프로그램을 공공외교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중국은 공자학원을 2004년부터 시작하여 해외국가와 문화교류 증진 촉진을 위해 공공외교의 대표적 자산으로 추진하여 2013년 기준 120여개 국가에 480여개의 학원 및 700개의 학급을 운영. 공자학원의 운영방식 특징은 현지 국가의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관계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여 기존의 국가들의 언어 및 문화교류 추진방식과 다름(김태환, 2016: 14~15). 이로 인해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이 중국정부의 선전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폐쇄되기도 하였음

■ 해외 대학 및 공공기관 도서관 전북 복합홍보관(J-CAFE) 사업

- 해외 국가 및 도시 지역의 대학 및 공공기관의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새만금 및 문화관광상품, 한스타일, 전북 농식품 등 관련 제품 및 기술, 전북 소개 자료를 기증하고 전북 복합 홍보관 설치로 해당 국가의 지역주민들이나 대학생들이 전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고취 및 전북에 대한 글로벌 위상 제고
- 전북 복합홍보관 연출사업에 한스타일로 공간 연출하고 관련 자료 및 제품 기증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와의 국제교류 협약 체결 및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의 다양한 분야 등의 교류 확대를 추진



〈그림 3-19〉 전북 복합홍보관(J-CAFE) 추진체계

■ K-대장간(K-BLACKSMITH'S SHOP) 전시관 운영 프로젝트

- 전라북도의 전통농기구 및 현대 농기계를 현대 생활문화와 스토리를 접목하여 해외도시 및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가칭 K-대장간 전시관 운영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전라북도의 전통 농기구 및 농기계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전라북도를 한국의 전통 농경문화의 중심지로서 이미지 확립
- 최근 호미가 아마존, 이베이 등에서 국내 4천원 가격이 14.95~25달러(1만6천 원~2만원8000원)로 팔리고 있어 원예용품으로 미국 등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전북의 전통농기구를 현대 생활에 적합하도록 스토리 및 생활 문화에 접목시켜 마케팅을 하고 농업인과 직접 연계시킬 수 있도록 추진

■ 전북 김치와 비빔밥 한마당(J-FOOD FESTIVAL)

-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하면 음식 및 요리 등 '한식'을 가장 많이 연상하였고, 특히 '김치'연상이 가장 많았음(해 외문화홍보원, 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보고서:15, 42)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18). 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보고서.
 <그림 3-20> 한국 자유연상 이미지

○ 따라서 전북의 김치와 비빔밥을 연계한 음식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전북의 공공의 교사업으로 추진. 세계인의 김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문화공공외교상품으로 활용하여 김치 관련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전시함으로써 전북 김치 양념 소스 및 각종 야채 등의 우수성을 알림. 또한 비빔밥을 전통 비빔밥과 외국인의 입 맛과 식문화에 맞게 하는 비빔밥 등 두 종류로 하여 전북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인 에게 홍보하고 전북 음식문화를 통한 공공외교 추진

■ K-사물놀이·판소리(K-SAMULNORI & PANSORI) 한마당 운영

- 문화예술의 고장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무형유산인 판소리를 세계에 알리고 사물 놀이의 세계화를 위한 사물놀이와 판소리를 접목한 전북 한마당 운영을 통한 전라 북도 공공외교사업 추진
- 사물놀이인 장구, 팽과리, 징, 북 등을 활용하여 세계인의 흥과 재미를 자극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여 전북의 사물놀이를 세계인에 알려 전북의 이미지 고취함. 또한 판 소리를 전통 판소리, 그리고 현대 음악과 조화된 판소리 등으로 구성하여 세계인과 호흡할 수 전북 사물놀이 및 판소리 한마당을 운영

3) 국제화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1) 추진방향

○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재양성 추진

- 전라북도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일환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직무연수 및 유학 등의 제도를 검토하여 추진
- 현재 전라북도는 도 공무원의 해외파견사업을 하고 있음. 미국 워싱턴주 1명(2년), 일본 이시카와현 1명(1년), 중국 장쑤성 1명(1년) 등 3개 해외도시에 3명을 파견하고 있음. 일본 이시카와현의 공무원을 전북에 파견하고 있는데 현재 1명이 파견됨

○ 전라북도의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체계 확립, 청년들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추진

- 현재 국제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국제정책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 자문단 구성인원은 총 16명. 도 및 도의회 1명, 국제협력 분야 4명, 농업 분야 1명, 경제통상 1명, 문화예술 2명, 언어권 5명, 공공기관 1명 등임
- 전라북도의 국제교류 및 국제화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산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화 활동 및 사업 등을 통합 및 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과 더불어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민·관·학 등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추진

○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기능 및 역할 확대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는 2015년도 설립되어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전라북도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음
- 민간협력의 중추적인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 등을 개발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진단 등을 통해 국제교류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립

(2) 추진과제

①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유학 및 연수 제도 도입

■ 목 적

- 신규 지역의 교류 협력 확대 및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파견공무원 확대 및 공무원 유학제도 등을 검토
- 신흥 중점 관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 등을 검토하여 공무원 직무연수 및 유학연수제도 등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제화 외연 확대 추진
- 현재 7개 시도(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경북, 경남)가 베트남에 해외사무소(5개지역) 및 KOTRA파견(2) 등의 운영으로 신흥공업국과의 교류 확대 추진
- 전라북도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 인적자원의 육성 및 지원 등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국제 전문인력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유학 및 연수제도 등 검토
- 현재 중앙부처 및 고시 출신의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유학 및 연수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어 우수한 인적자원의 폭 넓은 확대를 통한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어 지자체 공무원에 적합한 유학 및 연수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

■ 추진 사례

-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유학 및 연수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임. 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전북, 충북, 제주, 울산, 세종 등임

〈표 3-38〉 시도 공무원 유학 및 연수 제도 운영 현황

시도명		인력현황			국가	근무기관	기간	운영목적	주요내용	비고 *상호파견 일방파견 여부 기재
		직급	인원	형태						
서울	파견		20	직무	영어권 (85%) 기타		1~2년			*상호파견
	유학/		10	하계						*일방파견

시도명		인력현황			국가	근무기관	기간	운영목적	주요내용	비고 *상호파견 일방파견 여부 기재
		직급	인원	형태						
	연수			교육	(15%)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상호파견 여부
부산	파견	5급	4	해외 사무 소	미,일,중 ,베					
		6,7 급	1	자매 우호 지	일본	후쿠오카현				
	유학/ 연수	3급 1 4급 1	2	위탁 교육	미국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상호파견 여부
대구	파견	5급 이상	3	직무	베트남 등					
	유학/연 수	5급 이상	2	학위	미국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상호파견 여부
인천	파견	7급 이상								
	유학/ 연수		2-3명	학위	영어권 (2년) 비영어권 (1.5년)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상호파견 여부
광주	파견		2	직무	미국					062-613 -6291
	유학/ 연수		2	학위	미국, 일본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상호파견 여부
대전	파견	5급	1	직무	베트남					
	유학/ 연수	3급	2	교육	미국		2년			
	외국공				한국					

시도명		인력현황			국가	근무기관	기간	운영목적	주요내용	비고 *상호파견 일방파견 여부 기재
		직급	인원	형태						
울산	무원 등 한국연수									
	파견		2	직무	미국		1년			
	유학/ 연수									
세종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파견	4급	2	직무	미국, 캐나다	시도지사 협의회 파견	2년			
	유학/ 연수									
경기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파견		9	직무	미국 등 7개국		1년			
	유학/ 연수		6	학위			2년			
강원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파견									
	유학/ 연수	5급 이상	22	교육	미,일,중, 싱가포르		1년 제한			
충북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파견	5급 1 6급 1 7급 1	3	직무	중국, 일본, 베트남		2년 정도			
	유학/ 연수									
충남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파견									
	유학/ 연수	5급 1 6급 4	5	학위 과정	미, 일 중, 대만		2년			

시도명		인력현황			국가	근무기관	기간	운영목적	주요내용	비고 *상호파견 일방파견 여부 기재
		직급	인원	형태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전북	파견									
	유학/ 연수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전남	파견	6급	1	직무 파견	중국	저장성	18.3. 6.~19 .3.7.	상호교류 증진		일방
		6급	1		일본	사가현	18.4. 10~1 9.3.2 9.			
	유학/ 연수	6급	1	교육 파견	중국	푸젠성	18.9. 3. ~19.7 .31.	상호교류 증진		일방
		3급	1	유학	미국	미주리 주립대	17.3. 6 ~19.3 .20.	석사학위 취득		일방
		5급	1			미드 웨스트대	17.2. 6. ~19.1 .31.			
		6급	1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경북	파견		7					통상사무 소		
	유학/ 연수	2-6 급		국외 훈련			2년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경남	파견		5		미,일,중 ,베			통상사무 소		
		2,3 급	2	직무	미국		2년			
	유학/ 연수	6급	1	학위			2년		세계100 위 대학 제한	

시도명	인력현황			국가	근무기관	기간	운영목적	주요내용	비고 *상호파견 일방파견 여부 기재
	직급	인원	형태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일본(3개월) 상호파견	
제주	파견	4급	2	파견	스위스	1.5년			
	유학/ 연수								
	외국공 무원 등 한국연수			한국					

자료: 전라북도(2019). 내부자료

○ 충남 사례

- 충남은 공무원 국외장기교육훈련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국제화 역량 기반을 구축해 왔음. 충남은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4개국 67명이 국외 장기교육훈련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 기회 제공
- 훈련과정은 학위과정과 직무과정으로 구분하며, 학위과정은 4~8급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년이상 체류가 가능하고, 직무과정은 7급이상으로 1년 체류 가능

〈표 3-39〉 충남 국외장기교육훈련 현황

구분	세부현황
훈련국가	미국(28), 영국(10), 일본(9), 중국(6), 호주(4), 프랑스(1), 베트남(1), 캐나다(2), 스페인(1), 네덜란드(1), 필리핀(1), 대만(1), 뉴질랜드(1), 체코(1)
직급별	4급이상(8), 5급(4), 6급이하(55)
성별	남(55), 여(12)
훈련과정	학위(17), 직무(50)
훈련기관	대학교(66), 연구소(1)

자료: 충청남도(2018). 내부자료

- 국외훈련 선발기준은 비영어권 국가 신청 시 선발 시 우대하며 토익 점수 외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며 직무과정은 현장형, 연계형, 연구형 등 3개 모델로 유형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현장형의 경우 해외 지자체 및 연구소 등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연계형의 경우 해외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직무연계훈련 유형을 의미함. 연구형은 해외 대학교에서 훈련 분야 전공과목 학점 이수 등을 의미함
- 국외훈련 선발요건은 근무경력, 훈련계획, 면접, 어학성적 등을 종합하고 전문가 면접 등을 실시하여 선발함. 선발된 공무원은 수료자 멘토링,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여 조

기정착 및 훈련 성과 극대화를 도모

- 국외훈련 수료자 사후관리는 훈련결과보고서 평가를 통한 보고서 질적 향상 및 도정활동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급별 상시학습 차등부여 및 교육비 일부 환수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수료 후 훈련분야 의무복무(훈련기간 2배) 및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전문관 5년 지정(3년 전보제한)의 관리를 하고 있음

〈표 3-40〉 충남 국외 장기교육훈련 직무과정 유형 및 선발요건

직무과정 유형	선발요건	사후관리
·현장형 : 해외 지자체 및 연구소 등에서 인턴십	·근무경력 : 20점(총 근무경력 10+도청 근무경력 10)	·훈련분야 의무복무(훈련기간 2배) 및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전문관 5년지정(3년전보제한)
·연계형 : 해외 대학교부설 연구소 직무연계훈련	·훈련계획 : 25점(필요성 3+ 과제적정성 4+ 기관적정성 6+ 실현가능성 6+ 활용가능성 6)	·훈련결과평가 보고서 평가를 통한 상시학습 차등부여 및 교육비 일부 환수 등 추진
·연구형 : 해외 대학교 훈련분야 전공과목 학점이수	·면접 : 25점(발전가능성 10+과제수행역량 10+관련지식 5)	
	·어학성적 : 30점(토익 등 15+OPic 15) ※별도 지휘부 가점(10점)	

자료: 충청남도(2018). 내부자료

■ 추진방안

○ 목적

-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학 및 연수제도(국외장기교육훈련 과정)을 운영.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도모

○ 훈련과정 및 기간, 교육훈련비 지원

- 학위과정 및 직무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학위과정은 2년의 기간을 제공하며, 직무훈련과정은 1년 기간으로 설정함
- 연령은 만 50세이하(국장급의 경우 만 53세이하)로 영어권 및 비영어권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훈련비는 지방공무원 여비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항공료, 체재비, 생활준비금, 직무훈련보조비 등을 지급

○ 전라북도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라북도 공무원 국외훈련 계획 수립, 훈련 공무원의 선발 등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고, 국외훈련의 효과성,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도모
- 구성은 국장급 이상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며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이 간사로 함
- 주요 심의사항은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수립, 국외훈련 전라북도 공무원의 선발·추천 및 파견, 국외장기훈련 분야 및 과제의 적정성,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훈련결과보고서 및 평가결과, 훈련성과 평가, 기타 사항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

○ 공무원 선발 요건

- 대상 : 직무과정(7급 이상)1년, 학위과정(4급~7급) 2년, 학위과정의 경우 연장불허
- 허용인원 : 5급 이상 총 정원의 7%이내 선발
- 선발요건 :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요건을 정함에 있어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하여 결정하여 추진하되, 세부적인 평가기준 마련하여 체계적인 선발을 추진하도록 함. 선발요건으로는 근무경력, 교육훈련계획, 어학능력, 과제수행역량진단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 선발
- 어학요건 : 영어권 및 비영어권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 증명서 제출 및 말하기 평가 실시

〈표 3-41〉 지방공무원 국외 장기교육훈련 어학요건

훈련종류		어 학 성 적
장기훈련 (6월 이상)	영어권	TOEFL 530점(CBT197점, IBT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LATT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Ⅲ)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5급 180점 이상·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자료: 행안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전라북도 국외훈련 운영 규정 제정

- 전라북도 국외훈련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정 필요
- 주요내용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등과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훈련 공무원의 준수사항, 복귀명령, 훈련비 지급·정산·환수,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함

〈표 3-42〉 전라북도 국외훈련 운영규정(안)

구분	주요내용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기능(연도별 국외훈련계획,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 훈련분야 및 훈련과정 지정,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의 적정성, 훈련과정 및 훈련성과 평가, 기타 등) ·훈련대상자 선발 시 검토사항(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선발기준,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제한 등)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등 7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국외훈련계획,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요건, 선발요건의 예외, 선발방법, 훈련분야의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훈련기관의 선정, 훈련기간, 국외훈련의 파견, 훈련공무원의 관리, 일시귀국, 훈련계획의 변경, 훈련성과 보고 및 도정활용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훈련성실의 원칙, 품위유지의 의무, 연락체계의 유지
복귀명령	·복귀명령에 관한 사항
훈련비 지급·정산·환수	·훈련비, 항공료, 체재비, 훈련비 지급시기 및 방법, 훈련비 차액지급, 훈련비 정산, 훈련비 환수
훈련 공무원의 인사관리	·의무복무, 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의무복무 중의 휴직, 기관 간 인사교류

○ 국외훈련을 위한 협약체결

- 전라북도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 향상을 위해 해외도시의 관련 대학 및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인 인적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강원도는 공무원 국외훈련을 위해 켄터키주립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간의 학술교류 협약 체결하여 추진



② 국제화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글로벌 일자리창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목 적

- 전라북도의 국제화 역량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청 실국별,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 지원 및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컨트론타워 기능 활성화가 필요
- 또한,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사업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여 전라북도 홍보,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 기회 확대, 전략적인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전라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국제화 역량 강화 추진
- 청년들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라북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추진

〈표 3-43〉 전라북도 및 공공기관 국제교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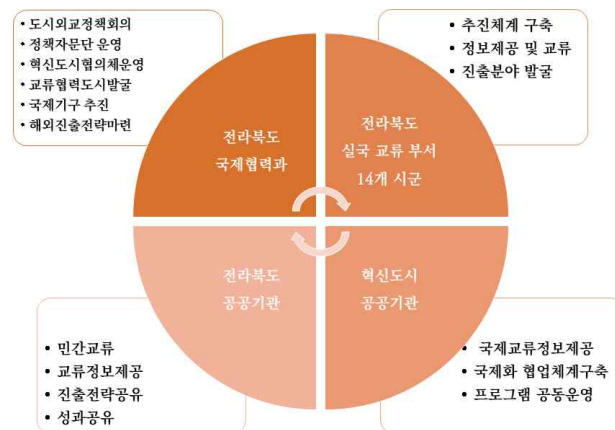
구분	국가		
	MOU	상호방문 등 일반국제교류	국제행사
자치행정국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중국(중경시)	인도네시아	중국(강소성), 중국(위난성), 카자흐스탄(알마티)
환경녹지국		일본	영국, 중국, 이탈리아
경제산업국	독일, 미국, 프랑스, 미얀마(양곤), 베트남(다락성)	미얀마(양곤), 베트남(다락성)	
대외협력국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문화콘텐츠진흥원	아르메니아, 중국, 인도	아르메니아, 중국,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중국
테크노파크	일본, 프랑스, 미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독일, 미얀마(양곤, 네파도), 스위스, 일본, 중국(상해),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독일, 일본, 미국(라스베가스), 중국(광둥성), 일본(도쿄), 독일(하노버)
국제교류센터	미국, 일본, 중국, 네팔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네팔, 태국, 카자흐스탄, 스페인, 라오스	일본(가고시마현), 호주(시드니), 네팔(카트만두), 스페인(비아누 에바), 아랍에미리트(알마티)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9) 참고하여 작성

■ 추진사업

○ 전라북도 도시외교 정책회의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도시외교 정책협의체 신설

- 전라북도 실국 및 공공기관, 14개 시군의 국제교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전라북도 국제화 전략 수립 및 기반 구축,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글로벌 브랜드 형성, 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회의를 운영
-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 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과 전라북도가 국제교류 및 국제화 기반 추진 사업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도시외교 정책협의체를 별도로 구성



〈그림 3-21〉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체계

○ 전라북도 국제관계 대학 및 시군, 시민단체, 연구소 등과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 도내 소재 대학의 국제관계 관련 전문가 및 국제협력 종사자, 대학원생,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회의 또는 포럼 등을 개최하여 전라북도 국제협력 및 국제화 기반 전략 등을 구상하고 세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업 추진 체계 구축
- 전라북도와 시군 국제업무 공무원 정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국제화 정책 공유 및 시책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림 3-22〉 전라북도 민관협력 플랫폼

○ 국제화 및 도시외교 백서 제작

-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국제교류의 성과 및 경험 등의 공유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 국제화 추진 사업 등에 대한 경험 및 추진성과, 추진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외교 백서를 제작

○ 글로벌 일자리 창출 : 전북 청년 해외인턴십 사업(OJYIS: Overseas Jeonbuk Youth Intern Scholarship)

- 전라북도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 기업연계, 해외 연구소, 국제기구, 해외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
-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및 기업 등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사업 등의 정보와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련 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
- 해외 자매·우호 협력도시 인턴십 파견 교류 협약, 파견 사업 및 해외문화원 연계 인턴십 파견 사업 등을 통해 전북 청년들의 해외인턴십 사업 추진
- 해외(일본 등) 취업 합동 박람회 참가단 운영 및 스타트업 벤치마킹 창업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취업 기회 및 창업 사례 참여를 통한 글로벌 창업 기회 제공
- 추진방식은 해외 지방정부, 국제기구, 해외연구소, 해외 기업, 해외문화원, 중앙부처 해외 설립 공공기관 등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 협약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인턴 수요 조사를 실시.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파견인원의 공고 및 선발 절차 등을 통해 파견인원 선정 및 지원내역 확정(해외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및 비자 등 준비비), 해외 인턴십 실시 및 성과보고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



〈그림 3-23〉 전북청년 해외인턴십 추진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기구 등과 인턴수요를 조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맞는 청년들을 선발, 파견하여 그에 따른 해외체재비를 지원('19년 410백만원)하여 미래 농식품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9.7.26) 청년인턴파견사업은 연간 50명내외로 대학교 3학년 이상 또는 석박사과정,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3개월 파견 실시

- (2018년추진현황):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8명,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8명,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5명, 국제미작연구소(IRRI) 1명, 와게닝겐연구소 3명, 유기농업 연구소(FiBL) 4명, SEGES+코펜하겐대 5명, 페슬 인스트루먼트즈(Pessl Instruments) 6명, 유엔지속가능농업을 통한 빈곤경감센터(UN-CAPSA) 1명 등임

〈표 3-44〉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2019)

구분	기관명	파견지	파견인원
국제기구(2)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탈리아, 네팔 등	6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이탈리아	3
연구소(4)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미국	2
	와게닝겐대학 경제연구소(WEcR)	네덜란드	1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덴마크	1
	유기농업 연구소(FiBL)	스위스	1
기업(1)	페슬 인스트루먼트즈(Pessl Instruments)	오스트리아	1

자료: 하반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국제기구, 해외연구소 등에 청년인턴파견,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7.26.)

○ 지방정부 공동 중국사무소(상하이) 운영

- 국내 지방정부에서 중국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 광주, 경기, 대구,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제주 등 9개 지역임
- 중국 상하이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합동 공동 사무소를 운영하여 정보 교환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표 3-45〉 시도 중국 상하이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

자치단체	설치시기	자치단체	설치시기
부산	1997.7.8	대구	2013.5.1
광주	2017.12.1	경상남도	2003.2.8
경기도	2010.3.1	전라북도	2003.4.17
전라남도	2003.4.17	충청북도	2015.8.17
제주	2015.8.17		

③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기능 강화

■ 목 적

- 국제화 기반 강화에 있어 민간교류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역할 확대 등을 통해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전라북도 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민간의 국제교류 증진 및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 및 국제적 우호 친선 관계를 증진하고 있음
- 국제교류센터는 2015년 출범이후 센터장, 사무국장, 3팀 등의 조직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정원 13명 현원 11명('19년1월 기준)임. 2018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약체결이 5건(외국 1건, 중앙기관 1건, 공공기관 및 지자체 3건), 글로벌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또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확대 및 전라북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KOICA 공모사업 선정 및 신규교류지역 발굴, 청소년 모의 유엔회의 개최 등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 홍보 및 맞춤형 공공외교 확대 그리고 외국인 및 유학생 생활기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46〉 국제화 관련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업무 비교

구분	전라북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비고
공공외교 사업	○	○	(전북)총괄 (센터)네트워크구축
전북 공공외교단 운영사업		○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업무	○		
자매우호지역교류(일본, 중국, 미국)	○	○	(센터) 글로벌 문화교류 활성화 프로그램과 해외민간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국제민간교류추진(문화, 관광, 체육, 산업 등)	○	○	
도내 일본 교류 업무지원	○	○	
도내 중국 교류 업무지원	○	○	
동북아지역(러시아, 몽골 등) 국제교류 추진	○	○	
신남방지역(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제교류추진	○	○	
미주, 구주, 오세아니아 등 국제교류 추진	○	○	
한스타일 공공외교사업(일본, 동북아지역, 중국, 기타지역 등)	○		
한중 지방정부간 초청 행사 및 교류	○		
국제기구 업무	○		
해외한국어진흥사업		○	
글로벌 리더 양성지원사업		○	
세계시민양성프로그램 운영		○	
전북형 개발협력사업		○	
세계인 한마당 축제		○	
재외동포 청소년교류 전북 초청사업		○	
전라북도 테마답사		○	

- 전라북도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외교사업과 더불어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고 다양한 진출 전략 등을 통해 해외국가 및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기능적, 업무적 부담 등으로 인해 국제환경 및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 설치된 국제교류센터와의 주요업무 등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부산시 국제교류재단의 경우 오랫동안 국제화의 기반 구축 및 부산시 글로벌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음. 특히 부산시는 국제민간교류, 공공외교(자매 및 우호협력), 민간단체 지원 사업, 글로벌 청년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광주시 국제교류센터는 기본적인 국제민간교류, 민간단체 지원, 글로벌 청년인재양성 등 뿐 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광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지원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어 외국인 상담서비스, 생활적응지원, 외국인유학생 지원, 외국인들의 문화체험 및 참여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는 글로벌 청년인재양성, 글로벌비즈니스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일자리 창출지원, 글로벌 청년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커뮤니티 지원, 협력프로그램 등의 경우 여전히 추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과 신남방, 신북방 정책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간교류 협력사업 등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표 3-47〉 타 지자체 국제교류 관련 센터 업무 비교

구분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전라북도
국제민간교류(체육 및 문화)	○	○	○	○
공공외교 활성화(자매·우호)	○	○	×	○
민간단체 지원 강화	○	○	○	○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교육방문)	○	×	○	×
ODA 사업 추진	○	×	×	○
주민국제화(이해증진 및 글로벌역량)	○	○	○	○
글로벌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	×	×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	×	×	×
글로벌 청년 창업지원	○	×	×	×
외국인 상담 서비스	○	○	○	○
외국인 생활적응 지원	○	○	○	○
외국인 유학생 지원(유치 및 취업)	○	×	○	○
세계문화 참여(문화교실, 서포터즈)	○	○	○	○
통번역·공증관련 번역	×	×	○	×
글로벌커뮤니티 지원	×	×	○	×
홈스테이	×	×	○	×
협력프로그램(문화포럼 등)	×	×	○	×

자료: 경상북도(2018).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p.51 재인용

■ 추진과제

○ 전라북도 국제교류 포럼 운영

-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진단 및 발전전략, 해외진출 전략, 국제화 기반 구축 등 전라북도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타 지역 사례 공유, 진출성공사례 확산, 시군의 국제교류 지원 등을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 포럼 운영
- 전라북도 국제교류 포럼을 통해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중앙부처 해외진출전략

및 사례 등을 통해 전라북도가 추진해야 할 방향 및 과제 등을 도출

○ 주한 외국공관 초청 전북 팸 투어

- 전라북도의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도시의 민간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전라북도의 글로벌 미래 가치 향상을 위해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전북 팸투어 실시

○ 신남방 및 신북방 국제교류 네트워크 추진

-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 기조에 따른 해당 국가와의 민간교류 추진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문화예술 국제 교류 및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등을 추진
- 신남방정책 추진 대상국가는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인도 지역 등이고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임

○ 글로벌 전북메이트 운영(Global Jeonbuk Mate)

- 전라북도 글로벌 홍보사절단으로 전라북도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전라북도에 관심을 갖고 전북의 매력적인 모습을 글, 사진, 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facebook, instagram, youtube, youku, twitter 등) 전라북도 메이트 홈페이지(신설)에 게재,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전라북도를 세계에 홍보
- 모집인원은 1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소정의 교육 및 발대식에 참여하도록 하며, 매월 1회 이상의 미션 완료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수료자의 경우 활동증명서 등을 제공하며, 매년 활동 성과보고회 및 우수 활동자 시상
- 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유학생, 행사 참가자 등에 대한 전라북도 정책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 전라북도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자원으로 활용

○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량 진단 및 기능적 재배치 추진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2018년 조직진단을 통해 운영지원팀, 교류협력팀에서 경영기획팀, 국제진흥팀, 교류협력팀으로 변경되고, 사무국장이 신설되었음
- 국제진흥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이며 교류협력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류협력팀은 기존 그대로 인력이 운영되었고, 국제진흥팀은 4명이 새롭게 구성
- 그러나 국제진흥팀과 교류협력팀의 업무 등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국제진흥팀의 주요 업무는 공모사업, 개발협력사업(KOICA), 문화교류 등이며, 사업을 국가별로

업무분담을 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판단할 경우 8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있음. 교류협력팀의 업무는 민간교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12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사업단위 및 인력 운영 구조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국제진흥팀의 신규업무 발굴이 필요하고, 불균형 구조 개선 및 효율적 운영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업무량 진단” 수행 필요

〈표 3-48〉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국제진흥팀 및 교류협력팀 업무

부서	구분	업무
국제진흥팀	A	국제교류협력 및 진흥업무총괄 국제교류협력 및 진흥 업무 총괄 전라북도 국제화 진흥관련 중장기 계획수립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 조사연구 활동 국가 및 중앙 공모사업 대응 등
	B	해외 한국어 진흥사업(라오스) 전북형 개발협력사업(라오스) 세계시민 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 글로벌 문화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국가 및 중앙 공모사업 대응
	C	전북형 개발협력사업(베트남, 네팔)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글로벌 문화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국가 및 중앙 공모사업 대응
	D	해외 한국어 진흥사업(베트남) 글로벌 리더 양성 지원사업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사업 국제진흥팀 사무 전반
교류협력팀	A	교류협력팀 업무 총괄 및 사업 발굴 국제협력 및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개발 및 계획 수립 국가 및 중앙 공모사업 대응 등
	B	해외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전라북도-장쑤성 자매결연 25주년 교류한마당(위탁사업) 재외동포 청소년교류 전북 초청사업 운영 전라북도 영문홍보잡지 제작 및 배포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 운영 전라북도 테마답사
	C	해외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세계인 한마당 축제 전북 공공외교단 운영사업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 2019 도농교류협력사업(공모사업)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교류협력팀 사무 전반

자료: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19.7.24)

4

장

요약 및 결론

IV. 요약 및 결론

- 전라북도는 국제교류 및 국제화 정책 추진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외연적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등에 있어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외교법의 제정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을 통해 지역의 글로벌 위상 확립 및 지자체 사업, 인력 등이 해외 진출하는 전략 및 공공외교사업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라북도의 경우도 새로운 국제화 전략 및 관련 과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정부는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외교적인 지평을 확대하고 실리적인 외교 등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정립 및 수출 전진기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환경에서 전라북도의 국제화 전략 추진에 있어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국가 및 해외도시와 전략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함
- 전라북도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중국사무소, 국제교류센터 등 조직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실질적인 국제정책 마련 및 해외민간협력 활성화 등의 여건이 우수한 편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도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11개 지자체)가 제정되어 추진인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긍정적인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자매결연·우호도시는 4개국 10개 도시로 타 시·도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임. 전국 시도의 경우 평균적으로 15.47개국 25.65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국제기구의 가입은 현재 4개기구(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회의컨벤션협회,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외교사업은 한스타일 사업으로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자매결연도시 한스타일 전시관 운영,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을 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공공외교사업은 개최할 때 마다 해외 재외동포, 거주 해외지역주민 등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고 평가도 긍정적임

-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정리하면 자매결연·우호도시 협력 등 국제교류, 공공외교사업, 공무원 해외파견 및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사무소 운영 및 국제교류센터 운영지원 등임
-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국가 및 해외도시와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국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자원과 특성화된 정책으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화 기반 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등을 추진해야 함
- 전라북도가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전북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국제화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확대,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추진, 국제화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등으로 설정
- 첫째, 전북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국제화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는 자매·우호 해외도시 확대, 전북형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및 정책 수출모델 구축, 전북형 국제개발협력 모델 구축, 해외도시의 공무원 및 전문가 전북 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 운영, 국제기구 가입 및 참여확대·유치기반 조성 등임
- 둘째,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추진임. 현재의 한스타일 공공외교사업과 더불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삼각농정 해외농업정책 및 농업기술 공유사업, 태권도 전북 문화페스티벌 운영 및 전북 태권도 시범단 운영, 해외 문화원 한스타일 학당 운영, 해외 대학 및 공공기관 도서관에 전북 복합홍보관(J-CAFE) 사업, K-대장간(K-BLACKSMITH'S SHOP) 전시관 운영 프로젝트, 전북 김치와 비빔밥 한마당(J-FOOD FESTIVAL), K-사물놀이·판소리(K-SAMULNORI & PANSORI) 한마당 운영 등을 검토하여 추진
- 셋째, 국제화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전략은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유학 및 연수제도 도입, 국제화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글로벌 일자리창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기능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

〈표 4-1〉 전라북도 국제화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전 략	추진과제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국제화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확대	• 아시아 지역(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미얀마, 인도) - 러시아·CIS·중앙아시아(러시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유럽(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아프리카(캐나다, 브라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 전북형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및 정책수출 모델 구축 • 전북형 국제개발협력(ODA) 모델 구축 • 해외도시의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전북 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 운영 • 국제기구 가입 및 참여확대, 유치기반 조성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추진	• 삼락농정 해외 농업정책 및 농업기술 공유사업 • 태권도 전북 문화 페스티벌 운영 및 전북 태권도 시범단 운영 • 해외 문화원 한스타일 학당 운영 • 해외 대학 및 공공기관 도서관에 전북 복합홍보관(J-CAFE) 사업 • K-대장간(K-BLACKSMITH'S SHOP) 전시관 운영 프로젝트 • 전북 김치와 비빔밥 한마당(J-FOOD FESTIVAL) • K-사물놀이·판소리(K-SAMULNORI & PANSORI) 한마당 운영
국제화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유학 및 연수제도 도입 • 국제화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글로벌 일자리창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기능 강화

- 전라북도가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해 전술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 검토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가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제화 여건 성숙에 따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전라북도 조례는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전라북도 해외 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 위촉·운영,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전라북도가 국제교류협력 추진의 필요한 사항 등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나 정책이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예컨대,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선정 및 체결시 검토요건이나 고려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유사성, 상호보완성, 우호증진 가능성, 실익 기대성, 교류 필요

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외에도 국제화 기본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 국제기구 유치 등을 포함하는 내용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국제교류 담당자 혹은 국제정책 의사결정자 등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국제화 인식 정도에 따라 국제화 수준이나 국제화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임(김형수, 2017: 46). 따라서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함. 또한 국제화는 해외도시 및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등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정보수집 및 해외도시와의 유사성, 상호협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김형수, 2017: 48).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공무원의 전문직화 또는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등을 고려해야 보아야 할 것임
- 셋째, 지금까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을 통해 평면적인 행정 교류 및 인적 교류, 문화예술체육 교류 방식 등에서 벗어나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해당 해외도시 지역과의 국제교류가 실리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함. 또한 국제기구의 가입 및 창설, 유치 등을 통해 해외도시의 관계자들과 공통의제를 설정하고 상호협력방식을 통해 대안을 찾아감으로써 전라북도의 글로벌 위상 및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함.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가의 원조 형태로 추진되어 왔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가의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례를 공유, 수출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추진이 요구됨
- 넷째,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역할 및 기능 확대가 필요함.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민간국제교류 협력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조직 개편을 통해 신규 부서 개설 등 나름대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신규 사업 발굴 등의 한계로 인해 업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업무진단 등을 통해 업무의 재조정 등이 필요
- 전라북도가 일부 시도에 비하여 국제화 기반이 약하지만 국제화 역량 강화 및 국제

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공외교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는 의미 있는 진전임. 국제화는 결국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의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제화 관련 전략 및 정책과제의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제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행정뿐만 아니라 민관학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함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경상북도. (2018). 경상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 고준호. (2017.7.24). 서울시 도시외교의 특화를 위한 도전. <세계와 도시>. 서울연구원.
- 국토교통부. (201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기획재정부. (2010).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방안.
- 기획재정부. (2012). 국제기구 유치 현황과 추가 유치 활성화 방안.
- 김미연. (201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확산과 동형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61-83.
- 김세원·이호생·최영렬. (2017).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원배. (2004). <러시아 연해주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자>. 국토정책 브리프.
- 김태윤·박미선·안동환·전병균·김나리. (2018).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태환. (2016). <주변국 공공외교의 최근 추세유형과 한국에 대한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김현수. (2018). 프랑스 경제동향 및 한-불 경제협력 확대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김형수. (2017.7.24.).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무엇인 문제인가. <세계와 도시>. 서울연구원.
- 김홍재. (2019.6.10.). 바이에른주의 2019년 경제현황. kotra 해외시장 뉴스.
- 대우로지스틱스. (2013). 마다가스카르 농업환경조사 결과보고서.
- 박범중. (2017). 지방정부의 국제화를 통한 지역발전-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7(2): 165-187.
- 박용길. (2003).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 강원도의 국제교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2(2): 119-145.
- 박형서·이동형·이주석. (2014). 지방정부의 국제화 활동에 관한 분석: 경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4(4): 281-313.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8). 신북방경제협력 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1권~3권).
- 송태규·문희철·정연정. (2006).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송하중·윤지웅·김주경. (20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정부학연구>. 16(1): 73-97.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 신남방정책추진전략.
- 신종호 외. (2010).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우양호·이정석. (2010).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393-422.
- 이동현·박종훈. (2017). 국내기업 국제화 동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 비교. <국제경영연구>. 28(4) : 1-44.
- 이신화. (2011). <국제기구 정책현황과 과제>. 아산정책연구원.
- 이용현. (1994). 지방국제화의 현황과 과제의 실증적 분석과 행정대응방안. <한국행정학보>. 28(4): 1565-1582.
- 이윤식·이기식. (2002). 전자정부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한국지역정보학회지>. 5(2): 129-156.
- 이은재. (199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실태 및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8(4): 1549-1564.
- 이재호. (2019).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한국의 대 아세안 투자 동향. KIEP 세계경제포커스
- 이재훈·양현주. (2011). 국제기업가정신, 핵심역량 그리고 국제화간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4(6): 3247-3271.
- 이정주·최외출. (200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과분석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145-162.
- 이정주·최외출·김한양. (201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25-48.
- 이창 외. (2018). <서울시 도시외교 가능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 이해정·이용화. (2017).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현대경제연구원.
- 이현주 외. (2016).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상 연구>. 국토연구원.
- 이현주 외.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연구원.
- 이홍식 외. (2018).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 장윤정. (2010).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유치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정동연. (2019).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 현황과 시사점 : 몽골의 시각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동연·강부균. (2018). 코카서스 3국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 기초자료.
- 정민현·김초롱. (2019). 카자흐·우즈베크의 경제 현황평가와 한·중앙아 신경제협력방향, KIEP

세계경제포커스.

정상훈. (2019). 〈우리나라의 ODA와 지자체 참여방안 및 사례〉. 광주광역시 국제교류 활성화 워크숍 자료집.

조대현. (2016). 미얀마의 신경제정책(수지노믹스)과 한국기업 시사점. POSRI 이슈리포트

조성호·박희정. (2004). 지방의 국제화 추진역량 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8(4): 103-130.

차재권·권기철·김태만·서창배·정해조. (2010). 지방정부의 국제화 지수-부산시 지역연구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지역논총〉. 3(2): 87-123.

하영수. (200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실태분석과 함의. 〈지방정부연구〉. 5(2): 117-134.

해외문화홍보원. (2018). 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보고서.

홍성우. (2011).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현황과 공무원 인식수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197-215.

홍종필·여선하. (2012). 공공기관의 해외 문화예술사업 특성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한국국제교류재단의 독일 및 프랑스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6): 334-365.

황판·한상연. (2015)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제주도와 중국 하이난성의 사례. 〈도시행정학보〉. 28(3): 53-74.

CDMX. (2015). The Irreversible Internation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www.proyectoallas.net

KOTRA. (2018). 호주 빅토리아 경제 및 대한 교역 현황.

KOTRA. (2019a). 2019 네덜란드 진출전략

KOTRA. (2019b). 2019 영국 진출전략

KOTRA. (2019c). 2019 브라질 진출전략

KOTRA. (2019d). 2019 캐나다 진출전략

KOTRA. (2019e). 2019 호주 진출전략

KOTRA. (2019f). 2019 남아프리카 진출전략

정책연구 2019-15

전라북도 국제화 역량 강화방안 연구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19년 8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65-3 9335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